

레베데프 비망록

(대구, 매일신문 1995.1.1.~2.28. 24회 연재기사 全文)
1947.5.14.~1948.12.26. 기록

김 영 중 편

레베데프 비망록

들어가면서

주변 강대국의 압박과 침략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역사, 그 끝인 조선 말기에는 제국주의 격랑에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다. 그때도 선각자와 우국지사는 있었다. 그러나 도도히 흐르는 탁류를 몇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은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혹독한 일제 36년이 끝나고 해방이 되자 희망찬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전개되는 줄 알았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남북분단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수난사에서 그 원인이 강대국 때문이었다는 지적은 100% 옳은 답이다.

그러나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오직 남의 탓뿐일까? 미·소가 남북한을 분할 점령하면서 우리의 상황은 더욱 복잡 미묘해지고 혼란에 빠져들어 갔다. 우리에게서 힘과 능력이 없었고 우리끼리 서로 분열하고 갈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대일전에 연합하였지만 이념과 체제는 너무나 달랐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에 놓였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 김일성 정권 창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소련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그 최고 정점에는 스탈린이 위치했다. 지휘체계는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와 외무성·국방성→ 연해주 소련제25군사령부→ 평양의 소련군정→ 북한 김일성→ 그리고 남조선노동당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이 경로를 통하여 소련의 적화 전략전술과 지령이 하달되었고 그 역순으로 모든 정보와 실황이 보고되고 지침을 받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런 과정은 당시 중요한 위치에서 북한 정권 창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소련 인물들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 외에도 개인적 일기 또는 메모 형식의 기록들도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티코프 비망록’과 ‘레베데프 비망록’이다. 레베데프는 한반도 분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소련 점령군 사령부 핵심인물이다. 그는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위해 정열적으로 일했으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일기로 쓴 것이 바로 이 비망록이다.

편자는 이 비망록을 통해 북한 정권창출에 소련이 어느 정도 개입했으며, 그리고 남북협상의 추진 내막과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비망록을 통하여 재확인된 중요한 사실은,

첫째,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직후 일제가 은밀히 추진했던 핵개발 시설과 원료 등을 소련으로 반출하여 원자탄개발에 성공했고, 여기에 고무된 김일성이 6·25남침을 감행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이 먼저 분단정권을 수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우리의 5·10총선일 기준 6개월이나 먼저 채택한 북한헌법 시행을 보류하고, 신헌법에 의한 선거를 남한 총선보다 늦은 시기에 시행하도록 거듭 지령한 사실이다.

셋째, 소련군정의 방침이나 지령 내용이 1947년 남로당제주도당이 주도(사실상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이 주도)한 소위 3·1운동기념투쟁 때 각 읍·면당과 세 포에게 하달된 지령문¹⁾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소련군정이 5·10선거를 저지하라는 지령은 수차례 있었으며, 특히 남로당이 5·10총선 저지를 위해 1948년 2·7구국투쟁 등 폭력투쟁전술로 바뀐 것은 같은 해 1월 스티코프의 전술 전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4·3사건도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레베데프 비망록은 매우 유용하고 귀중한 자료이다.

이 비망록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정권 수립 내막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70여 년 전 누가 옳은 선택을 했고, 누가 어둠의 길을 택했으며, 누가 현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연설문 하나까지도 소련의 검열을 받아 시행한 북한 김일성과 제주4·3사건을 비롯한 남로당의 역사적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적 통일

1) 1947년 3·1운동기념투쟁 때 남로당제주도당이 하달한 지령서 16건은 「남로당제주도당 지령서 분석」(김영중, 삼성인터넷, 2014.12.15.) 참조할 것.

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이념과 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명제가 너무나 분명해졌음을 터득해야 한다.

편자는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낀 점이 바로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이었다. 제주도에 거주했기 때문에 자료에 접근하기 곤란했고 더욱이 그 자료가 오래된 책자나 신문일 경우에는 구입이나 검색과 인용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으며 그때마다 이에 대한 단행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1995년 대구 소재 매일신문사에서 레베데프 비망록을 해설과 함께 기획 연재했다.²⁾ 매일신문사가 이를 단행본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럴 계획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편자가 이 책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지방지라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귀중한 자료를 발굴해 준 매일신문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2월 13일

제주 우거에서 김 영 중 씀

2) 레베데프 비망록은 그 일부를 1994년 11월 중앙일보사에서 연재했고 그 내용이 「내가 보는 제주 4·3사건 문과 답」수정증보판 부록 2 (344~374쪽, 김영중, 제주문화, 2016.3.10.)에 수록되어 있음.

일러두기

1. 레베데프 비망록의 자료적 가치는 소련이 북한 김일성 정권 창출에 얼마나 개입하였으며, 1948년 김구와 김규식이 참석한 평양 남북협상이 소련의 각본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서 남북협상의 성격과 역사적 진실을 밝혀주는데 있다.
2. 이글은 199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매일신문이 24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 기사 전문(全文)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3. 이 비망록에는 많은 낱자가 누락되어 있다.
4. 동일인으로 생각되는 이름이 다르게 기록된 것이 있다. 원문을 존중했다.
예 : 툰킨, 툰킨
5. 판독 불능인 글자는 □□□으로 처리했다.
6. 각종 기호는 원문대로 하였다.
7. 중앙일보 비망록과 대조하여 누락된 부분은 편자가 디나루체로 추가하였다.
8. 사진은 (영인본에 있어서) 생략하였으나, 사진 설명문은 **중서체**로 옮겼다.
9. 월 일 앞에 해당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한 것은 편자가 추가한 것이다.
10. 참고로 영인본을 뒤에 첨부했다.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 소장

(Nikolai Georgievich Lebedev)

1945년 8월 말 소련점령군사령부 정치사령관

1947년 중반 민정사령관 겸임

1992년 5월 모스크바에서 90세 사망

매일신문 1995년 1월 1일 (6면)

레베데프비망록 역사적 가치 對談

■ 일 시 : 1994년 12월 24일

■ 장 소 : 본사 회의실

■ 참석자 :

△ 丁海龜씨(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 李基雄씨(慶北대 노어노문학과 교수·言語學 박사)

△ 사회 : 金塚漢 국제부장

△ 기록 : 金□基 기자

해방의 기쁨과 함께 민족의 운명을 他律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해방 후 군정시대, 본사가 광복 50년을 앞두고 긴급 입수한 당시 소련의 북한 주둔 제25군사회의 사령관 레베데프 소장의 비망록은 이 시기의 북한 정치동향과 미·소공동위원회의 진척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활상 등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한국현대사를 충격적으로 담고 있다.

레베데프 소장 手筆원고의 번역을 담당했던 慶北대 노어노문학과 이기웅 교수(言語學 박사)와 이를 분석,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정치연구회 丁海龜 연구위원과의 대담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국 現代史의 귀중한 資料

蘇軍政下 北생활상 생생히 기술

白凡선생을 「까탈스런 노인」 표현

모든 사물 直視... 「激動期」연구 시발점 제시

▲ 司會 : 2개월에 걸친 번역작업과 역사적 사실의 검증을 거치는 동안 레베데프 비망록은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이 비망록의 역사적 가치부터 말씀해 주시죠.

▲ 丁 : 이제까지 입수된 자료들은 모두 당시 북한의 공식적인 문서들뿐입니다. 그러나 레베데프 비망록은 소군정의 실무책임자가 소군정과 김일성의 역학

관계, 나아가 북한 정권수립의 내막을 어떤 간섭 없이 솔직하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둘도 없는 희귀한 자료로 평가 됩니다.

▲李 : 47년 5월부터 48년 12월 소련군 철수까지의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들의 성향이나 정치활동, 북한의 각종 생활관계까지도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생활상을 살펴보는데도 좋은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司會 : 소련의 핵실험 성공과 북한의 우라늄 생산이 한국 전쟁의 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丁 : 소련은 49년 원자폭탄을 개발했습니다. 배경에는 해방 후 북한에 남아있던 일본의 핵개발 관련 시설물과 북한 우라늄이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제는 미군의 공습위험도 피하고 전기가 많은 북한에 핵연구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해방 후 소련군은 이 시설물을 철거, 소련으로 가져 갔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소련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李 : 레베데프 비망록에는 북한의 우라늄을 다량 소련으로 수송했다는 기록과 우라늄에 대해 소련의 2인자이자 NKVD(KGB의 전신) 책임자인 베리야에게 보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丁 : 소련은 북한의 우라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레베데프의 보고는 소련 외무장관이던 몰로토프가 접수하는 것이 올바른 보고선 입니다. 그러나 우라늄에 대해서는 왜 베리야에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스탈린의 핵개발 의지에 따라 레베데프가 베리야를 통해 북한의 우라늄을 소련에 공급했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李 : 핵개발에 성공한 소련에 고무되어 미국이 개입해도 소련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전쟁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丁 : 미국도 소련이 북한의 핵시설과 물질을 수송해가는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 여러 기록에서 언급이 되는데 부르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2편에도 이 문제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텅스텐광산이 많았습니다. 텅스텐 채굴 시 생기는 다량의 모나자이트모래를 변형시켜 토륨을 생성시키고 여기서 방사능 물질을 추출해 소련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 ▲司會 : 그 외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丁 :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임시정부 수립 시 좌파가 주도권을 잡도록 용의주도하게 좌·우, 중도 비율을 책정한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막연한 사실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소공동위가 임시정부수립을 위해 남북의 정당이나 사회단체대표들과 협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소련은 좌우파가 갈라져 있던 남한과 1백% 좌파인 북한의 비율을 1대1로 해 실질적으로 4분의 3을 좌파로 채워 넣을 속셈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권 자리인 수상, 부수상, 국방장관은 좌파로 앉히는 등 임시정부 각료직 3분의 2를 남북한 좌익계로 포진시켜 북한을 친소, 친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한 점입니다.
- ▲司會 : 소련군정과 김일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 ▲李 : 생각하고 있었던 이상으로 김일성에 대한 소련군의 입김이 컸습니다. 김일성이 레베데프에게 보고하면 그 보고는 모스크바로 갔다가 다시 지침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지침에 따라 김일성이 시행하는 단선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丁 : 김구에 대한 재미난 표현이 있었습니다. 레베데프가 남북협상차 북한에 온 김구를 각테일파티에서 만난 후 첫 인상을 「한국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 중의 하나로 생존하는 가장 늙은 산적 같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반탁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소련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행동하는 까탈스런 노인으로 비춰졌겠지요.
- ▲司會 : 번역을 하면서 레베데프에 대해 느낀 점은 어떤 것입니까?
- ▲李 : 레베데프는 군 장성이면서도 지독한 기록가입니다. 1년 7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개인 메모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부하 군인이 부부싸움을 했으며 그 처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러면서 병사의 사상교육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질책과 군대 부식과 보급품 조달에도 상당히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진지하고 투철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습니다.
- ▲丁 : 군인이면서 감각이 전혀 군인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시 소련군은 군사적인 실무만 보는 군인과 선전, 교육 등을 맡은 군사회회의 정치위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레베데프는 후자에 속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실세였구요.

▲李 : 해방직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한국인에 대해 다소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편이었는데 레베데프는 모든 사물을 원칙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침몰한 소련군함을 보기 위해 仁川에 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청년과 이야기하기 위해 한국어-일어, 일어-노어 두 명의 통역관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어를 모르는 사실을 한탄 하더군요.

▲司會 : 번역이나 역사적 검증 작업 중 느낀 점은 없었나요?

▲丁 : 당시 북한에 관계된 자료들은 소련 외무성이나 국방성 등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金泳三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입수한 자료들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은 발굴해 현대사의 아픈 출발점이 된 군정시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李 : 개인적인 메모형식이라 함축적이고 또 手筆이라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작업들을 통해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 보관 중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내야 하겠습니다.

▲司會 :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매일신문 1995년 1월 1일 (7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

◇ 레베데프 비망록은 1947년 5월 14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때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비망록의 내용 역시 제2차 미·소공동위에 대한 소군정 측의 준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編輯者 註> ◇

소, 「미·소공동위」 대표에 스티코프 선임

중도파 서울會晤에 左派의 향배는...

■ (1947년) 5월 14일

오늘 1947년 5월 12일자로 보낸 소련 국무회의의 훈령을 받았다.

다음은 5월 12일자 훈령1503-399의 미·소공동위원회 소비에트 대표단에 관한 것이다.

1. 미·소공위 소비에트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단장 : 스티코프·T·F

위원 : 톤킨 G·I

위원 : 레베데프·N·G

(註 : 스티코프 소장 :

1939년 ~ 40년 핀란드와의 전쟁에 참여했고 일본이 패망이후에는 연해주관구 군사회의 군사정치위원을 역임하면서, 실제적으로 소련의 대북한 정책을 현지에서 좌우했던 최고위 핵심 인물이었다.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시 소련 측 대표단장을 역임했고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시에도 대표단장을 역임했다.

북한정권이 들어선 1948년 9월 이후에는 초대 북한 대사를 역임했다.

레베데프 소장 :

북한주둔 소련 제25군 참모, 소군정의 정치사령관과 민정사령관을 역임했고 소련 측 대표로서 제1·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했다.)

2. 소비에트 대표단의 구성원에 관한 예정 명단을 확실히 한다.

3. 소비에트 대표단의 역원 개개 구성원을 위해 구성원의 직무와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직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료의 지급을 보장한다.

■ 위원회 정원

▲지도조직

대표단 위원 : 3명, 위원회 고문 : 4명, 전문가 : 2명, 위탁인 : 1명,
육군대학 연구생 : 2명(계 12명)

▲비서직

책임비서 : 대령 1명, 책임비서 보좌 : 중령 또는 소령 1명,
사무담당 주임 : 대위 1명, 고용 숙달 속기사 : 3명, 고용 기사 : 3명,
영어통역관 : 4명, 한국어통역관 : 3명(계 16명)

▲특별 통신부서

부서 책임관 : 소령 1명, 암호담당관 : 대위 2명, 선임 무선기사 : 중사 1명,
무선기사 : 상등병 2명(계 6명)

▲경리부서

경리부 책임관 : 소령 1명, 경리부 지휘관 : 중사 1명, 고용 요리사 : 2명,
고용 급사 : 1명, 군속 취사장 인부 및 청소부 : 2명, 고참 운전수 : 중사 2명,
운전수 : 사병 4명(계 14명)

▲재정부서

재정부 책임관 : 대위 1명,

▲보건부서

의사 : 소령 1명,
총계 : 50명

참고 : 대표단이 남한으로 여행하는 동안 제25군 지휘부는 장교를 책임자로 하는 8명의 전신전화 연락부와 15명으로 구성되는 경비부대를 선발한다.

■ (1947년) 5월 15일

노인 측으로부터 발레친이 전화했다(?).

5월 25일 서울에서 공동위원회의 활동 개시와 관련하여 중도주의자들의 회합이 있을 예정이다. 좌파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의 의견으로는 좌파들은 이 모임에

참가해서는 안 되고 자신들만의 회합을 소집해야 한다.

여기에서 대중들이 누구를 따를 지가 보여 질 것이다.

(註 : 「노인」은 남한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책임자인 듯하며, 「발레친」은 남한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인물인 듯하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련 측은 남한 중도파의 행동에 대해 예민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복 50년 分斷 50년

北韓정권 이렇게 수립됐다

레베데프 비망록 서 밝혀진 内幕

蘇, 한반도에 「左派주도 臨政」 기도

치밀한 「指針」... 숨 가쁜 막후工作

金日成 앞세워 內政 깊숙이 개입

「南·北韓 전체인민회의」 구성도 추진

우리 현대사의 고통스러운 출발점이 되었던 해방 직후 분단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남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의 제반 자료와 미군정의 자료들이 상당 정도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북한에 대한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그렇지만 최근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더불어 당시 북한 고위층의 증언이라든지 또는 소련 측 자료들이 점차 입수되면서 당시 소군정하에서 이루어졌던 북한정권 수립의 내막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굴된 「레베데프 비망록」은 당시의 북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희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레베데프로 말하자면 해방과 더불어 북한에 진주했던 소련군의 최고위 장성으로 소군정 정치사령관과 민정사령관을 역임했던 북한정권 창출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만큼 그의 비망록은 분단의 막후에서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북한정권 수립의 비밀 등을 상당 정도로 밝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1947년 제2차 미·소공위가 전개되기 전까지 소군정은 한편으로 토지개혁 등 일련의 사회개혁 정책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적 기반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다른 한편 그들은 미·소공위를 통해 남북한 좌파들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는 임시정부 수립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북한을 강력한 사회주의적 근거지로 구축하는 한편 남북한 전체에 걸친 좌파 주도의 친소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47년 후반 이후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통일정부 수립의 가능성이 무산되면서 남북한에서는 각각 분단정권 수립이 본격 모색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 「레베데프 비망록」은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위가 개막되었을 때로부터 1948년 12월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할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비망록은 제2차 미·소공위가 전개되고 결렬되었던 상황, 그리고 그 결렬 이후 북한정권이 본격 등장했던 상황 등을 소군정의 입장에서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레베데프 비망록」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제2차 미·소공위 개막에 즈음하여 소련 측이 지니고 있던 임시정부 수립 구상이다.

그에 따르면

첫째로 소군정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위 협의대상 정당 사회단체 대표 비율에 있어 남과 북의 동등한 지분과 남한 대표 중 50%의 좌파 지분을 원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남북한 전체로 말한다면 그들은 3/4 정도의 좌파 지분을 원했던 것이다.

둘째로 소련 측은 임시정부의 전체 각료직 중 수상, 부수상, 국방상 등 주요 각료직을 포함하여 2/3 정도를 남북한 좌파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할 생각이었음도 이 비망록은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그들은 미·소공위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들어선다면 좌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레베데프 비망록」은 제2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북한에서 추진되었던 북한정권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다수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소군정과 북한지도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북한정권 수립이 모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북한정권 수립의 기본적 지침이 모스크바 → 스티코프 → 레베데프 → 김일성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시 속에서 마련되었고 그 지침에 바탕하여 소군정은 북한정권 수립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 비망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비망록은 이 같은 소군정의 개입 아래 추진되었던 북한정권 수립 과정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비망록은 북한정권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전조선인민위원회 대회」 소집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들은 남한 측 대표 3백여 명을 월북시켜 1948년 3월 중순경 「전조선인민위원회대회」를 소집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 대회를 통해 사실상 남북한 전체의 인민회의 즉 국회를 구성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남한에서 김구(金九) 김규식(金奎植) 등 남북협상 세력이 강화되고 이들이 남북협상을 제의함으로써 「전조선인민위원회대회」 소집보다는 「남북연석회의」를 추진해야 될 상황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3월 이후 이 비망록이 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소군정과 북한지도부의 치밀한 준비 하에 추진되었던 남북연석회의 즉 남북협상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김구 김규식을 북으로 불러올렸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들과 효과들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김구에게 일정한 지위를 주어 그를 북한에 머물게도 할 수 있으리란 그들의 판단, 미군정이 김규식을 남한의 대통령으로 내세울지도 모른다는 우려, 그렇기 때문에 김규식을 북으로 불러들이고자 했던 의도, 북에 올라온 김구 및 김규식이 그들의 계획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 남북협상세력의 북행과정에 있어서의 백남운(白南雲)의 역할, 그리고 남북협상을 통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치밀하게 준비했던 제반 조치들 등등, 남북협상과 관련된 사실들을 이 비망록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레베데프 비망록」은 인민군 창설과 관련된 내용, 우라늄광에 대한 소련의 관심, 천도교에 대한 감시, 연안파 김두봉(金斗奉)에 대한 불신, 소련군의 철수상황 등, 이제까지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담고 있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비망록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미진했던 이 시기 역사에 대한 진실보한 이해를 가능케 해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 수립에 대한 보다 새로운 해석도 가능케 해주리라 생각한다.

□ 사진설명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1949년 3월 부수상 朴憲永,
비서 文日과 함께 모스크바를 처음 공식 방문한 金日成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4일 (8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2)

각급 選舉 투표율 百% 육박

47년 2월 「인민위원회」 출범

■ (1947년) 5월 16일

아침 우리 대표인 마슬로프, 푸르킨 그리고 한 명의 통역관이 서울로 떠났다.

낮에는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된 기차를 돌아보았다.

마치 황제용 기차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그런 외견상의 장식은 필요치 않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그나치예프는 (다음과 같은 북한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준비했다.)

(주 : 다음은 이그나치예프가 준비한 정보의 내용으로서 1946년 말과 1947년 초에 북한에서 실시된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각종 통계와 당시 각 정당의 당원 수, 그리고 교육시설에 대한 통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당시 북한에서의 선거는 흑백함 선거였다.)

▲ 1946년 11월에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행해졌다.

선거인등록자 총수의 99.6%에 해당하는 4백50만1천8백1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참가자의 97% 통일전선 후보자들(주 : 북한의 각 정당·사회단체들의 전선체인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당시 공동후보를 내세우고 있었다.)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 1947년 3월에는 면리 인민위원회 선거가 행해졌다.

면 선거에서는 선거인 총수의 99.9%에 달하는 3백76만6천6백2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참여자의 96.2%가 북조선민전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리 인민위원회 선거에서는 선거인 총수인 99.62%에 해당하는 3백85만9천 3백1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5만3천3백14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면·리 인민위원회 선거에 4천6백73명의 선거권이 박탈되었는데 그들 중 4백20명은 친일파였고 4천2백 46명은 정신이상자였으며 7명은 재판에 계류 중이었다.

- ▲ 전체 인민위원회(도·시·군·면·리)에서 총 7만4백54명의 위원들이 선출되었다.
 - 이들의 사회성분은 다음과 같다.
 - 농민 78%, 노동자 6.4%, 사무원 12.6%, 인텔리 1.03%, 상인 1.22%, 기업가 0.37%(2백55명), 종교인 0.33%(2백14명), 전지주 0.04%(32명), 수공업자 5%
 - 정당소속
 - 노동당 57.7%, 민주당 7.7%, 천도교 5.3%, 무소속 29.3%
 - 인민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중 9천5백21명이 여성으로 이들은 인민위원 총수의 12.1%를 차지한다.
- ▲ 2월 17일 인민위원회대회 제1차 회의가 개막되었다. 도·시·군인민위원회 총회에서 평균 3명의 인민위원 중 1명이 인민위원회대회 대표로 선출되었다. 1천1백59명의 대표들이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중 25명(주: 35명의 오기임. 당시 정당과 사회단체에서는 각 5명씩의 대표를 인민위원회 대회에 참여시켰다.)은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이었다.
 - 인민위원회대회 대표들의 사회성분
 - ▲ 노동자 2백29명, 농민 3백13명, 사무원 3백30명, 인텔리 1백10명, 상인 11명, 수공업자 6명, 기업가 8명, 종교인 34명, 가정주부 및 여성 가사노동자 13명,
 - 정당소속
 - ▲ 노동당 5백79명, 민주당 1백37명, 천도교 1백32명, 무소속 3백21명
 - 대표 중 1백58명은 여성이었다.
 - ▲ 대회는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모든 법령들을 승인하는 한편 비밀투표로 2백37명으로 구성되는 인민회의대표를 선출했다.
 - 인민회의 대표들의 사회성분

- ▲ 노동자 53명, 농민 60명, 사무원 59명, 인텔리 34명, 상인 4명,
수공업자 5명, 기업가 5명, 종교인 10명
- 정당소속
 - ▲ 노동당 89명, 민주당 29명, 천도교 29명, 무소속 90명
- 1947년 4월 1일 현재 정당의 당원 수
 - ▲ 노동당 당원수 63만 명 그들 중
노동자 20.3%, 농민 61.9%, 사무원 13%, 나머지는 기업가 수공업자
상인 자유직업인 등,
당은 6개의 도위원회, 89개의 군위원회, 8백7개의 면 위원회 등을 지님.
- 민주당 1945년 11월 초에 조직되었다.
1947년 4월 15일 현재 당원 수 24만5천명,
당은 주로 중소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
사회성분
숙련노동자 8.2%, 부농 68.6%, 상인 9%, 사무원과 인텔리 9.7%,
기업가 0.52%, 수공업자 1.2%, 기타 2.77%
- 천도교 1946년 2월에 정당으로 조직되었음.
주로 농민으로 구성, 1947년 5월 1일자 당원 수는 □만 명,
사회성분
노동자 17%, 농민 77%, 사무원 2.3%, 상인 0.9%,
기업가 및 수공업자 1.9%

레베데프 비망록 解説

政權창출 과정 숨가쁜 선거

북조선民戰 후보에 압도적지지

노동자·농민 새로운 지배층으로

1946년 말에서 1947년 초에 이르는 동안 소군정은 북한에서 정식 정권기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종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그나치예프가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제2차 미·소공위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에서 이미 치러졌던 각종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통계들에 관한 정리 내용들이다.

우선 북한은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방식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공동으로 추천한 후보에 대해 찬성자는 백함에 반대자는 흑함에 투표하는 흑백함 선거였다.

물론 흑백함 선거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투표자에 대한 감시보다는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문맹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 채택되었던 점도 있었다. 비망록의 통계를 보면 공동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있었지만 반대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해방 직후 북한정권과 같듯이 많았던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심했다.

아무튼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하여 북한에서는 3천여 명의 인민위원들이 선출되었다.

1947년 2월 24, 25일에는 리(동)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그나치예프의 보고에는 3월에 치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리(동)인민위원회 선거는 2월에 치러졌다)

이를 통하여 리(동)인민위원 5만여 명이 선출되었다. 이어 3월 5일에는 면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1만여 명의 면 인민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이것으로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1947년 2월 17일~20일에는 도·시·군 인민위원 3인 중 1명 꼴로 뽑힌 대표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 각 5명씩의 대표들로 구성된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인민위원회대회는 인민회의(국회에 해당)를 구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2백37명의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여기에서 선출된 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인민위원회대회 직후인 2월 21~22일 제1회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개최, 북조선인민회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어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2월에 선거 없이 임시적으로 구성되었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7년 2월에는 그 ‘임시’ 자를 떼고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정식 정권 기관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사무원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해방직후 혁명적 과정을 거쳤던 북한에서 지주 등 과거의 지배층이 몰락하고 과거의 피지배층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 사진 설명

윗 사진 : 기차편으로 서울에 도착하는 2차 美·蘇공위 蘇聯측 대표들을 환영하는 국군군악대.

스티코프 대표 등은 이날(47년 5월 20일) 비행기편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아래 왼쪽사진 : 소련측 이브라 멘코 대령(중간)과 이브라 멘코 대령을 환영하고 있는 美 □ 소령(왼쪽)

아래 오른쪽사진 : 47년 5월 20일 2차 미·소공동위를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소련대표단장 스티코프 上將을 맞는 미국대표들.
왼쪽 키큰이가 美측 대표 브라운 장군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7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3)

美·蘇 공공이

統一정부 수립 걸림돌로

대표단 道程 곳곳서 환송 人波

2차 委員會 서울환영식 삭막

스티코프·하지 「포옹」은 하지만...

■ (1947년) 5월 17일

1946년에는 1개의 의과대학, 2개의 교원대학, 그리고 현재 3천3백37명이 공부하고 있는 1개의 종합대학이 문을 열었다. 1947년 9월 1일부터 공업대학 교원대학이 문을 열 계획이며 그 학생 수는 6천3백 명에 달할 예정이다.

■ (1947년) 5월 19일

이른 아침 썰렌찌 포미치(註 스티코프)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첫 번째

군용열차를 보내고 내일 모든 대표들을 보내라고 말했다.
나는 13시에 첫 열차를 보냈다. 낮에 스티코프와 툰킨이 도착했다.
대표는 아침에 서울로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 시간은 한 시간 앞당겨졌다.
즉 서울에 5월 20일 15시 15분에 도착하여 하지(註 주한미군사령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침 9시에 출발하기로 한 것이다.

■ (1947년) 5월 20일

이른 아침 6시에 켄넬리가 전화하여 나를 급히 불렀다.
여기에서 나, 발라사노프, 꼬르꾸렌코, 그리고 나머지 기술진과 비서진은 기차로 가고 그와 툰킨은 비행기로 가기로 결정되었다.
밤에 몰로토프(註 소련 외무상)가 전화로 위원회 업무에 대해 지시했다.
(註 발라사노프 : 소련 주일대사 역임, 제25군 정치고문, 제1·2차 미·소공동 위원회에 소련 측 고문으로 참석했다.)
9시에 예정대로 평양을 출발했다.
우리는 대표단을 전송하기 위하여 많은 단체와 학교의 대표가 모여들어 군중 집회가 개최되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김달현(金達炫)이 연설했다.
조선의 브죤느이(내전 당시 유명한 적군 지휘관), 우리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의 콧수염은 러시아 브죤느이 같았다.
스티코프가 답사를 했다.
아이들이 꽃을 선사했다.
꼬르뜨꼬프, 샤닌, 그로모프, 이그나치예프 등이 배웅을 나왔다. 모든 것이 엄숙하고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註 김달현 북조선 청우당 위원장)
호각이 울리고 디□까와 작별을 하고 우리는 출발했다.
가는 도중 지나는 역마다 예외 없이 깃발과 손수건을 든 학생들과 마주쳤다.
첫 정차역인 사리원에서 만세를 외치며 군중대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사진과 꽃들이 보였으며 인민위원회 및 정당 대표들이 나와 있었다.
또다시 꽃 증정이 있었고 10분간 정차 - 신원역에서 다시 군중대회, 소비에트 대표단을 만나기 위해 나온 많은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다.
다시 축하와 꽃의 물결이 일고 이러한 일들이 38선까지 계속되었다.
38선 이후로는 풍경이 아주 달라졌다.

첫 정거장에 기차가 들어서자 경찰이 경계를 폈다.
 아무도 기차에 다가서지 못했다. 이러한 풍경이 서울까지 계속되었다.
 오직 경찰만이 있었다. 기차가 오기만 하면 경찰이 애워쌌다.
 작년에 비해 경찰의 수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역마다 오래 머물렀다.
 서울역에는 45분이나 늦어 오후 4시에 도착했다.
 정거장 플랫폼에는 종군사진사, 영화촬영기사가 있었다.
 미국위원회 측의 일원인 웨커링 장군과 랭던이 마중 나와 있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3분정도 서 있었다.
 광장에서는 군악대가 행진곡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광장에는 도열한 경찰과 미군들 이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註 랭던 : 미군정에 파견된 미국무성 고문,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시 소련대표단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 때에는 별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 앞에서 미군이 탄 장갑차와 지프가 선도했다. 역에서 영사관으로 가는
 모든 길에는 경찰이 도열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경찰들은 서로 10~15보 간격으로 서 있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서울에 왔다.
 영사관에 도착하자 일류신 47호가 하늘에 보였다. 스티코프가 탄 비행기이다.
 스티코프는 5시에 영사관에 도착했다.

■ (1947년) 5월 21일

2시에 덕수궁에서 공동위원회의 개막행사가 열렸다.
 개막식에는 미군측 장군들과 미국, 프랑스, 중국 영사들, 그리고 우리 측
 연락장교들이 참석했다.
 군정장관과 군정의 각 부처장 그리고 군정 내 조선인들도 참석했다.
 스티코프와 하지는 포옹을 나누고 또다시 사진·영화 촬영이 있었다.
 (註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이날 덕수궁 석조전 회의실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 (1947년) 5월 22일

첫 실무회담, 의사일정을 정했다. 미국 측에서는 위원회에 정당 사회단체 대표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관련 당사자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들고 나왔다. (우리는) 그들에 포섭된 앞잡이 정당 사회단체들을 제외하고 싶었다.

우리는 그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았고 그들도 그 문제에서 손을 뗐다.

이어 미국측은 이전의 결정 3에서 정치 강령에 대한 구상을 취소하고 장차 수립될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권력이양에 관한 새로운 항목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에게 불리한 정치 강령을 의사일정으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해 그들은 심지어 강령에 관한 의제에 합의된 적이 없다는 술책까지 부렸다. 그들에게 이전 회의에서 그 기록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1946년 4월 27일 회의록과 기록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미국 측의 이 수정안은 철회되었다.

◇ 47年の 북한교육기관 현황 ◇

		일제시대	1947년 현재
초등학교	학교 수	1,372	2,482
	학생 수	878,000	1,183,000
중등학교	학교 수	44	217
	학생 수	17,000	70,000
기술전문학교	학교 수	62	68
	학생 수	15,000	20,000
기술양성소	참여자 수		27
			10,000

해 설

1차 美·蘇공위 결렬

「협의 대상」 선정 놓고 異見 노출

内幕은 주도권 다툼 힘겨루기

미·소공동위원회의 목적은 1945년 말 한국문제에 대해 관련 강대국, 특히 미국과 소련의 합의로서 발표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원래 모스크바 결정은 한국을 민주주의 독립국으로 발전시키고 일제 통치의 잔재를 신속히 청산하기 위하여 한국에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남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소 양군 대표로 하여금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 이 위원회가 남북한의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 안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모스크바 결정에 따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20일부터 약 한달 반에 걸쳐 진행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제1차 미·소공위는 결국 미소양측의 의견 일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따라서 5월 8일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제1차 미·소공위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미·소공위 협의대상 정당 사회단체의 선정기준과 방식의 규정에 있어 미·소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 측은 가능하면 자신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었던 우파진영이 비록 반탁을 주장하고 있었을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미·소공위 협의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었다.

반면 소련 측은 반탁운동을 전개했던 이들을 모스크바 결정에 반하는 「반민주적」 단체라 하여 미·소공위 협의대상에 배제하고자 했었다.

물론 미·소가 겉으로 내세운 이유야 이상과 같았지만 그것은 내막적으로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있어 미·소의 주도권 다툼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즉 미국 측은 그 대부분이 우익세력인 반탁진영을 미·소공위 협의대상에 가능하면 많이 포함시켜야만 친미적인 한국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고, 반면 소련 측은 협의대상에서 가능한 한 반탁진영을 배제하고 좌파세력을 많이 포함시켜야만 친소적인 한국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미·소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제1차 미·소공위가 중단되었던 것이다.

제1차 미·소공위가 이렇게 결렬된 이후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기까지에는 약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미군정과 소군정은 남북한에서 자신의 체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미군정 역시 이 기간 동안 좌파진영을 집중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남조선과도 입법회의를 수립해 놓고 있었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남북한에서 서로 다른 체제가 강화됨으로써 그 성공 가능성은 더욱 약화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통일된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레베데프 비망록」의 첫 부분은 바로 이 같은 제2차 미·소공위의

개막에 즈음하여 서울로 향하고 있는 소련대표단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 사진설명

왼쪽 사진 : 美측 수석대표인 브라운 장군이 제2차 미·소공위 첫날(47년 5월 21일)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왼쪽이 한국문제에 정통했던 번스 박사, 오른쪽이 美측 통역관인 프로스토프(좌) 연설 중인 스티코프 蘇대표 테이블 상석에 美 하지 장군, 그 외 오른쪽으로 소련 측 대표들인 레베데프, 발라사노프, 마슬로프가 앉아 있다.

오른쪽 사진 : 미·소공위 회의를 마친 蘇대표 스티코프 上將(앞 흰 제복)과 레베데프 소장(위 흰 제복)이 덕수궁을 나서고 있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10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4)

蘇 臨政 구상

「信託반대」人物·단체는 제외

人口비례 불리 남북대표 同數라야

國會 구성되면 權力 완전 이양키로

■ (1947년) 5월 22일

(註: 아마도 다음의 내용은 제2차 미·소공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내용들에 대해 소련 측이 요구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인 듯하다. 이를 통해 미·소공위 및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소련 측의 구상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 ▲ ① (미·소공동) 협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조선 내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는 공동성명 제5호에 아무런 조건이나 주석 없이 서명해야 한다.
- ② 간부들이 아직도 모스크바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로

부터는 서명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

- ③ 하지의 제안 2에 대해 소련대표단은 의심을 야기 시키는 대표자들과 협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이 현재 다음의 3항에 관해 적대적인지를 실제로 조사해 보아야 한다.

- ①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
- ② 연합국 중 한 나라에 대해
- ③ 공동위원회에 대해

- 과거에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 적대행위를 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활동을 멈춘 사람은 협의 참가가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적대행위를 한다면 그들을 협의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④ 공동성명 제5호에 서명한 후 위원회 활동, 모스크바 결정, 연합국 중의 한 나라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행위를 선동하거나 지지한 인물은 신속히 제명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註 이상은 미·소공위의 협의대상 정당 사회단체 선정에 있어 소련 측이 요구해야 될 입장들이다. 소련 측은 이 같은 기준을 통해 특히 반탁운동을 계속하고자 했던 남한 내 우파세력들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했다.)

▲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임무는 1947년 7·8월까지 임시정부 구성에 대한 문제들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문제들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남북 물자교역 문제는 통일적인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양쪽 사령관이 협의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미·소공위 협의에 있어) 남북 대표자의 숫자는 반반이어야 한다.

남쪽 대표 중 절반은 좌익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면적과 인구에 따른 차이는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 숫자가 공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북한은 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북한 내의 산업이 더 발전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 경제에서 북한의 비중이 더 높다.

(註: 당시 남한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고 북한의 인구는 약 1천만 명이였다.

따라서 협의대상 대표의 선정에 있어 인구 비율을 고려한다면 소련측이 불리했다. 바로 이 점을 감안하여 소련 측은 남북한 대표 비율이 1 대 1이 될 수 있도록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각료회의 형태의 (임시)정부

- (각료) 자리의 할당은 남북이 동수일 것
- (임시) 정부는 비밀선거의 형태로 보통·직접·평등선거의 바탕에서 자유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인민회의(국회)가 선출되기 전까지 전조선 영토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행사한다.
- 집행권은 자치적으로 선출된 기관인 인민위원회 체제를 통해 (임시) 정부에 의해 즉시 행사된다. 인민회의의 선출이 있을 때까지 상(장관)과 부상(차관)들의 교체는 사령관들의 승인을 얻어 시행된다.
- 민주적인 선거법에 기반하여 인민회의(국회)의 선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인민회의(국회)는 양측 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정부(각료회의)를 조직한다.
- 우리는 조선이 단원제 국회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를 지닌 자주적인 민주공화국이어야 함을 고수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고 국회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는 독자적인 행정권이 없는 입헌적 국가 수뇌의 권한과 임무로 제한되어야 한다.

▲ 좌익측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

- ① 수상 ② 부수상 ③ 내무상 ④ 국방상 ⑤ 공업상 ⑥ 외무상
⑦ 대내외 상업상 ⑧ 노동상 ⑨ 교육 선전상 ⑩ 체신상

▲ 우익측

- ① 부수상 ② 농업상 ③ 교통상 ④ 재무상 ⑤ 보건상 ⑥ 법무상

▲ 내 생각에는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조선임시인민회의 소집을 제안해야 될 것 같다. 전조선임시인민회의는 집행협의기관의 성격을 띤 것으로 (그 구성에서)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반반씩이어야 한다. 미·소공위와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는 임시인민회의를 헌법초안 작성, 선거법 및 기타 법률 제정에 참여시킨다.

▲ 우리 대표단은 조선의 임시정부 정강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 한반도 전체에서 제반 민주적 권력기관의 구성은 성·종교의 구분 없는

비밀 투표를 통해 보통 직접선거의 원칙에 근거한 자유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만일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이 정부 구성에 관한 문제를 조선인 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 맡기고 외국군대는 한국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
 - 국민투표는 급한 것이 아니며 이 투표가 시행될 새로운 상황, 조건, 그리고 그 가능성과 실행에 대해 심각하게 연구해 보아야 한다.
-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해 설

左派각료 10명 요구 주도권 노려 UN상정 반대 조선인 自治 주장

소련 측은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미·소공위 재개에 임했던가. 5월 22일자 레베데프 비망록은 그 구상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미 모스크바에서는 5월 19일자로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관련된 훈령을 평양에 하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레베데프의 이 메모는 모스크바로부터의 훈령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앞서 1946년 제1차 미·소공위 시 소련 측이 준비했던 임시정부 수립 구상은 다른 지면에 밝혀진 바 있는데(「역사비평」 1994년 봄호) 제2차 미·소공위 시 소련 측의 조선임시정부 수립 구상과 관련하여 이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임시정부는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수상 1명, 부수상 2명, 그리고 내무상을 비롯하여 11명의 각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흥미롭게도 제1차 미·소공위 시 수상으로 검토되었던 인물은 여운형(呂運亨)이었고 부수상에는 김규식(金奎植)과 박헌영(朴憲永)이 검토되고 있었으며 김일성(金日成)은 국방상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제2차 미·소공위 시 소련 측의 조선임시정부 수립 구상은 기본적으로 제1차 미·소공위 시와 다를 바 없었다. 이에 더하여 임시정부의 형태를 각료회의

형태로 하고자 했다는 점, 임시인민회의의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등이 좀 더 진전된 내용이라 할 수 있었다.

한편 각료직의 배분에 있어 수상과 1명의 부수상 그리고 국방상, 외무상, 내무상 등 주요 각료직을 포함하여 전체 16개 각료직 중 그 3분의2에 해당하는 10개 각료직을 남북한 좌파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다시 말하면 소련 측은 남북한 좌파들이 주요 각료직을 포함 대부분의 각료직을 차지함으로써 그들이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도 때문에 소련측은 미·소공위 협의대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비율에 있어 남북한 1 대 1 그리고 남한 대표 중 50% 좌파 지분, 즉 남북한 전체로 볼 때 4분에 3에 해당하는 좌파 지분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래야만 그 지분에 따른 각료직의 배분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5월 22일자 비망록의 내용은 미·소공위에서 조선임시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도 언급하고 있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즉 외군이 철수하는 가운데 정부수립의 문제를 조선인 당사자에게 맡기도록 하자는 언급이 그것이다.

이 같은 구상은 몇 달 후 제2차 미·소공위의 실패가 명백하게 되면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고자 했던 미국 측 제안에 대응하여 공표된 것으로서 소련 측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미·소공위 실패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요컨대 제2차 미·소공위 재개에 즈음하여 소련 측이 한국 문제에 대해 취했던 입장은 좌파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임시정부의 수립을 추진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선인 스스로가 정부수립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진설명

왼쪽 사진 : 덕수궁의 2차 美蘇공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덕수궁. 태극기와 함께 美·蘇양국기가 나부끼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이 사열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 美·蘇 사령관 환담

제2차 미·소공위 회의 중 환담을 나누고 있는 美蘇 대표들.

오른쪽 끝이 蘇 스티코프 上將 그 옆의 美 하지 중장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12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5)

2차 美·蘇共委

外務部 없는 臨政 구성에 반대

2分科 의장 맡아 憲政·정강 협의

만찬 참석한 金九 늙은 산적 같아

■ (1947년) 5월 23일

(註: 5월 24일의 오기인 듯함. 파티는 5월 24일 개최되었다.)

▲ 저녁에 브라운 장군(註: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 댁에서)
각테일파티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손님을 맞았다. 그는 우리를 한쪽에
세우고 모든 손님들을 소개했다. 손님 중에서는 조선 정치인도 있었다.

이승만 : 외모에 교양이 있어 보였고 그의 아내는 미국인(註: 실제로는 오스트리아
인이었으나 그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다)이었다.

김구 : 한국 정통의상을 입은 사람 중의 하나로 생존하는 가장 늙은 산적
같았다. (註: 김구에 대한 레베데프의 인상이 흥미롭다)

▲ 한국인들은 아내 동반이었다. 우리도 역시 한국인들(註: 즉 북한의 한국인들)
에게 아내를 동반하라고 통보할 필요가 있다. 여운형(呂運亨), 허헌
(許憲), 안재홍(安在鴻) 그리고 일련의 다른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리셉션은 아주 크게 개최되었다. 다수의 영어 및 러시아어 통역원들이
있었고 특히 러시아어 통역원들이 많았다.

러시아 포도주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인들에게 포도주 몇 병을 선물해야
했다. 모든 공동위원회 위원들은 하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리셉션에서 1시 반이 넘어서 돌아왔다. 계속 서 있어서 대단히 피곤했다.

■ (1947년) 5월 24일

협약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부에 참여하고 싶은 정당은 정부 구성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강령에 서명해야 한다.

1. 조선은 자주적인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2. 조선 전역에 걸쳐서 지방권력은 인민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에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
3.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는 일본 정부, 일본 법인,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 지주에게 속한 토지를 몰수하고 그 몰수된 토지를 토지 없는 사람이나 소규모 자작농에게 무상으로 배분한다.
4. 정부는 과거 일본국과 일본인 또는 조선인 반역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 광업, 철도 및 수상운송, 통신기관, 상업 및 문화시설을 국유화 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인민들에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민주적인 정당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그 외 여타의 민주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6. 정부는 1일 8시간 노동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그 외 여타의 사회문화 정책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
7. 새로이 수립되는 정부에 적극적인 친일분자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註: 이상의 요구는 북한에서 시행된 제반 민주개혁과 비슷한 것으로서 통일 임시정부가 수립될 시 이 임시정부가 이상과 같은 개혁을 남한에서도 시행하여야함을 의미한다.)

■ (1947년) 5월 26일

▲ 제2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내가 그 의장을 맡았다.

웨커링(註: 제2분과위원회 미국 측 의장은 웨커링 장군이였다)은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관한 문건과 정강에 관한 문건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정강 속에서 설명된 문제들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그러한 제안에서 그가 정강 일반에 대해 다루지 않고자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웨커링에게 이 정강에 임시정부 활동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기술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임시헌장은 임시정부의 구성과 그 과제, 중앙 및 지방권력에 대해 기술하는 문건이 될 것이다.

(註: 소련 측은 정강을 통해 북한에서 시행된 제반 개혁과 비슷한 임시정부가 수행토록 요구할 생각이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같은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 웨커링은 임시정부가 대외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공동위원회나 정부를 감독하는 다른 기관이 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만약 임시정부가 외무부를 갖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독립정부인가. 그것은 자치정부라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자치정부 수립을 위해 일하고 있단 말인가.
- ▲ 웨커링은 임시정부의 임시현장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다음 회의에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 (1947년) 5월 27일

- ▲ 5시에 미군 7사단 31연대의 열병식에 참석했다.
부르스 소장(註: 미 제7사단장)이 자신의 숙소에서 각테일파티를 개최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에게는 키가 크고 명랑하고 상냥한 은발의 아내와 결혼 적령기의 딸이 있었다.
미국인들은 장교숙소를 건설했고 거기에서 생활했지만 우리(註: 소련측) 장교들은 한국인들과 기거했다. 각테일파티에는 그와 2명의 장군이 함께 참석했다. 모두들 부부동반이었다. 미국인들과 담소했다.
미국에서 왔을 때부터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따분하다고들 했다.
모두들 한국과 한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한국인 가정부들이 일을 잘못한다고 경멸적으로 말했다.

■ (1947년) 5월 29일

- ▲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의 조직에 관한 미국 측 안을 받았다.
대충 살펴보니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다만 「예스」「노」로만 대답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 같은 제안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웨커링 장군에게 이야기할 생각이라는 나의 견해를 켄넬리 포미치(註: 스티코프)에게 말했다.
스티코프는 나의 제안을 승인했다.
- ▲ 11시 위원회에서 나는 제안서를 보았다고 브라운 장군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의 제안은 질의서에 대한 한국인들의 주도권을 축소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작년에 승인된 이전 질의서류 변경 없이 그대로 놔두자고 제안했다. 웨커링이 얼떨결에 찬성했다.
 단일안이 마련되었고 질의서가 채택되었다.
 (註: 이 질의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협의 시 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날 채택된 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① 인민의 권리
- ② 수립될 임시정부의 일반 상태 및 성격
- ③ 행정 및 입법기능을 수립할 중앙정부의 기초
- ④ 지방기구
- ⑤ 사법기구
- ⑥ 임시현장의 변경 및 수정방법 등.

이 내용은 이후 본회의의 논의를 거쳐 6월 11일에 발표된 미·소공위 제11호 공동성명의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구성 및 원칙」에 관한 자문서로 발표되었다.

해 설

공동성명 제11호 합의과정·내용

共委지지 정당·단체만 協議대상 한정

臨政 조직·政綱관련 諮問書 제출 요구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된 이후 미·소공위는 미국 측의 브라운 소장과 소련 측의 스티코프 상장을 대표로 하는 본회의와 그 산하에 각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의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1분과위원회, 임시정부의 형태 및 구성과 임시현장, 그리고 정강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2분과위원회, 임시정부의 인사 임명 및 임시정부의 권한을 이관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3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분과위원회 대표는 미국 측에서는 번스 박사 소련 측에서는 툰킨이 맡았고

제2분과위원회 대표는 미국 측에서는 웨커링, 소련 측에서는 레베데프가 맡았으며 제3분과위원회 대표는 미국 측에서는 조이니, 소련 측에서는 발라사노프가 맡았다. 따라서 레베데프 비망록에 나오는 미·소공위 내용은 그 상당부분이 제2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자 그 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제1차 미·소공위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의문제였다.

우선 소련 측은 30개 단체를 선정 이들과의 구두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에 반대하여 광범위한 구두협의를 주장했고 그 협의절차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가 드러나자 결국 소련 측이 양보, 미국 측의 광범위한 구두협의를 동의했다. 이로써 미·소 양대표단은 6월 7일 공동결의문 제12호 작성에 합의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6월 11일자 미·소공위 공동성명 제11호로 발표되었다. 공동성명 제11호는 우선 미·소공위 협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모스크바 결정의 목적을 지지하고 조선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공위 결의를 고수하고 신탁통치(후견)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 날인하여 그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공동성명 제11호는 청원서를 제출한 정당 사회단체들이 임시정부의 조직 및 그 원칙에 관한 자문서 및 임시정부 정강에 대한 자문서 등 2개의 자문서를 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소공위 구두협의를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 임시정부에 관한 두 개의 답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무튼 그 내용상 모호한 점이 있었지만 미·소의 양대표단은 이렇듯 공동성명 11호에 규정된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이때까지의 미·소공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들의 청원서와 답신서를 받아본 후 이들과 구두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6월 11일 이후 미·소공위는 남북한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협의 신청을 접수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진설명

왼쪽 사진 : 2차 美·蘇공위 첫날 회의

2차 미·소공위 첫날 회의에서 통역자가 美 하지 중장의 연설문을 읽는 동안 레베데프 정치사령관(오른쪽 두 번째), 발라사노프 정치고문(오른쪽 첫 번째)이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 덕수궁의 美·蘇 수석대표

스리코프가 美 수석대표인 브라운 少將과 덕수궁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14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6)

공동성명 11호 北측 반응

열성자大會 개최 대환영

김일성 臨政관련 전반적 입장 연설

平壤합동회의 대비 주요인사 교육

■ (1947년) 날짜 미상

(註: 다음의 내용은 6월 초 이후에서 6월 12일 사이의 어느 날인 듯함)

▲ 평양에 위원회의 작업 진행에 관해서 김일성과 우리측에게 간단히 정보를 제공할 것

a 미국인들이 작업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곤 했다.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었다.

b 그들은 정부에 좌익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인가?

3개의 정파·좌파·우파·중도파 - 김규식 여운형,

미국인들은 우파와 중도파 인사들과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좌파는 자신들의 지분으로 50%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c (남조선)과도정부에 대해

그들은 슬그머니 진행시켜버렸으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 하고 있다.

신문들에도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註: 아마도 이상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던 미·소공위의 상황을 평양에 알려주기 위해 메모한 내용인 듯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련 측은 미국 측이 좌파인사들을 경원시하고 우파 및 중도파 인사들과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한편 미군정은 1947년 5월 17일에 발표된 법령 141호를 통하여 미군정의 조선인 기구의 명칭을 남조선과도정부라 칭하기로 했다.)

만약 미국인들이 남조선과도정부와 인민위원회간의 회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김(註: 김일성인 듯함)은 이 회담에 좌익들의 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박헌영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註: 이상은 남조선과도정부와 북조선인민위원회 사이의 직접 회담을 미국 측이 제안했을 때를 예상한 것이다.)

■ (1947년) 6월 12일

(註: 레베데프는 11호 성명에 대한 준비와 30일 평양에서 개최될 합동회의 준비를 위해 11일경 평양으로 간 듯하다. 다음은 평양에서 준비 상황에 관한 내용들이다.)

▲ 스티코프 동지에 대한 보고(註: 당시 스티코프는 서울에 있었다.)

1. (註: 11일인 듯) 20시 50분에 순조롭게 도착하였다.

2. (註: 11일인 듯) 저녁에 김일성과 대화를 가졌다.

▲ 오늘 아침에는 코르트코프(註: 치스차코프에 뒤이어 부임한 북한주둔 소련군사령관), 그로모프, 그리고 이그나치예프에게 통보하였다.

13시에 두 번째로 김일성과 3시간에 걸친 비밀면담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19시에 다른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37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 (1947년) 6월 14일

▲ 회의가 이루어졌다.

(註: 이날 개최되었던 「북조선민전 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열성자대회」를 말함.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북한 측의 전반적 입장을 밝혔다)
김일성이 1시간 이상 연설했다.

- 농민에 대한 토론 - 강진건
- 17개의 직업동맹으로부터 연설이 있었는데 모두 잘했다. 천도교 역시 잘했다.
- 입법부가 구성될 때까지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 소비에트 대표단의 완벽한 승리는 어떻게 평가 받고 있는가.
- 모두가 흥미를 갖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조선에 뒤떨어지지 말 것.

▲ 보고

1. 어제 낮에 김일성의 연설문을 검열했음.
2. 저녁에 위원회 회의장소를 둘러보았다.
3. 인민회의 가구는 다 준비됨
4. 회의 장소(과거 법정)를 수리하고 나면 6월 25일에는 준비가 완료됨.
5. 저녁에 영화극장을 둘러보았다.(註: 평양 합동회의 준비 상황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서울에 있는 스티코프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인 듯하다.)

▲ 지금 우리의 임무는 당과 북한의 사회단체들을 공동위원회 협의에 대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註: 즉 소련)에 이익이 되는 인사들을 (임시)정부로 보낼 것.

- 자문서에 대한 답신안을 준비시킬 것.
-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 김일성이 자세히 2번 교시했다.
- 김일성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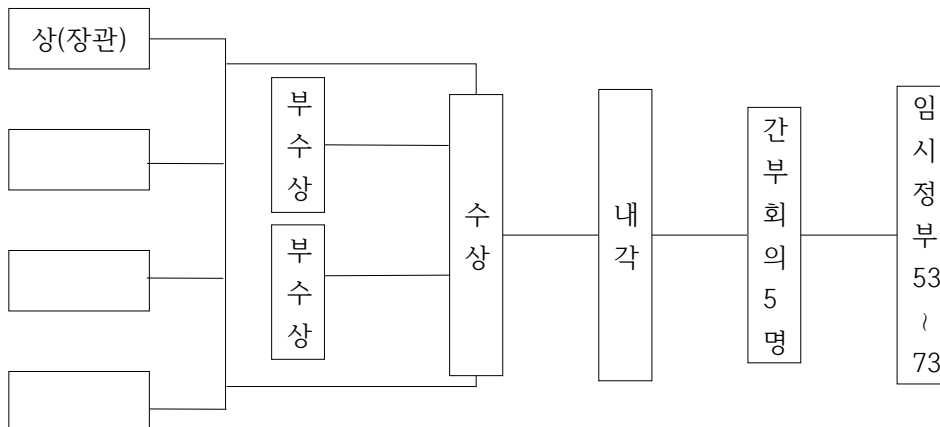
「임시정부 수립에 관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註: 열성자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제목임)로 며칠을 보냈다.

■ (1947년) 6월 15일

1. 중도파 인사들에 어떤 자리를 맡길 것인가.
2. 중도파 인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 - 우리의 임무
3. 산업노조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시킬 필요가 있다.
4. 좌익은 농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다.
5. 기독교민주연맹의 김창준(金昌俊)의 대중화(註: 남한 기독교도 중 김창준 목사가 이끌었던 이 단체는 좌파의 민전에 가입하고 있었다.)
6. 여운형(呂運亨)과 무엇을 할 것인가(그에 대해서 생각할 것)
(註: 이상의 내용은 남한에서 좌파이외에 소련 측에 우호적인 인사나 중도파 세력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표



(註: 이상은 소련측이 구상하고 있던 임시정부 형태에 대한 메모인 듯하다.
즉 53~73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산하에
5인 간부회를 비롯하여 1명의 수상 및 부수상 그리고 각 부의 상(장관)들로
구성되는 내각을 두는 그러한 임시정부 형태라 할 수 있다.)

해 설

共同성명 11호 南·北 준비상황
南 반탁운동 右翼세력 당황·분열

北 미·소공위에 청원서 제출 등 활기

6월 11일 미·소공위 공동성명 제11호가 발표되자 남북한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그 대응을 둘러싸고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한의 경우 중도파 및 좌익진영은 이를 크게 환영했고 반면 반탁운동을 지속해왔던 우익세력은 당혹해 했다.

그런 가운데 우익의 반탁진영은 미·소공위 협의에 참가하지 않고 계속 반탁운동을 지속하고자 했던 이승만 및 김구세력과, 신탁통치에 반대는 하되 미·소공위 협의에는 참가해야 한다고 그 태도를 바꾸었던 한민당 사이에 분열이 발생했다.

반면 모스크바 결정을 시종일관 지지해왔던 북한의 정치세력들은 공동성명 제11호에 크게 고무되었다. 이와 관련 6월 12일 이후 비망록의 내용은 공동성명 제11호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 대책을 마련하고 청원서와 답신서 제출 및 30일 개최기로 예정되어 있던 평양 합동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북한에서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준비에 있어 비망록은 11일쯤 레베데프가 평양으로 되돌아가 김일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그 준비에 임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북로당은 6월 13일 정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정부 수립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4일에는 이 비망록 내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북조선민전 산하 정당 사회단체들의 열성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임시정부 수립에 관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를 했고 이를 통하여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북한 측의 전반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일성은 조선임시정부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태가 되어야하며 지방정권기관은 인민위원회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 임시정부는 토지개혁, 중요 산업의 국유화, 노동법령의 시행 등 북한에서 시행된 제반 민주개혁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정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뒤이어 북한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6월 18일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30일에는 미·소공위와 북한지역 정당사회단체들 간의 평양 합동회의가 개최

되었고 그 직후 평양에서는 32만 명의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미·소공위 경축 평양시민대회 또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대부분의 연설자들은 장래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김일성을 내세웠다. 반면 시위 군중들은 이승만(李承晩), 김구(金九), 김성수(金性洙) 등의 「민족 반역자」들을 임시정부에서 제외시킬 것을 외쳤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민족반역자」라 불렸던 남한의 우익진영을 배제한 채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처럼 미·소공위 공동성명 제11호 발표 이후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분위기는 특히 좌파들 중심으로 상당히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이때가 그 정점이었고 이후 7월 초부터 미·소공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들자 내리막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 사진설명

왼쪽 사진 : 담소 중인 하지 - 스티코프

美·蘇공위 첫날 회의에서 美 하지 장군(왼쪽)과 스티코프
蘇 대표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사진 : 南측인사 만남 브라운 少將

미국측 수석대표인 브라운 少將이 2차 미·소공위 기간 중
신원이 밝혀 지지 않은 남한측 인사를 만나고 있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17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7)

反託투쟁조직

共委협의 대상서 제외해야

信託철회 시위주도 등 활동만 방해

美 강경반대로 會談 교착상태 빠져

■ (1947년) 7월 3일

▲ 공동위원회 회의

- 브라운

두 개의 정치적 집단 즉 좌파와 우파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우파 대 좌파의 비율은 3 대 2이다.

(註: 미국 측은 소련 측과는 달리 우파가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에트 대표단은 단지 좌파만 남기기 위해 모든 우파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 같다.

- 미국의 입장

한국이 바라는 민주주의 형태를 가져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정당 사회 단체들과 광범위한 협의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註: 이상은 7월 3일 미·소공위에서 행한 미국 측 대표 브라운의 말과 미국대표단의 말을 메모한 것이다.)

- 브라운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부터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모스크바 결정과 연합국의 그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라도 반대 하는 단체가 있으면 협의할 수 없다.

■ (1947년) 7월 8일

▲ 미국대표단의 입장은 협의대상에 관해 예전의 입장 그대로이다.

즉 미국의 제안은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조직에 한해 그들과 구두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 4백25개 정당과 단체들이 등록되었다.

미국대표단은 전적으로 이전에 규정된 기준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보다 많은 선언서가 제출되도록 조장했다.

(註: 4백25개는 남한만의 숫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한 4백25개

단체, 북한 38개 단체, 따라서 모두 4백63개 단체가 미·소공위와의
구두협의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 (1947년) 7월 9일

▲ 위원회의 임무

- 정부를 수립하는 것. 우리는 1946년 5월 이와 동일한 목적을 세웠다.
진척된 것이 없다. 우리에게 진척이 없다.
(註: 구두협의 대상 명부작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의하기 시작한 이래
미·소공위는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구두)협이는 7월 7일 시작되었어야 했다. 장황한 말이라도 새로운 것은
적다. 미국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

▲ 조선인민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능한 한 일찍 (구두)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협의활동을 늦출 수 없다.

전세계적인 공론을 억제할 수 없다.

만약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의 태도를 신문 잡지에 밝혀야 한다.

▲ 브라운은 다음과 같은 공동 결정을 제안했다.

1.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만약 제1위원회
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
2. 이러한 단체들에는 바로 통지를 한다.
3. 제1분과위원회는 날조된 거짓 보고를 심사한다.

■ (1947년) 7월 10일

△ 브라운

미국대표단은 모든 단체와 협의를 시작하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
중에는 현재 반탁투쟁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허위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당이나 단체는 명부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반탁투쟁위원회 회원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들이 선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위원회와 협의하는데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 미국대표단이 위촉한 사전트(註: 미국대표단의 일원)가 반탁위원회 활동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했고 브라운 장군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에 통고 업무를 맡고 있다.(왜 사전트는 우리 대표와 함께 일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수행하는가?)

이 모두가 술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두가 마치 김구(金九)의 죄인 것 같고 나머지 정당과 단체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상당히 어리석다.

이런 속임수를 쓰다니.

(註: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적극적 반대」 행위 여부로 논란이 되었던 6월 23일 반탁시위의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대표단은 이를 김구의 개인적 행위라 주장함으로써 미·소공위에 협의를 신청한 반탁투쟁위원회 소속 단체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 이 위원회(註: 반탁투쟁위원회)는 1946년 1월 조직되었고 1946년 6월 재조직 되었으며 그 후 사라졌다가 1947년 5월에 다시 등장했다.

35개의 정당이 반탁투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승만(李承晩)과 김구가 그 정당들을 지도한다.

많은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6월 19일 자신의 활동을 종결시켰다. 위원회는 죽은 조직이 되었다.

위원회에 가입했던 정당들은 (이제) 위원회를 반대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이 정당들은 공동위원회 지지를 결정했다.

한민당이 이 정당들을 이끌고 있다.

(註: 반탁투쟁위원회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미국 측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반탁위원회를 조사 발표한 내용을 레베데프가 메모한 것이다.)

▲ 미국대표단은 반탁투쟁위원회를 꼼꼼하게 조사했다.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를 표명한 사실을 조사하고 이들의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으며 이 단체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협의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조사했다.

▲ 휴식 후 스티코프는 반탁투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들을 분리해 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시키자고 했다.

(註: 소련대표단은 7월 10일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정당과 사회

단체들을 구두협의 명부에 기입할 것을 제안하며 그 목록을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목록에는 반탁위원회 소속 24 단체가 제외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대표단은 이들 단체가 반탁투쟁위원회를 탈퇴하고 향후 모스크바 결정과 미·소공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공표할 경우에만 이들의 협의 참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

- ▲ 브라운은 스티코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 제5호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이미 그 자체로서 그 단체가 (미·소 공위에) 협조 의사를 지녔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 ▲ 브라운은 북한 내의 정당들을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거기에는 오직 단 하나의 정치노선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왜 단 하나만인가? 38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있는데?)

해 설

교착상태 빠진 美·蘇공위

南 4백25·北 38단체 共委에 협의 신청

反託투쟁조직 포함여부 놓고 의견 갈려

1947년 6월 11일 공동성명 제11호가 발표됨으로써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위의 사업은 초기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척되었고 공동성명 제11호에 따라 남한 4백25단체 북한 38단체 등 모두 4백63개에 달하는 남북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미·소공위 협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협의대상 명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7월 초부터 미·소공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협의대상 정당 사회단체의 명부작성에 대한 소련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회」단체로 규정되지 않는 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중앙에 조직이 없는 지방 차원의 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모스크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단체 특히 반탁투쟁위원회에 가입한 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같은 입장에 바탕하여 소련 측은 미·소가 서로 합의한 단체만을 협의대상 명부에 올릴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소련측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소련측이 제기한 비사회단체 및 지방단체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은 그 회원이 1천명 미만인 단체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반탁투쟁위원회 가입 단체를 제외하자는 소련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측은 완강한 반대 태도를 취했다.

따라서 반탁투쟁위원회 가입 단체들을 협의대상으로 받아드릴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미·소간 갈등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측의 태도에 대해 소련 측은 6월 23일에 전개된 반탁시위가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행위를 구성한다는 논거를 제시, 이 시위를 주도한 반탁투쟁위원회 및 그 가입 단체는 마땅히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제가 된 6월 23일 반탁시위는 우익청년단체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徐潤福) 선수의 귀국환영회를 이용하여 전개한 시위로서 그 과정에서 소련대표가 탄 차량에 돌을 던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 측의 지적에 대해 미국 측은 반탁투쟁위원회는 이미 그 활동을 중지했으며 따라서 이전에 반탁투쟁위원회에 가입했던 단체들은 이제 그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미국 측은 그 회원이 1만 명 이상인 단체들로부터 구두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소련 측은 과거 반탁투쟁위원회에 가입했던 단체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신들이 그 위원회에서 탈퇴했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이들을 협의대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미·소간의 입장은 약간 좁혀지는 듯했다. 그렇지만 이후 양측의 입장은 더 이상 접근되지 못했다.

결국 미·소공위는 반탁투쟁위원회 가입 단체를 협의대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7월 초 레베데프 비망록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미·소공위 교착상태의 최대현안이 되었던 반탁투쟁위원회의 배제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미·소간의 입씨름이었다.

□ 사진 설명

왼쪽사진 : 담소중인 美·蘇사령관

레이블을 사이에 두고 美하지 장군(왼쪽)과 蘇레베데프 少將(중간),
스티코프 上將(오른쪽)이 사이좋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사진 : 브라운 - 스티코프 환담

美측 대표 브라운 少將(왼쪽)이 통역관인 프로스토프를 통해 스티코프
蘇 수석대표(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19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8)

美·蘇공위 협의단체

우익이 左派보다 2배 많아

反託조직 배제해야 會談 주도

美와 3주째 입씨름 결론 못내

■ (1947년) 7월 16일

▲ 스티코프

7월 10일(소련대표단이) 제출한 정당과 단체의 명부를 기초로 협의대상 명부 작성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브라운

반탁투쟁위원회에 참가한 단체에 대해 언급한 네 번째 항목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수정한다면 소련대표단의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註: 이로써 소련측은 반탁투쟁위원회 가입단체 문제만을 제외한다면 일단 여타 문제들은 거의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러한 생각에서 21일 발표된 스티코프의 성명은 미국 측의 무성의를 지적하며 구두협의대상 명부작성에 있어 다만 반탁투쟁위원회에 가입한 단체 문제만이 미결로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 (1947년) 7월 22일

7월 18일 공동위원회 회의 전 나는 서울 시민대표단을 접견했다.

20여 명이 있었고 그중 8명은 여자였다.

그들은 반동주의자, 친일파를 협의에서 제외할 것을 소련대표단에 부탁했다. (그들은) 미국대표단을 접견하려 했으나 브라운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고 피셔 파시오가 그들과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 7월 24일

3주간 우리의 토론은 아무런 결실 없이 계속되고 있다.

▲ 공동위원회의

- 스티코프 : 미국대표단은 소련대표단 성명서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 있는가?
- 브라운 : 소련대표단은 반탁투쟁위원회가 선동과 교사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대표단에게 설득할 수 있는 증거와 사실들을 제출하지 않는다.
- 브라운 : 6월 23일 시위는 김구가 선동했다. 김구는 반탁투쟁위원회에 참가하는 정당들의 허락없이 데모를 조직했다.
- 스티코프 : 왜 그 정당들은 그 위원회에서 탈퇴하지 않는가?
- 브라운 :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영미법에 의하면 그렇다.
- 브라운 : 그들은 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벌써 김구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그 정당들은 벌써 김구를 떠났다.

▲ 소련대표단의 제안목록에는 1백19개 정당 단체들이 있다.

그들 중 우익 74개, 좌익 34개, 중도 11단체

(註: 소련 측은 7월 10일 제시한 목록에서 남한 측 1백19개 정당 단체들의 성향을 위와 같이 분류하고 있었다.)

▲ 브라운 :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소련대표단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그 성향이 분류되고 있다.)

- 남한에서 우익 42개, 중도우익 17개, 중도 10개, 중도좌익 5개,
민전 38개 (우익·중도우익·중도 : 69개, 중도좌익·민전 43개)
모두 1백12개
- 우익 : 중도우익의 회원 수 : 1천3백만 명
- 좌익 : 81개(註: 남한 측 좌익 43개 단체와 북한 측 38개 단체를 합한
수로서 남북한 전체의 좌익단체 수입)
- 69개(註: 우익·중도우익·중도 단체의 전체 회원 수입) - 1천1백50만 명.
(註: 이상은 소련 측이 7월 10일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정당 사회단체들의
성향을 미국 측이 재분류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측은 남북한 81개의 좌파진영이 69개 단체 밖에 되지 않는 우익진영
(중도진영 포함)보다 많다는 사실을 우려했고 따라서 소련 측 목록에
빠져있는 반탁 위원회 소속 24개 우익단체의 포함을 강력히 주장
했던 것이다.)
- (註: 또한 7월 10일 소련 측이 제안한 목록에 대한 소련 측 분류와 미국
측 분류를 비교해 보면 소련 측은 그 목록에 가능하면 우익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 했던 반면, 미국 측은 좌익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1947년) 7월 25일

▲ 공동위원회 회의

- 브라운 : 미국대표단은 (소련대표단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제안은 24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 (1947년) 7월 29일

▲ 공동위원회 회의

- 브라운 : 우리의 제안은 소련대표단은 북한 측의 정당들과 미국대표단은
남한 측의 정당들과 협의를 행하자는 것이다.
- 스티코프 : 그 말은 진실인가 농담인가
- 브라운 : 진심이다.

(註: 이날 미국대표단은 미·소가 남북한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구두협의를
진행시키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 (1947년) 7월 31일

- ▲ 브라운 : 임협(註: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회원의 명의로 된 서한을 읽는다.
(註: 임협은 반탁진영 중에서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미·소공위 협의에
참여하기로 한 정당 단체들의 협의체였다.
이들 중 15개 단체는 미·소공위에서 자신들의 제외여부가 문제가
되자 반탁투쟁위원회는 미·소공위에 적극 반대하거나 그 반대를 교사
선동한 일이 없으며 자신들 역시 6월 23일 반탁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서한을 7월 28일자로 미·소공위에 보냈다. 브라운이 읽은
서한은 바로 이 서한이었다.)
- ▲ 이 서한을 읽은 후 미국대표단은 성명을 발표했다.
 - 1백27단체를 제외하자 그러면 2백98개 단체가 남는다.(註: 미국 측 제안임)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미국대표단의 제안은 그들이 7월 25일 했던
것과 동일하다.

해 설

협의대상단체 관련 美·蘇 입장

蘇 대부분 남측단체 제외 좌파우세 노력

美 의사표현자유 내세워 右翼 포함 주장

협의대상 단체 관련 美·蘇 입장

7월 초 이래 미·소공위의 양측 대표단을 협의대상 정당 사회단체 명부 작성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반탁투쟁위원회 가입단체의 제외 여부가
이러한 갈등에 있어 최대 현안이 되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 측과 소련 측은 이 협의대상 단체의 명부작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가. 다시 말해 겉으로 내세워진 명분 뒤에
숨겨진 미국과 소련의 실제적 이해는 무엇이었던가.

다음은 7월 10일 소련 측이 제시했던 협의대상 정당 사회단체 목록을 미국 측에서 재분류한 내용이다.

	단체 수	회 원	
		수 (단위 백만)	비율 (%)
우 익	44	12.483	24.1
중도 우익	18	4.029	7.8
중 도	9	2.882	5.5
중도 좌익	6	4.609	8.9
남한 좌익	41	14.450	27.9
북한 좌익	28	13.257	25.6
계	148	51.710	100

이상의 내용을 보면 소련대표단은 4백63개의 단체 중 3백17개 단체를 제외시키고 1백46개 단체만을 협의대상으로 받아드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련 측이 제외대상으로 삼았던, 제외하고자 했던 단체들은 그 대부분이 남한 측 단체들이었고 특히 반탁투쟁위원회에 가입한 24개 단체가 제외 대상에 올라 있었다. 즉 소련 측은 주로 남한 측 우익단체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좌파의 비율을 높이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다음의 표는 소련 측 목록에서 미·소공위 협의가 허용되었던 1백46개 단체의 성향과 그 회원 및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남 한	북 한	계
신청단체	425	38	463
회원 1만 이하 단체	283	10	293
반탁투쟁위원회 가입 단체	24		24
제외단체	□□□	□□	□□□
참여 허용 단체	118	28	146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한다면 우익진영은 중도 진영까지 포함한다할지라도 전체의 38%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좌익진영은 전체의 62%나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소련 측의 이 목록을 받아들인다면 좌파 헤게모니를 용인하는 셈이나 다름없었다.

미국 측이 그 회원 수가 약 1천5백만이라 주장되었던 반탁투쟁위원회 소속 24개 단체를 협의대상에 꼭 참여시키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들을 포함시키면 남북한 전체의 우익 대 좌익의 비율은 약 3 대 2 정도가 될 수 있었고 따라서 우익은 좌익의 우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7월 24일자 레베데프 비망록에 나오는 좌우익 단체 숫자는 위의 표에 나타난 숫자들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상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요컨대 임시정부 구성에 있어 자신의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소련 측은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적극적 반대」 행동을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보다 많은 우익단체들을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던 반면, 미국 측은 이에 맞서 「의사표현의 자유」 및 「광의의 협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다 많은 우익단체를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덧붙여 한 가지 웃지 못할 사실은 협의를 신청한 남북한 단체의 전체 회원 수가 실제 남북한 인구보다 2배나 되는 약 6천만 명이나 되었다는 점이다. 좌우 모두가 자신의 회원 수를 과장했지만 특히 우익 측의 과장이 심했다.

□ 사진 설명

스티코프 좌익 女性과 기념 촬영

美·蘇공위차 서울에 온 蘇스티코프 上將이 리셉션 후 좌익계열 여성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 뒤 레베데프 모습도 보인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21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9)

美·蘇공위 교착

남한내 左派검거 강력항의

4백 명 이상 체포·사무실 폐쇄당해

美 “내정간섭하지 마라”에 갈등 커져

■ (1947년) 8월 1일

▲ 공동위원회 회의

브라운은 양측 모두가 수락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과 공동 협의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대표단은 독자적으로 남한 우익 정당들과 협의를 할 것인데 그러한 협의는 공위협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註: 이날 브라운은 소련 측이 협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협의를 시행하고 소련 측이 의혹을 품고 있는 남한 측 단체들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단독으로 협의를 시행하되 그것은 공위협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 (1947년) 8월 7일

▲ 전보를 받았다. 8월 4~5일 사이 서울에서 평양에 도착했다.

오늘 서울로 출발하려 했으나 회의 날짜에 대한 지시도 없이 월요일까지 머물라는 스티코프의 전보를 받았다.

▲ 1947년 7월 25일자 미국대표단의 성명서와 1947년 7월 29일자 소련 대표단의 성명서 발췌 분을 공표해야 한다.

■ (1947년) 8월 12일

▲ 제53차 공동위원회

- 스티코프 : 소련대표단은 8월 5일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을 받아드리면 우리는 지금 처한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브라운 : 우리는 소련대표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측 대표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료하다.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한다.

1. 구두협의를 더 이상 취해지지 않을 것이며 협의를 위한 문만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2. 제2소위원회에 임시헌장과 정강을 마무리 지을 것을 위임할 것.

이 현장은 어떤 관직을 선거로 선출하고 어떤 관직을 임명할지를 명시할 것.

3. 국가입법기관의 총선거

선거는 실행되어야 하며 국제감시하에 행해져야 한다.
선거에 관해 세부계획을 준비케 할 것.

4. 제3분과위원회에 지시하여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에 임명할 직원 선거 안을 준비케 할 것. - 4개국 정부 승인 하에.

(註: 이상은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으로서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구두협의를 그들이 제출한 자문서 답신으로 대치하고 대신 선거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의사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이 제안에 대해 소련 측은 모스크바에 이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련 측은 모스크바의 지시가 늦어지는 가운데 남한에서 행해진 좌익들에 대한 일대 검거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제기된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소련측의 답변은 28일해야 이루어졌다.)

■ (1947년) 8월 20일

▲ 공동위원회 회의

한 주 내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서를 검토했다. 불안과 기대의 한 주였다.

- 미국무장관 마샬이 몰로토프 동지에게 보낸 편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신 계획, 중앙(모스크바)에서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음.

오늘 회의에서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좌익 박해와 테러에 대한 우리의 성명서가 낭독될 것이다.

(註: 미국무장관 마샬은 소외상 몰로토프에게 미·소공위가 지연되고 있는 사태에 즈음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미·소 공위의 진전된 성과를 공동으로 보고토록 하자는 서신을 보낸 바 있었다. 소련대표단은 이에 대한 본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 8월 12일에서 20일 사이 4백 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그들 중 7명은 공동위원회

협의를 위해 선발된 인물들이다. 민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조합, 농민연맹, 여성동맹 등을 비롯한 좌익단체의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좌익 성향의 신문도 발행되지 못하고 있다.

(註: 남한의 좌파진영은 1947년 8·15를 맞이하여 미·소공위를 촉진하기 위한 「8·15해방 2주년 기념 시민대회」를 대대적으로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미군정은 좌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 검속을 벌여 4천여 명을 체포하였다. 사전검속의 이유는 좌파진영이 「8·15 폭동계획」을 도모했다는 것이었다. 위의 비망록 내용은 바로 이 같은 미군정의 단속에 대한 소련 측의 항의에 관련된 것이다.)

▲ 남한에서의 테러에 대한 소련대표단의 성명서

- 브라운 : 소련대표단은 남한 내정에 간섭하려고 한다.

공동위원회 임무는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소련대표단은 8월 12일 마샬이 몰로토프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지시가 있는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

- 스티코프 : 우리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

■ (1947년) 8월 23일

▲ 지시를 받았다.

소연방 원수의 명의로 된 몰로토프의 외교문서와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시간이 약간 늦었다.

▲ 8월 12일 미국인들의 제안을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긴 시간을 끌게 된 것은 유감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침묵함으로써 여론의 눈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곤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그나치예프는 소련 공업전문대학으로 한국학생을 파견했다는 소식을 전보로 알려왔다. 총 1백20명의 학생을 보냈는데 여학생은 14명이다. 노동당원 87명, 민주청년동맹 30명, 무소속 3명,

1947년 8월 24일 오전 10시 출발

■ (1947년) 8월 25일

▲ 남한에서 수행되고 있는 좌익적 민주단체에 대한 체포에 대해

- 1947년 8월 20일부터 소련대표단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미국대표단의 성명서, 거기에 다음과 같이 씌어짐.

1. 남한에서 당신들은 손님이다.
2. 예의를 지켜야 한다.
3. 구두협의를 없다. 따라서 공동위원회 작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한국 활동가들이 초빙될 것이다.
5. 남로당과 민전은 남한 정부와 교류가 없다.
(그리고 미군사령부에 적의를 품고 있다.)
6. 남한을 교란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요원을 불러들였다.

▲ 공동보고서 작성에 대해 브라운은 8월 20일 마샬 장군에게 자신들의 보고서를 보냈다고 통고했다.

제1소위원회에 공동보고서 개요를 작성해 줄 것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해 설

共委교착 국내 政治세력 반응

右翼 남북총선거 주장 급속 勢확대

당황한 좌파 共委 조속한 재개촉구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어 미·소공위 제11호 성명이 발표되었던 6월경까지의 상황은 국내외 각 정치세력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반탁진영을 이루고 있었던 우익세력은 분열되었다.

즉 이승만(李承晩) 및 김구 세력은 미·소공위 협의 참가 자체를 반대했고 반면 한민당 그룹은 「참여하여 반대 한다」는 명분하에 미·소공위 협의에 일단 참여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반탁진영과는 반대로 미·소공위 재개를 고대했던 좌익진영은 제2차 미·소공위가 순조롭게 진척되자 이에 한껏 고무되었다.

한편 1946년 중반 시도된 좌우합작 이래 점차 독자적인 세력을 모색해 왔던 중도진영 역시 순조로운 미·소공위 전개에 고무되었다.

그러나 7월 초 이후 제2차 미·소공위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상황은 다시 한 번 바뀌었다.

우선 우익세력은 미소공위 교착에 즈음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켜 나갔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은 「총선거에 의한 자유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7월 초 「한국민족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시도는 남한 단선단정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행보라 할 수 있었다.

반면 김구의 국민의회는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승만과 김구 사이에는 향후 정부 수립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 차이가 점차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도진영 역시 미·소공위 교착에 일단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7월 19일에는 중도좌익을 이끌고 있던 여운형(呂運亨)이 백주의 대낮에 암살당함으로써 중도진영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김규식(金奎植) 지도하의 중도진영은 독자적인 제3세력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진전 이후 「민족자주연맹」 결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미·소공위의 교착은 미·소공위 성공을 통해 좌파 헤게모니 하의 임시정부 수립 노선을 촉구해 왔던 남북한의 좌익진영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하여 좌익진영은 미국과 우익진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한 맥락에서 7월 27일에는 「미·소공위 재개 경축 및 임시정부 수립 촉진 인민대회」를 개최하였고 1947년 8·15를 앞두고는 「해방 2주년 기념시민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자 했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좌익진영의 시도에 대해 미군정 및 경찰은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다수의 좌파들이 검거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태 진전은 미·소공위 진전에 또 하나의 장애를 형성시켰다.

즉 소련대표단은 미·소공위에서 좌익들에 대한 미군정의 이 같은 검거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고 이에 미대표단은 이를 내정간섭이라 비난하고 나섰던 것이다.

□ 사진 설명

왼쪽 사진 : 미·소공위 첫날 기념촬영

美蘇공위 첫날(47년 5월 21일) 덕수궁에서 기념촬영한 蘇수석대표
스티코프 上將(왼쪽), 美하지 中將(중간), 美대표 브라운 少將

오른쪽 사진 : 연설 중인 스티코프 上將

蘇수석대표 스티코프 장군이 연설하고 있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24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0)

共委결렬

남북統一정부 수립 물거품

미·소 韓半島 동시철수 제안

美軍政장관 러취 사망 애도

■ (1947년) 8월 26일

▲ 공동성명서 개요에 대해

미국대표단은 1946년 정기회의에 관한 것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단지 1947년부터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요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브라운은 각각의 대표가 자신들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그것을
정리 하자고 제안했다.

■ (1947년) 8월 29일

▲ 이그나치예프로부터 보고

그는 곡물 조달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8월 28일 모두 2만8천4백t의 곡물 (계획의 95%)이 준비되었다.

표 1.

곡물별	밀	15,768 t (99%)
	보리	7,963 t (82%)
	호밀	2,257 t (101%)
	기타 곡물	1,961 t (81%)

곡물조달 결과는 나쁘지 않으나 남쪽에서는 경찰력을 이용한 곡물조달로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 9월 3일

▲ 8월 26일 소련대표단의 제안에 대한 미국대표단의 답변

- 협의기관에 대한 소련대표단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없고 다만 신탁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제외하자는 제안이 있을 뿐이다.

미국대표단이 이 제안에 찬성 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두 배이다. 그러므로 동등한 기준에서 참가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미국 측은 찬성하지 못하겠다.

(註: 이상의 미국 측 답변은 8월 26일자 소련 측 제안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고 있다.)

■ (1947년) 9월 6일

▲ 로베트 원문에 대한 몰로토프의 답변을 받았다.

이것을 한국의 신문에 게재해도 되는지 허락을 요청했다.

(註: 미국무부장관 대리 로베트는 8월 26일 소련측의 한국문제를 미·소·영·중의 4대국 회의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했다.)

■ (1947년) 9월 8일

- ▲ 몰로토프에게서 신문 게재를 허락하는 편지를 받았다. 9월 9일 한국 신문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좀 늦었다.
한국 신문사에서는 우리들이 제공한 것이 아닌 라디오에서 발표된 몰로토프의 편지 내용을 가지고 신문에 냈다. 우리는 또 늦은 것이다.
- ▲ 나는 영어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의 앞으로의 제안
 -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남한의 민간정부에 통일 한국정부 창설을 위한 교섭을 위임하자는 것에 미국이 찬성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준비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 부정적인 상태가 가장 나쁘다.
북한에서는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서면계획만 잔뜩 만들고 있다.
가족이 그림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알□은 학교에 입학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기분이 어떠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알 길도 없다.
- ▲ 저녁에 스티코프가 코르트코프(註: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관)와 이그나치 예프(註: 소련민정사령부 정치국장)가 서명한 평양에서 보내는 서류 하나를 검토하라고 주었다.
서류에는 「소비에트 민정구성계획」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나는 극도로 놀라고 격분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서류에 서명해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 그들이 제안한 내용
 1. 북한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트 민정을 밑에서 위에까지 조직할 필요가 있다.
 2. 문제들을 더욱 확실하게 해결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 민정기관에 모든 기능을 부여할 것.
 3. 군(郡)부 지휘관직을 없앨 것.
 4. 사령부를 행정기관으로 개편한다.
 - 나는 이 서류를 읽고 매우 실망했고 그것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 자료임을 알았다. 내 의견을 체렌치 포미치(註: 스티코프)에게 보고했다. 그는 나의 주장에 동의했다.

- 나는 이 제안에 대한 비판을 코르트코프에게 암호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
- 암호전문에서 그의 무모한 계획에 대해 맹렬하게 비웃었다.
이 제안은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대신 모든 권력을 한국에서 빼앗아 소련 인정 기관의 손아귀에 집중시키자는 제안이다.
 - 남한에서는 실질적으로 권력이 미군정에게 있다.
북쪽에서 권력은 인민위원회에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행정의 역할은 조언자의 역할로 귀착되어야 한다.
 - 우리는 한 번도 한국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한 적도 없었고 이러한 임무가 우리 앞에 놓여졌던 적도 한 번도 없었다.
온갖 비난성 논평으로 이 어리석은 제안의 작성자를 맹렬하게 조소하였다.
(註: 소련측 북한 관련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듯하다)

▲ 발렌코가 덕수궁에서 소식을 보내왔다.

오늘 남한 미군정장관인 러취(Archer L. Lerch) 소장이 죽었다고 국기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는 뉴욕경찰국장이었다.

지난 번 웨더마이어가 왔을 때만해도 우리는 그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었다.

바로 그날 그는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바로 오늘 그가 죽었다.
사람의 목숨이란 얼마나 짧은 것인가.

러취는 노동혁명운동을 탄압했던 경찰지도부 인사 중의 한 사람이었다.

러취는 남한의 노동운동을 가차 없이 탄압했었다. 전형적인 미국 파시즘의 대표자이다.

소련대표단의 이름으로 애도의 표시를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 (1947년) 9월 13일

▲ 어제 말리크(註: 소외무성차관)로부터 문건 하나를 받았고 뒤이어 비류조프(註: 소련군극동사령관)에게서 문건 하나를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를 흥분시켰다.

내용은 북조선민전의 호소문이었다.

첫 번째 안은 우리가 비판하고 새로 쓸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주초에 있었던 일이다.

코르트코프는 그에게 새로운 안을 보내왔는데 첫 번째 안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것이었다.

나는 이에 대해 날카롭게 비난하였고 스티코프가 서명하였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어제 저녁 말리크의 암호전문은 더 이상 수정을 가하지 말고 이 호소문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이었다.

■ (1947년) 10월 6일

9월 16일에서 10월 4일까지 병으로 평양에 있었다. 이주일간이다.

9월 17일과 9월 26일의 마지막 회의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철수에 관한 소련 대표단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해 설

韓國문제 UN이관

美·蘇 「입법기관 창설」 끝내 합의 못 봐

모스크바 決定 통한 臨政구성 실패

7월 초부터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던 미·소공위는 8월에 들어서도 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러한 교착 속에서 미국 측은 구두협약 대신 전국적인 총선거를 통하여 입법기관을 수립하자는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소련 측은 구두협약의 생략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총선을 통한 입법기관 수립안에 대해서는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 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소집안을 들고 나왔다.

그렇지만 소련 측은 여전히 임시인민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모스크바결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다.

아무튼 이제 양측의 이 같은 새로운 제안으로 인하여 논란의 초점은 총선을 통한 입법기관 창설이나 아니면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임시인민회의 소집이냐의 문제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합의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총선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북한

보다 2배 정도 인구가 많은 남한 측이 유리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남한 측 반탁단체들을 제외한 채 임시인민회의가 소집된다면 그것 또한 좌파 측에 유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즈음 미국무장관 대리 로베트는 8월 26일 한국문제를 미·소·영·중 4대국 회의에 회부할 것을 소련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소련 측은 9월 4일 이를 거부했다.

소련의 거부에 대해 미국 측은 다시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회부코자했다.

그 결과 유엔총회는 한국문제를 유엔총회 의안에 올리자는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여 9월 23일 이를 가결시켰다.

이로써 한국문제는 유엔에 이관되게 되었다.

한편 소련 측은 미·소양군이 철수하는 가운데 한국의 장래문제를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맡길 것을 26일 제의함으로써 이에 대응하였다.

결국 모스크바결정을 통한 정부수립 모색은 실패로 끝이 났다.

대신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는 한편 소련 및 북한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미·소의 합의가 없다는 것은 곧 남북한에 분단정권이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후 현실이 보여주듯 미국과 소련, 남한과 북한 그리고 좌와 우의 합의가 없는 정부수립의 추진은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 사진 설명

美·蘇 양국기 중앙의 태극기

태극기와 美·蘇 양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는 美·蘇 대표들.

흰 제복의 키가 큰 이가 브라운 美수석대표,

그 옆으로 스티코프 蘇대표와 레베데프 少將도 보인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26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1)

蘇대표단 서울 철수

다섯달 會談 결실 없이 평양 도착

美 “共委 일시 중지하자” 제안

北韓軍 간부 정치사업 강화

■ (1947년) 10월 14일

▲ 소련대표단을 비판한데 대해 하지에게 항의함.

남로당이 1947년 8월 15일에 일으키기 위해 폭동을 조직했다는 수도관구 경찰청장의 성명서가 신문에 실렸다.

거기에서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사건을 조직했던 것처럼 상세히 썼다.

스티코프는 하지에게 항의하고 이를 신문에 발표했다.

■ 10월 18일

▲ 3주간의 휴회기간 후 오늘 공위 회의가 개최되었다.

1948년 초에 한국에서 소련군과 미군의 동시 철수를 우리 대표단이 제출한 9월 26일에 마지막 회의가 있었다.

(註: 9월 26일 소련은 미국 측의 한국문제 유엔 이관에 대응하여 미·소 양군이 철수한 가운데 한국문제는 한국인들 스스로에게 맡기자는 제안을 했었다.)

▲ 끝으로 미국대표단은 공동위원회의 일을 잠시 중지할 것을 제안, 양 대표단은 각각 점령군 본부에서 머물며 유엔이 요구할 원조에 대해 도움을 줄 준비를 갖추자는 것이다. 중앙에 보고했다.

(註: 미국대표단의 제안은 사실상 미·소공위를 종결짓자는 것이었다.)

지시를 기다린다. 언제 회답이 올까?

■ (1947년) 10월 19일

아침에 몰로토프로부터 답신이 왔다. 브라운에게 보낼 우리의 대답이 약간 수정된 채 승인되었다. 평양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허가가 났다.

내일 월요일에 열차를 불러 화요일에 떠날 것을 지시했다.

스티코프, 툰킨, 그리고 나는 화요일에 열차가 떠난 후 비행기로 출발할 것이다.

▲ 내일이면 우리가 서울에 온지 정확히 다섯 달이 된다. 판에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

앞으로 군대의 대과업이 남아있다. 나는 벌써 군대를 그리워한다.

■ (1947년) 10월 21일

▲ 오전 11시 대표단원들을 태운 열차가 서울에서 출발했다.

발라사노프는 기차로 떠났고 블라직이 차장이다. 스티코프, 툰킨, 나, 무관들 그리고 영어, 한국어 통역관들은 함께 비행기로 떠났다.

공항은 서울에서 16마일 떨어져있다.

공항까지 우리는 영예로운 호위를 받으며 갔다.

우리 자동차의 앞에는 헌병차, 그 뒤에 장갑부대원 그 다음 우리 자동차, 다시 그 뒤에 장갑부대원 그리고 헌병차가 그 뒤를 이었다.

거리 양편에는 소총을 든 무장경찰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 1백m 간격으로 서있었고 내가 세어보니 시외에만도 2백50명 가량의 경찰이 배치되었다.

▲ 공항에는 브라운 장군, 제이콥스 그리고 위원회의 새로운 위원(그는 대령으로, 그의 이름을 잊었다)이 우리를 전송했다. 군악대와 의장대가 있었다. 우리는 공항에 12시 45분에 도착했다. 이륙은 13시. 15분 동안 잡담할 수 있었다.

정확히 13시에 비행기를 탔으며 13시 5분에 이륙하여 50분 뒤에 평양에 도착했다.

▲ 평양에서 꽃다발 환영을 받았다. 김일성, 김두봉(金斗奉), 최용건(崔庸健) 등을 필두로 모든 북한지도자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 50명 정도였다. 또한 우리 사령부에서도 모두 - 코르트코프, 샤닌, 말다노프, 이그나치에

프, 카트벤, 스미토노프 장군 등 - 나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돌아온 것이다. 서울에서의 5개월 그리고 하루라는 체류 기간이 끝난 것이다.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북한에 관해 생각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17시 20분 기차로 도착했다. 모두 다 무사히 잘 도착했다.

■ (1947년) 10월 26일

▲ 북한 군사학교 졸업식

860명(?)의 장교가 각지에 보내졌다. 그들은 1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퍼레이드 솜씨를 보니 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

포 사격이 있었는데 거의 1백mm포 같았다.

잘 차려진 만찬장에는 천명이상이 참석했다.

모두가 노동당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사람들이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민족군대 맹아가 싹텄다는데 매우 흡족해했다.

장교들의 제복은 훌륭했다.

(註: 이날 북조선 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중앙보안간부학교는 군 초급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해 1946년 6월 설립된 군사학교이다.)

■ (1947년) 10월 29일

▲ 각도 위수사령관 및 군(郡)대표회의

(註: 북한지역의 각도에 존재하는 소련군 위수사령부 사령관들과 소련군 각 군책임자들의 회의임)

- 한국 내 상황에 대한 평가(한국의 상황과 미국 및 미국인들의 일반적 상황과 분리시켜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동위원회는 한국에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를 수립치 못했다.

이 문제는 미국에 의해 유엔에 이관되었다.(유엔에서 심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 군대의 철수와 관련된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철수한 뒤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일을 제대로 했는가.

만일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민주적인 개혁과 성과를 지켜내는 것은 이러한 개혁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확신하게 될 때에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 군대표들과 사령관들의 보고를 들어볼 때 북한군 간부들에 대한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지휘관 및 사령관들의 업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상이 들었다.
- 위수사령관들과 민정기관원들은 민정부를 아래에서 위에까지 도입하고자 하는 잘못된 개혁 관념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 계급과 계급투쟁에 관하여

우리 간부들을 단련해야 한다.

남쪽에는 간부들이 반동과 투쟁하면서 단련되고 있다.

북쪽의 우리 간부들은 정치적 사상적으로 단련되어야 한다.

■ (1947년) 11월 1일

저녁때 사냥을 했다. 그저 시간을 보낸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잘 다녀왔다. 휴식을 가졌다.

■ (1947년) 11월 3일

군부대 소유의 물건 손수건이 없다. 옷깃에 땀 천도 없다.

(註: 북한주둔 소련군 내의 물자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오후 1시 비행기. 대단하다 김일성

(註: 아마 김일성이 비행기로 어디로 출발하는 듯하다.)

해 설

人民軍 창설과정

중앙보안간부학교 설치 將校 양성

보안대대본부 모태 軍사령부 구성

10월 26일자 레베데프 비망록은 북조선 중앙간부학교 졸업식 상황을 기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상당수의 장교들이 배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군대 즉 인민군을 형성시켜 나갔는가?

인민군 형성의 출발은 1945년 11월 평양학원의 설립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김일성의 빨치산파 인물들과 소련계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수립한 평양학원은 그 산하에 정치반과 군사반을 두어 약 3~4개월 정도의 단기교육을 시행했다.

평양학원 원장은 빨치산파의 김책(金策)이 맡고 있었다.

그러나 1946년에 들어 평양학원 산하의 정치반은 중앙당학교로 떨어져 나갔고 남은 군사반이 주축이 되어 7월 중앙보안간부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군 장교를 본격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46년 초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직속으로 「보안대대본부」를 설치했는데 이는 군 창설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직이었다.

여기에는 빨치산파, 소련계 한인 그리고 연안파 중 군사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물론 이 모든 조치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보안대대본부」는 경찰본부로 위장되어 있었다.

1946년 8월에 들어 「보안대대본부」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로 바뀌었고 그와 더불어 보안간부훈련소가 설치되었다. 주로 사병들을 충원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보안간부훈련소는 이후 각 지역에 그 분소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이 분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인민군 사단들이 만들어졌다.

1947년 5월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북조선 인민집단군사령부」가 되었다. 즉 북한 인민군은 「보안대대본부」→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북조선 인민집단군사령부」 등으로 그 이름이 바뀐 지휘부와, 사병들을 주로 담당했던 보안간부훈련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군체계가 잡혀감에 따라 장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평양학원에서 분리된 중앙보안간부학교를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켰던 것이다.

□ 사진 설명

反託진영 共委첼페 국민대회

서울 남산에서 열린 남한 반탁진영의 미소공위 첼페 국민대회 모습

(47년 7월 27일)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1월 28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2)

한국문제 UN이관

“남북 총선거는 不當” 주민 설득

임시헌법 제정 단독 政權 추진

화폐개혁 실시 體制정비 박차

■ (1947년) 11월 10일

▲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 김책(金策)과 대화

- △ 이 문제와 관련된 정치위원회의 작업 계획
- △ 신문에 실린 한국문제 결의에 관한 정보를 연구할 것.
- △ 내일 인민위원회를 소집하고 한국문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볼 것.
- △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제안에 대한 반대를 신문에 게재할 것.
- △ 지도부 인사들이 직접 나서지 말 것

■ (1947년) 11월 11일

▲ 김책(대화) 인민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 △ 대다수 위원들이 신문을 읽지 않았다. 북조선통신사 사장이 (유엔의) 결의 및 토의내용에 대해 통보했다. 회의에 17명이 참가했다.
사법국과 교통국(학습 중)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책임자들이다.
연설자 모두가 소련대표단이 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 △ 우리가 왜 이 결정에 반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선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 △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 결정이 부당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 결정에 반대한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註: 유엔총회 정치위원회는 11월 5일 남북한 총선거 및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안을 11월 5일 가결하였다. 따라서 이 안은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듯하다.)

■ (1947년) 11월 13일

- ▲ B의 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상반기에 미국첩보원 61명을 체포했다. 6월부터 9월까지 94명의 외국 스파이를 체포했다.
- ▲ 한국의 반동세력이 활동을 강화했다. 한국경찰이 2천2백30명을 체포했다.

■ (1947년) 11월 18일

- ▲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정기회의가 있었다.
김두봉(金斗奉)이 조선임시헌법의 필요성과 헌법준비위원회 조직에 관해 보고 했다.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의사일정은 2일간이다.
(註: 11월 18~19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는 북조선임시헌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이 헌법에 따른 북한 독자적인 정권수립 작업이 곧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 (1947년) 11월 19일

- ▲ 김일성이 비류조프(註: 소련군극동사령관)와 비행기로 돌아왔다.
김일성에게는 수술자국이 있다.
(註: 이미 김일성은 11월 3일 출발하여 수술을 받고 이날 돌아온 듯하나 어디에서 수술 받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 당의 사회성분(1947년 9월 1일. %)

당	노동자	빈농	중농	부농	사무원	수공업자	기타 상인
노동당 (1945년 11월부터 68만 명)	20.1	52.5	9.1	0.6	12.8	0.3	0.5
민주당 (1945년 11월부터 24만5천 명)	7.5	41.1	26.5	2.4	6.6	4.6	8.3
천도교 (1945년 2월부터 41만3천 명)	12.4		78.3		3	0.5	1.8

-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1945년 7월부터
- 노동조합 : 17개 산업별 노동조합 37만6천 명
- 농업동맹 : 1946년 1월부터 2백55만1천 명
- 여성동맹 : 1946년 11월부터 1백11만4천 명
- 조·소문화교류협회 : 54만 명

▲ 비류조프(註: 소련군극동사령관)의 지시

1. 북한이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것을 반대하지 말 것. 특히 중국과.
2. 제지공업에 필요한 그릿에 관한 암호전문을 비류조프의 서명을 받아 비코안(소련 장관)에게 보낼 것.
3. 우라늄에 대하여
 - 베리야(소련 부수상)에게 암호전문을.
4. 문관들이 왜 식량배급을 받는가.
5. 남과 북의 교역을 막지 말라.
6. 인민위원회와 까르쿠렌코 그룹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
7. 인민위원회로부터 사령관과 장교들에게 줄 식량을 배급받을 것.
8. 김일성에게 한국군대, 고문관들의 생계 문제를 제의할 것

■ (1947년) 11월 28일

- ▲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화폐정책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 사전에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 12월 1일 화폐교환에 관해 인민위원회 회의가 소집될 것이다.
- 12월 6일부터 이 화폐교환 업무가 개시될 것이다.

■ (1947년) 12월 1일

▲ 저녁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

저녁에 스티코프와 함께 민전의 호소문과 화폐교환에 대한 사설을 편집 교정했다.

■ (1947년) 12월 5일

▲ 화폐개혁에 대해 공표했다.

12월 5일까지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몰랐고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상점들이 문을 열었고 상업이 이루어졌고 거래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에 화폐개혁에 관한 인민위원회 결정이 발표된 것이다.

갑자기 국영상점을 제외한 모든 것이 문을 닫았다.

(註: 북한은 해방 후 구(舊)조선은행권과 소련군이 발행한 군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2월 5일을 기해 화폐개혁을 실시 이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신 화폐를 사용토록 했다.)

▲ 12월 3일에는 황해제철소 제3용광로 시동에 참석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점화된 용광로이다.

모두가 흥분했다.

첫 번째 용해, 얼마나 흥분된 순간이며 얼마나 커다란 자람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인가.

성대한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관리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표창을 받았다.

상금을 수여받은 이들은 위원회 간부들에게 인사하고 돌아서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사한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해 설

北韓 원자폭탄 개발시설

日帝 흥남 화학공장에 대규모 秘密설비

소련군 시설·관련 노동자 本國으로 옮겨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된 이후 한국문제에 대한 설전이 장은 유엔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일련의 논란 끝에 유엔총회 정치위원회는 11월 5일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와 이를 위한 한국임시위원단 설치를 규정한 미국 측 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유엔총회의 본회의 역시 이상과 같은 안을 11월 14일 통과시켰다.

유엔에서의 이러한 사태 진전에 직면하여 북한의 소당국이 모색했던 대응은 조선임시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임시헌법이 제정은 곧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 인민회의를 구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레베데프 비망록 11월 10, 11, 18일자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유엔에서의 진척상황에 대응한 북한측의 조치 특히 임시헌법 제정에 관한 것들이었다.

한편 19일자 비망록 내용 중 소련 권력층 내부의 실권자인 베리야에게 보내는 우라늄에 대한 암호전문은 유독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와 관련 당시의 한국문제를 깊이 연구한 브루스커밍스(Bruce Cumings)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 II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즉 일제는 전쟁 말기 북한지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제가 북한지역 특히 흥남의 대규모 화학공장들에 원폭 개발 시설을 갖춘 것은 연합국의 집중된 폭격을 피할 수 있고 원폭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폭 개발에 필요한 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제는 북한지역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나자이트(monazite)라는 검은 모래를 처리하여 그 속에 포함된 소량의 방사성 물질로 토륨을 추출, 이 토륨을 이용하여 원폭을 개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으로 흥남의 원폭 개발시설과 북한지역의 모나자이트 광산은 소련군에 의해 장악되었고 소련군은 1946년 이 시설들과 관련 노동자들을 소련으로 철거시켰다.

북한지역에서 채굴되는 모나자이트 또한 이후에도 계속 소련으로 보내졌다 한다. 1949년 소련은 원폭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에 뒤이어 두 번째로 원폭 보유국이 되었다. 이와 관련 커밍스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지적, 소련의 원폭 개발이 부분적으로는 일제의 이러한 시설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그는 중국 공산군에 의한 중국 본토의 석권과 더불어 소련의 원폭 개발이 북한의 김일성을 고무시켰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소련이 그 원폭 개발에 있어 일제가 북한지역 내에 남겨놓은 시설과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나자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결국 북한도 한 몫을 거둔 소련의 원폭 개발로 김일성은 고무 되었고 바로 이 고무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을 결정하도록 한 한 요소로 작용했으리라 하는 것이다.

□ 사진 설명

스티코프 南韓 사람들 만나

47년 2차 美·蘇共委차 서울에 온 스티코프 蘇수석대표가 남한
사람들과 만나 기념 촬영했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2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3)

남북한 총선거

「실력저지」南勞黨에 지시

남한만의 單選單政계획 구체화

하지 반대투쟁 左翼인물 검거령

■ (1948년) 1월 13일

▲ 민주당 - 진보적 요소들이 상실되기 시작했다.

▲ 도(道)정치위원장 대리의 집에서 청우당 김정주(金廷柱) 싸움.

(註: 소당국이 민주당과 청우당의 활동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 (1948년) 1월 14일

▲ 천도교에 관해서

김달현(金達炫)을 소환하고 만약 (그가) 털어놓지 않으면 그를 비판할 것이라고 말할 것.

▲ 지시

(미국측의) 한국분단계획을 폭로한다. 당분간 북한에서 헌법시행을 보류한다. 신헌법에 의한 선거는 남한보다 늦은 시기에 실시한다.

(註: 북한은 1947년 11월 18~19일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조선 임시헌법을 제정하기로 한 바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단선단정 계획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북한에서의 헌법 시행과 선거 실시를 늦추고 있다. 북은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분단을 먼저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1948년) 1월 16일

▲ 김달현과의 대화

-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예전에 영국과 일본이 중국을 공격했다. 인민들은 유럽인들의 침입은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과 싸워야 한다.
- 청우당 중앙위원회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지방 대표들이) 당 중앙위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 청우당에 관한 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5개월 동안이나 질책해왔으나 대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 자는 UN위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
나는 그따위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 4월에 청우당대회가 있을 것이다.
- 4월 5일은 청우당 경축일이다.

▲ 김일성에게

- 김달현과 청우당 내의 사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

그에게 (청우당) 사람들이 민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단결을 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

- 아마도 누군가를 체포하고 김달현에게 그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 주고 그것을 공표하여 인민들에게 알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註: 아마도 청우당 일부 그룹은 UN위원단의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듯하다. 위의 내용은 청우당 내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한 소군정의 설득 및 위협을 보여주고 있다.)

■ (1948년) 1월 20일

▲ 발렌쾨(註: 남한에 거주하는 소련 측 정보 제공자인 듯함)의 전갈.

1. 미국인들은 김규식을 총리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이승만과 김구가 김규식에 반대하는 블록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2. UN위원단은 우익세력들 간의 상호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3. 하지는 만약 남로당원 3만 명이 체포된다면 남로당은 끝장날 것이라 선언했고 이와 관련하여 체포령을 내렸다.
4. 남한에서 유격활동에 대한 견해가 있다.(필요 없다는 명령을 내렸다.) 스티코프(註: 당시 남로당에서는 남한 단선단정에 반대하여 유격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이 대두된 듯하다. 그러나 소당국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 (1948년) 1월 21일

▲ 스티코프 동무와 전화로 대화

스티코프의 지시

1. 민전의 전환 계획을 준비할 것.

전환

- (註: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보이코트할 것. 선거에 반대할 것.

- 테러를 이유로 댈 것

(註: 남한에서 남로당을 위시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은 1월 말경 단선단정을 저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실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전의 전환계획이란 바로 이를 가리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1월말 남로당의 태도 변화가 소군정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남로당은 2·7구국투쟁을 필두로 격렬한 단선단정 반대투쟁의 막을 올렸다)

2. 남한에서 단선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3. 군대의 철수, 제헌의회를 구성할 것.

(註: 남한 단선단정에 대한 소련측 대응으로서 헌법을 제정할 의회 구성을 구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민회의를 소집할 것.

1947년 국민경제의 복구 및 발전에 대한 평가.

그리고 1948년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제반 조치들.

▲ 헌법에 관해서

헌법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이 있을 것이다.

1. 전인민의 토의를 위해 공표할 것.

2. 인민위원회대회가 3월에 있음.

(註: 헌법 시행을 뒤로 미룬 북한 측은 그 기간 동안 헌법초안을 인민 토의에 부쳤다.)

■ (1948년) 1월 22일

▲ 김일성의 제안

1. 인민위원회대회에서 남한측 대표들을 약 300명 정도까지 참석시킨다.

(남한에서 각도마다 2명씩 보낸다.)

2. 두 늙은이(註: 김구와 김규식을 의미하는 뜻함)의 대회 참여를 가능케 해 줄 것.

3. 시간 우선 인민위원회대회는 3월 15일 그리고 3월 25~30일은 노동당대회

(註: 김일성은 김구 및 김규식까지 포함하여 3백여 명의 남한 대표가

참여하는 「전조선인민위원회대회」를 3월 15일경에 소집한 것을 제안하고 있다.)

■ (1948년) 1월 26일

▲ 저녁, 민주당 내 상황에 대해 김일성 및 최용건과 대화.

▲ 지휘관회의,

북한정세와 긴박한 과제들

1. 대체로 상황은 좋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UN위원단 일과 관련하여 반동세력의 활동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지도부 조직에 관해

△ 정세가 바뀌었다. 요원들은 성장했다. 작업방법이나 대화 내용?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단순히 알아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다른 형태로는 안 되는지, 자세히 탐구해야만 한다.

지휘관들은 이를 위해 사전에 대화 준비를 해야 한다.

△ 당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다. 민주당대회에서의 이그나치예프의 참석과 관련된 실례.

이것은 다른 정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

몇몇 공산주의자들에게 다니는 것을 이미 그만두었다. 이것은 위험하다.

△ 당면과제

1. 임시헌법

2월에 전인민의 토의를 위해 공고가 나면 이 초안의 보의에 도움을 줄 것.

2. 청우당과 민주당,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것.

또한 그들 작업의 세부사항을 깊이 연구할 것.

(註: 이상 내용은 소련군 지휘관들에 대한 주의 사항임)

해 설

조선임시헌법 시행 보류

“北이 먼저 분단정권 수립” 비난 싫어

統一전선 목적 남북연석회의 추진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 뒤 미국 측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던데 반해 소련 측은 미·소 양국이 철수한 가운데 자주적 정부를 수립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뒤이어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한국문제에 대해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와 이를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를 결의했다.

이 같은 유엔의 결정에 대해 11월 18~19일에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는 조선임시헌법의 제정을 결정했다. 말하자면 북한 측은 유엔감시하 남북한 총선거안에 대해 조선임시헌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임시헌법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초안은 1948년 2월 6~7일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 제4차 회의에서 임시헌법을 채택할 시 소련 측은 북한이 분단정권 수립에 먼저 착수했다는 비난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따라서 그들은 남한에서 진행되는 상황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헌법의 채택과 선거의 실시를 뒤로 미루고 있는 모습을 비망록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신 그들은 그 보류 기간 동안 헌법 초안을 인민 토의에 회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헌법 채택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김일성의 제안에 의해 「전조선인민위원회대회」가 구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성격상 인민위원회대회는 임시적인 인민회의(즉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에서도 1947년 초 등장했던 북조선인민회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대회를 구성하고자 했던 것은 곧 헌법을 채택하기 위한 필요 때문이었다. 헌법이 채택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정식 정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남게 된다. 즉 헌법규정에 따라 정식 선거를 실시하고, 정식 인민회의를 구성하고, 이 정식인민회의에서 정식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전조선인민위원회대회」→ 전국적인 임시인민회의 구성 → 헌법 채택 → 정식 선거 → 정식 인민회의 구성 → 정식 정부 수립 등의 절차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비망록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전조선인민위원회대회」 구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정확한 원인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일단 그 구상은 모스크바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그 원인과 관련 소련 및 북한 측은 남한에서 점차 등장하고 있는 김구·김규식 등 남북협상파와의 통일전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한다.

「전조선인민위원회대회」 구상이 폐기된 이후 북한 측은 남북협상 즉 그들 식으로 표현하면 남북연석회의를 추진하고 나섰던 것이다.

□ 사진 설명

미·소공위 평양경과보고대회

소련대표의 美·蘇공위 평양경과보고대회의 모습.

앞줄 왼쪽이 金日成, 金枋奉(右 두 번째), 金策(右 첫 번째)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4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4)

人民軍 창설

軍예산 은폐 등 비밀리 진행

모스크바 민족보위국 발족 지시

정부예산 15%나 軍육성에 사용

人民위원회 2주년 다음날 創設 퍼레이드

■ (1948년) 2월 2일

▲ 김일성과의 대화

(편자 주 : 1. 이 없음)

2. 3월 25~30일 노동당 대회
3. 민족보위국 창설에 관한 법령 내용
(비스팔로프와 카네프스키에게 이에 대한 과제 부여)
4. 2월 7일 인민위원회 창설(註: 1946년 2월 7일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 위원회를 말함) 2주년 대회가 있을 것.
사령부의 이름으로 축사가 필요(각 도마다)

▲ 예산을 공개할 수 있을까

- 군대에 대한 예산을 공개할 수 있을까? 15억원 즉 15.3%
- 1948년 예산 수입 1백3억3백만원, 지출 98억3백만원 수입을 100%로 했을 때 지출은 87%
- (註: 다음은 1948년도 예산 계획인 듯. 이후 게재될 2월 22일 예산내용 참조)

지출 내역	1948년	1947년 대비 증가
1. 인민 경제	35억2천8백만원 36%	10억9천5백만원
2. 사회 문화정책	24억2천9백만원 24.8%	3억8천5백만원
3. 정부기관(군 포함)	30억5천2백만원 31.2%	7천7백만원
4. 예비비	7억9천2백만원 8%	

- 지출에 대한 수입초과분 5억원
- (註: 당시 군 예산은 정부기관 예산 속에 은폐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군 예산이 전체 예산의 15.3%나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 상당히 큰 액수이다.)

▲ 2월 6일 우리는 정기 인민회의를 준비한다.

의사일정

- ① 헌법위원회 보고와 대회의 결의
- ② 1947년 계획 수행 결산과 1948년 인민경제발전에 대한 정책
- ③ 1948년 예산(군)에 대한 지출을 공개할 수 있을까.
- ④ 법률 승인
 - ㉠ 민족보위국 구성에 관한 법률

㉠ 광업에 대해

(註: 이상 미리 준비된 일정에 따라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가
2월 6~7일에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 ① 1947년도 인민경제부흥발전에 관한 종결과 1948년도 인민경제
부흥 발전에 관한보고
- ② 1948년도 북조선 종합예산 승인
- ③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의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 2월 7일 제2차 북조선인민위원회 기념집회

2월 8일 퍼레이드가 있을 것이다.

퍼레이드에서의 환영사.

김일성 - 인민위원회.

김두봉 - 인민회의 간부회의

김달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최용건 - 답사

(註: 북한에서는 2월 8일에 조선인민군 창설식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열병식이 거행되었다.)

▲ 답신이 없다. 어떻게 할까.

- ① 헌법 내용의 공표에 있어 그 수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② 군사 선서 내용이 보내졌다. 이 선서를 군기수여 시 받을 수 있을까.
- ③ 인민위원회대회 - 3월에
 - ㉠ 전조선인민위원회대회 소집의견이 있는데 남쪽에 3백석, 각도
대표 2명과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들로 구성.
 - ㉡ 노인들(註: 김구와 김규식을 지칭하는 듯함) 참여할 수 있을까.
 - ㉢ 회의기간 : 3월 10~15일, 25~30일은 노동당대회
(註: 즉 레베데프는 위의 사항에 대해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 (1948년) 2월 3일

▲ 모스크바와 교신, 바리노프와 툰킨의 지시

- ① 헌법을 공포할 수 있다.
- ② 각 부서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은 내용들을 공포할 수 있다.
- ③ 퍼레이드는 할 수 있음. 스티코프는 바리노프를 통해 지시한 대로 퍼레이드를 진행토록 지시했다. 스티코프 - 모스크바 근교 별장에서.
(註: 다음은 인민회의에 대한 지시임)
- ① 정해진 바대로의 의사일정
- ② 김두봉이 발언하라는 결정이 채택되었다.
- ③ 전인민의 토의를 위한 헌법초안을 공포한다.

▲ 스티코프와 툰킨의 지시

- 3월에 헌법 비준을 위한 인민회의를 소집하고, 인민위원회대회는 소집하지 말 것.
(註: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일성이 제안한 「전조선인민위원회」 구상은 모스크바에 문의 결과 거부되었다)
- 민족보위국을 창설할 것(註: 민족보위국 -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함)
- 퍼레이드를 할 것.
- 선서를 하지 말 것.
- 군대 창설에 대해 밝힐 필요는 없다.
- 퍼레이드를 하고 조선인민군의 퍼레이드에 대해서만 방송하라.
창설 동기는 밝힐 필요가 없다.

■ (1948년) 2월 4일

▲ 헌법채택을 위한 정기총회가 3월 19~20일에 있다.

21일 일요일에는 헌법 채택을 축하하기 위한 군중집회와 시위를 조직할 것.
(註: 조선임시헌법 초안은 2월 6~7일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 결정에 의해 인민토의를 위해 공포되었다. 북한은 이 같은 인민토의에 뒤이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3월 19~20일 다시 인민회의를 개최, 헌법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3월로 예정된 이 인민회의는 다시 연기되어 남북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4월 28일~29일에야 개최되었다)

■ (1948년) 2월 5일

▲ 4시 스티코프와 전화 지시사항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수비조직과 제반조치를 강구할 목적에서 다음을 법령으로 선포한다.

① 민족보위국의 창설

퍼레이드에 참석해도 좋다.

■ (1948년) 2월 10일

▲ 남조선에서 위조지폐가 흘러 돈다.

▲ 임표(林彪) - 무기에 관해서

유브첸코, 김일성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소총 20만 정, 경기관총 1만5천 정, 중기관총 7천 정, 72mm박격포 7백 문, 중대용 50mm 1천 문, 고사포 1백 문, 야전포 2백 문(탄약과 함께)

20개 사단을 위한 보급품

(註: 2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이상의 어마어마한 무기는 아마도 소련 측에서 중국공산군에게 넘겨주는 무기라 생각된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 사실을 김일성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메모인 듯하다)

해 설

조선인민군 창설 의미

빨치산 동료 주축 金日成 지위 확고

소련군 철수 공백 메워 美國에 대항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정식으로 창설되기 이전 인민군이 「보안대대본부」 → 「보안간부훈련대대부」 →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 등의 이름으로 성장했음은 지난 번 해설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이처럼 형성되었던 인민군은 1948년 초 공개적으로 조선인민군을 창설하는 작업에 나섰다. 물론 여기 비망록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측은

당시에 그 창설 동거나 인민군의 예산에 대해서 그 공개를 꺼렸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의 창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나섰고,
특히 그 창설식 당일의 퍼레이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방송으로까지 공표
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2월 8일 창설식, 당일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했다.

우선 그는 조선인민군이 「빨치산 투쟁」을 통하여 「반일무장투쟁에 일생을
바쳐온 진정한 조선의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설되었다」고 언급했다.
김일성이 북한에 입국한 이래 공공연히 빨치산 투쟁 운운하며 그들만이
진정한 조선의 애국자라는 식의 발언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그것은 김일성의 지위가 이때쯤이면 확고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민군 지도부는 과거 김일성과 더불어 빨치산투쟁을 했던
동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예컨대 빨치산 동료인 김책(金策)은 당시
민족보위국(국방부에 해당) 국장에 취임했고 최용건(崔庸健)은 조선인민군
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만큼 군에서 김일성의 빨치산세력은 강력했던 것이다.

한편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조선에서 조선인민군의 창설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 완전 자주독립을 일층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에서 이루어진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를 무력으로 보위하고 미제국주의자
들과 그 주구들의 민족분열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는 미국 및 남한과의 대결을 위해 인민군이 창설되었음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김일성의 연설은 소련 측의 의도도 반영하고 있었다. 즉 이제 곧
북한에서 철수할 예정이었던 소련군은 그들이 빠져나간 공백에 북한의
인민군을 배치함으로써 북한인들 스스로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시켜주었던 것이다. 소련과 북한 측의 이 같은 의도는 1948년 전체
예산 중 15.3%를 국방비에 할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었다.

북한은 이후 1978년까지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그 이후 그들은 조선인민군이 1932년 4월 25일 창설되었다하여 4월
25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다.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이 만주에서 안도유격대를 창설했던 날짜이다.

□ 사진 설명

왼쪽 사진 : 연설하는 스티코프

스티코프 蘇수석대표가 덕수궁에서 열린 2차 美·蘇공위서 연설문을 읽고 있다. 오른쪽은 美측 수석대표인 브라운 少將

오른쪽 사진 : 贊託진영 共委첼페대회

47년 7월 27일 南山에서 열린 찬탁진영의 모소공위첼페국민대회 모습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7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5)

계획경제 강행

토지 5정보 넘는 富農 억제

萬7千ha 농지 수리시설 완료

신 화폐 인쇄비용 北韓에 청구

■ (1948년) 2월 12일

▲ 당대표자대회(註: 소련군내 당대표자대회임)에 샤치로프 동무가 나타났다.

대표자대회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자아비판 발언들이 있었다.

- 군의 임무에 대해

군대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할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자신의 존재로서 조선인민의 민주주의제도의 강화와 조선인민과 영원한 우호를 강화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누가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나 위법행위를 할 것인가?

- 우리는 조선에서 많은 혁명사업의 수행을 도왔다.

저주받은 한국이라며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세계혁명만 안전한 보루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에는 중국의 길이 있고 조선에는 또 다른 길이 있다.

▲ 농림국 자료

- 7정보 이상 : 1천1백88세대(전체 1백30만 세대 중에서)
5정보~7정보 이하 : 1만2백47세대
- 토지매매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임자에게 땅을 산다.
토지매매 금지에 대한 법규필요
(註: 이상은 북한에서 1946년 3월 시행된 토지개혁 이후에도 5정보 이상의 부농들이 증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인 듯함)
- 한·소수산주식회사(명태·고등어) 1만3천5백 t,
소비에트나 조선에 이익
- 우리의 기술, 한국의 바다와 노동력, 4명의 인공수정 기술자가 필요

■ (1948년) 2월 22일

▲ 노인은 김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된 일이다.

노인은 학습과정에 노동자들이 아니라 지식인들을 보내고 있다.

(註: 여기에서 「노인」은 남한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인 듯하며 내용으로 보아 백남운(白南雲)이나 성시백(成始伯)으로 짐작 되기도 하나 분명치 않다. 김은 김일성이라 생각된다)

▲ 2월 21일 22시에 스티코프와 이야기했다.

1. 예산에 대해 - 집행시기와 지출
 2. 인민위원회 또는 우리들이 독자적으로 몇 개의 관개수로를 건설했는가.
 3. 교통 통신수단, 관개에 얼마만큼의 액수가 지급되었는가.
나는 주거 문제를 첨가했다.
- 예산
수입 1백3억3백23만8천원
지출 98억3백23억8천원
 - 여기서
1. 국민경제 35억4백20만9천원, 공업 12억7천만원, 농업 9억9천4백54만8천원,
상업 1억5천2백40만1천원, 철도 1억4천만원, 포장도로 3억3천5백만원,
통신 3천3백만원, 국영산업 2억5천9백26만원, 금융기관 3억원

2. 사회 문화 정책 25억9천5백77만4천 원, 교육 13억2천3백50만 원, 보건 5억2천20만3천원, 사회보험 4억9천9백만원, 중견간부교육 6천9백5만7천원, 기타 1억8천4백1만4천원
3. 행정부와 국방 30억5천2백9만1천원, 즉 31.1%, 이 액수에서 군이 15억원 즉 15.3% 차지
 - 실업자(47년 4월 1일에서 48년 1월까지) : 3만9천4백24명, 그 중에서 직장에 보내진 사람이 3만5천93명, 48년 1월 1일까지 나머지 실업자 4천3백31명.
 - 이 총액은 규정에 따라 47년 10월 21일부터 실행된 것이다. 45년 수치 10억7천2백57만3천원, 이중 현 관개시설에 4천7백64만원이 쓰이고 4천3백73만3천원은 다 쓰이지 않았다. 철도 항만 수송수단 11억1천8백40만5천원, 통신 1억7천9백1만1천원
 - 관개 1946년과 47년에 걸쳐 인민위원회 비용으로 24개의 새로운 관개시설 그리고 농민 자신들의 비용으로 1만7천5백ha의 토지에 수리시설.

■ (1948년) 2월 25일

▲ 직무 할당

이그나치예프

1. 스쿠츠스키 부대 2. 막심추크 부대 3. 편집부 - 네이마르크
4. 검열부 5. 보건부 - 로즈트마트 6. 간부
7. 법무 및 정치부 - 즈그루진 8. 정보부 9. 인민 검열부

카르쿰렌코

1. 공업 2. 농업 3. 교통 - 돕기흐 4. 재정 - 이라토프스키
5. 계획화 6. 상업 - 네우메트코프 7. 통신 8. 노동 9. 국영사업부
10. 지역공업

나(레베데프)

1. 관리 및 경리 2. 민족보위 및 일반업무
- (註: 이상은 소군정 주요 책임자들의 직무 할당 내용임)

■ (1948년) 2월 26일

- ▲ 새로운 화폐 인쇄에 따른 비용 1백12만7천 미국달러 소연방 대외무역성은 인민위원회에게 이 금액을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민위원회와 협상이 이루어질까. 소연방 대외무역성의 암호전문이 와 있다.
(註: 소련은 1945년 12월 5일에 시행된 화폐개혁 시 사용된 신 화폐 인쇄비용을 북한 측에 청구하고 있다)
- ▲ 헌법심의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음. 따라서 정기총회를 연기할 것.
- ▲ 노인은 이승엽(李承燁)의 학습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가 없으면
(註: 남한에서의 일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럭저럭 해 나갈 수 있다.
- ▲ 이승엽을 학습을 위해 가능한 빨리 파견할 것.
(註: 아마도 북한에 올라온 노인은 남로당의 사실상 2인자인 이승엽에 대한 학습 문제를 제기한 듯하며 따라서 소당국은 이승엽을 북으로 불러올리기로 결정한 듯하다)

해 설

北 경제복구·토지개혁 정책 日帝 파괴 공장 중 8백여 시설 복구 토지 무상몰수·무상분배 農民지지

북한지역은 일제 말기 일제가 추진했던 전시공업화 정책으로 상당한 전시 공업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패전으로 인해 철수하는 과정에서 북한지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공장과 광산 등을 파괴하거나 침수시켰다. 따라서 해방 직후 북한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봉착했던 문제는 파괴되거나 침수된 이들 시설들을 복구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파괴된 시설의 복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소군정으로부터 인수받은 1천34개의 주요 기업소 중 1947년 1월 1일 현재 8백22개의 기업소가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한편 지형적으로 논이 부족했던 북한지역은 해방 직후 쌀 부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1946년 3월 전격적으로 시행된 무상 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북한정권은 농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반면 땅을 몰수당한 지주 및 부농 계층은 월남하거나 몰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주요 기업소의 복구와 토지개혁 등의 조치에 바탕하여 북한은 1947년부터 계획경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7년도 인민경제 발전계획이 그해 2월 19일에 개최된 도·시·군인민위원회대회에 제출되었고 그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 계획은 일제가 남긴 식민지적 경제의 낙후성을 없애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기업소 복구를 통한 생산량의 2배 증대, 생산성의 48% 증대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참고로 1947년도 북한의 세입과 세출은 83억2천8백66만4천원이었다.

이 같이 시행된 1947년도 계획경제의 경험에 바탕하여 북한은 1948년에 들어 보다 체계적인 계획경제를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48년도 인민경제 발전계획이 2월 6~7일에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 제출되었는데 이 계획 역시 일제가 남긴 식민지적 경제의 편파성을 극복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다. 1948년도 계획과 관련하여 2월 22일자 레베데프 비망록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산 내역이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예산의 수입이 1백3억3천23만8천원, 지출이 98억3백23만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을 볼 때 특히 국민경제 중 공업, 사회문화정책의 교육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설명

美·蘇공위 환영 열병식

47년 5월 27일 오후 5시 蘇대표단을 위한 미·소공위 환영 美31연대

7사단의 열병식.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蘇 레베데프 少將과

美7사단장 부루스 少將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9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6)

北 천도교 동향

남북 총선 요구 平壤시위 발각

“3·1절 기해 궐기” 南측 지시

청우당 지도자 등 60여 명 체포

■ (1948년) 2월 26일

▲ (註: 다음은 북조선 청우당의 상황임)

- 2월 14일 천도교는 운동을 일으키라는 편지를 남한으로부터 받았다.
- 2월 21일 교회지도자 이돈화(李敦化). 이돈화 자택에서 회의
- 2월 26일 아침에 김달현(金達鉉)이 김일성에게 모든 것에 관해서 이야기 했다.

▲ 천도교

- 10명의 사람들이 천도교 여러 지역에 파견되었다.
신의주 4명, 평남 3명, 원산 1명, 평양 2명, 명산 덕천 등 지휘자가
준비되었다.

■ (1948년) 3월 3일

▲ 허가이의 통보에 의하면 소총회 결정에 대한 북조선 지도층의 분위기는 부정적.

▲ 남조선 현대일보 2월 25일자

- 북한에서 탈출한 단체들이 남한선거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그 누구도 한국의 분단을 원치 않는다
- 모스크바 결정에 찬성. 남북한의 민주적 단체들의 협의회나 대회를 소집할 것.
(註: 위의 남북한의 민주적 단체들과의 협의회나 대회는 남북연석회의
구상을 의미하는 듯함)

▲ 한국의 헌법을 가결하기 위한 인민회의 정기총회가 3월에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인민회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공표는 10월 15일 예정임.

- ▲ 남한에서 선거 실시에 관한 소총회 결정에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줄 것.
- ▲ 천도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조만간 분리 이탈이 있을 것이다. 명칭은 남겨둘 필요가 있으나 우파는 축출해야 한다.
 - 대중 작업에 대한 지령을 받을 것.
 - 무엇으로 천도교 활동을 폭로할 것인가
 - 그들의 강령과 그 강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정관에 위배되는 사실을 폭로할 것.

■ (1948년) 3월 5일

- ▲ 라디오에서는 김규식이 입법의원 의장직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註: 남한만의 총선을 결정한 2월 26일자 유엔소총회 결정이 알려지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내의 단선지지 의원들은 남한총선촉진안을 가결했다. 이에 반대하여 입법의원 의장인 김규식은 사표를 제출했고 이 사표는 3월 2일 수리되었다)

■ (1948년) 3월 6일

- ▲ 김일성
 - 2월 15일 남한으로부터 서신을 지닌 여인이 출현했다.
 - 19명의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 북한 전역에서 모두 1백23명을 체포했다.
 - 모두 1백72명 - 이중 60명은 천도교
 - 이근섭(李根燮) - 현재 억류 중. 1886년 생, 1908년 천도교
 - 이돈화(李敦化)
 - 남쪽은 김달현과 함께 김기전(金起田)을 당대표로 추대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 남한 공작원 김형구가 돈을 받으러 도착했다. 이강국(李康國)은 그를 남로당 내 자기 사람으로 추천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청우당 출신의 남한 공작원임이 드러났다.

(이강국을 조사할 것)

(註: 남로당 출신인 이강국은 1946년 9월 미군정에 의해 검거령이 내리자 북한으로 올라갔다. 이강국은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 1946년 10월 김형구는 남한으로 도망쳤다.

김기전은 도망친 김형구와 함께 남한으로부터 왔었다.

- 김달현은 이근섭을 석방하라고 요청한다. 그는 매일 이 문제를 제기한다. 이근섭을 계속 구금하고 이돈화를 체포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석방할 것인가. 왜냐하면 천도교 내 다수파를 붕괴시킬 만반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김달현이 제안한 것. 김기전을 천도교 종무원장으로 임명할 것. 그러면 그는 김달현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 결정

김달현을 존중해서 이근섭을 석방시킬 것.

회의 진행 때까지 극단적인 조치로 김기전을 구속할 것.

(註: 이상은 북한의 소군정을 반대하고 유엔감시하 총선거를 받아들이도록 1948년 3·1절 기념일을 기해 평양에서 시위를 전개하라는 남쪽 천도교 중앙의 지령에 의해 시도된 「3·1재현운동」 거사계획이 북한당국에 적발되면서 야기되었던 것이다.)

- ▲ (註: 다음은 남한만의 총선을 결정한 2월 26일자 유엔소총회 결정에 대한 북한 측의 대응에 관한 일정임)

- 3월 9일 민전 중앙위원회 회의 후 김일성의 발언, 방송으로(보도할 것)
- 3월 10일 신문보도
- 3월 14일 소총회 결정에 대한 도시의 항의 집회.
거기에서 각계각층의 발언 대표로 김두봉(金斗奉), 김달현(金達鉉), 최용건(崔庸健)이 연설한다.

■ (1948년) 3월 9일

- ▲ 스티코프에게

- 남한에 관한 정보들, 선거를 위한 준비가 강화되고 있다. 선거법은

1947년 8월에 채택된 것이다.

- 북한에 관해서

민전 중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김일성이 보고했다.

보고는 열광적으로 채택되었다.

김두봉과 최용건, 김달현의 열정적인 발언이 있었다.

라디오로 방송되었다. 내일은 신문에 보도될 것이다.

어떻게 보고를 전달할 것인가(12 페이지)

(註: 3월 9일 개최된 북조선민전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김일성은 그동안 유엔에서 진행된 한국문제 처리 과정을 밝히면서 그 책임을 미국과 남한 측에 돌리는 한편 유엔소총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응하여 북한 역시 선거를 실시하여 최고입법기관을 구성할 것임을 밝혔다)

▲ 김구에 관해서

그의 이름을 이승만과 함께 한국 민족반역자로 상기시키는 구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註: 당시 남한에서는 김구 및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김일성 및 김두봉에 이를 제안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있었다)

해 설

북 청우당 3·1절 재현운동

남북한 분단정권 수립 막기위해 계획

위원장 密告로 北政權 반대세력 소멸

해방직후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에 반대했던 정치세력들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우선 해방 직후 소련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하게 되자 향후 시행된 소련군의 정책에 위협을 느낀 기득권층, 즉 친일혐의자, 자본가, 지주 등의 상당수는 월남하는 길을 택했다.

다음으로 북한정권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세력은 주로 평안도 황해도 등 북한의 서북부 지역에 다수 거주했던 기독교도들이라 할 수 있었다.

북한정권 초기 조만식(曹晩植)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당은 바로 이들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만식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의 신탁통치에 반대함으로써 소당국에 의해 연금되었고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조만식을 지지했던 민주당세력은 월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후 북한의 민주당은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한편 1946년 3월에 행해진 토지개혁은 지주의 몰락을 가져왔고 토지를 빼앗긴 이들 역시 다수가 월남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잠재적 반대세력이 될 수 있었던 이들 세력들이 북한정권에 적극적인 저항을 시도하기보다는 남한으로의 월남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함으로써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보다 용이하게 그들의 지배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조선청우당은 해방 초기에 민주당과는 달리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별다른 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당세를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1947년 9월 1일 현재 41만3천명의 당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수치는 같은 시점에서 파악된 북로당의 68만 명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민주당의 24만 5천명보다는 월등히 많은 숫자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7년 제2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남북한에서 분단정권 수립이 점차 분명해지자 남북한의 천도교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의 한 주역이었던 그들에게 남북한 분단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천도교 측의 동향과 관련하여 이 비망록에서 자주 언급되었듯이 특히 북한의 소당국은 북한 천도교 측의 동태에 대해 예의주시했다.

그러던 중 천도교 중앙에서는 1948년 31절 기념행사를 기하여 북한에서 소군정을 반대하고 유엔감시하 남북한 총선거 수용을 주장하는 시위를 전개하라는 지시를 북한 천도교 측에 보냈다.

그러나 이에 반대했던 북조선청우당 위원장 김달현(金達鉉)은 이를 북한정권에 밀고하였고 그 결과 북한 천도교도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벌어지게 되었다.

비망록의 2월 26일자와 3월 6일자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태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후 북한의 천도교는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세력

들이 장악하게 되었고 이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제거되었다.

□ 사진 설명

로마넨코 少將 환송식

47년 가을 平壤 시내 蘇 25軍사령부 정원에서 가진 로마넨코 少將
(가운데 호주머니에 손 넣은 사람) 환송 시때 자리를 함께한 蘇
軍政수뇌부. 우측에서 세 번째가 레베데프이고 그 뒤 웃고 있는
사람이 김일성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11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7)

연석회의 추진

南北분단 政權 수립 적극 반대

白凡 협상제의 書信 김일성에 발송

北 통일전략에 도움... 기꺼이 만나

北 “金九 어리석어 說得 가능” 자신감

■ (1948년) 3월 10일

▲ 스티코프에게

1. 김일성과 김두봉의 이름으로 김구와 김규식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하여
2. 김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선동노선에 대해서

▲ 만일 그(註: 김구)가 모스크바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어떤 사태로 귀결되는 것일까.

그 동안의 정책은 어디로 귀결되는가.

▲ 3월 10일 스티코프의 명령

- 어떤 집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말 것.

- 이승만을 1910년 일본에게 한국을 팔아먹은 조선관리들과 비교한다.
- 이승만에 대한 기사와 커리커처.
- 신문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논할 것.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서 김구가 취했던 입장은 결국지금까지 통일정부의 수립과 한국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끔 만드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바로 이 점을 상기시킬 것. 공동위원회에서 소련대표단이 얼마나 옳았는가에 대해 언급할 것.
- ▲ 김구와 김규식이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일성, 김두봉과 만나자고 김일성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제안했다.
(註: 김구와 김규식은 1948년 2월 16일 남북협상을 제의하는 서신을 김일성과 김두봉 앞으로 발송한 바 있다.)
- ▲ 김구 편지에 대한 김일성의 견해
 - 김구에게 답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예스」로 대답하면 군대철수를 요구할 것.
 - 만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은 아무런 수확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선반대투쟁을 행할 필요가 없고 남한에서 행해지는 선거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우리들은 언제나 통일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 김원봉 당(註: 조선인민공화당)에서 김구 김규식은 말로는 선거에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선거에 참석한다는 성명.

■ (1948년) 3월 12일

- ▲ 김일성과의 대화
김구가 김두봉에게 보낸 편지
 - 어리석은 인간 김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날 필요가 있고 그를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동의할 것이다. 그는 심지어 북쪽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그에게 지위를 준다. 즉각 답을 바란다.
(註: 즉 김일성은 김구가 어리석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 3월 12일 김두봉이 김일성에게 또 전화해서 김구에게 확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의 답변

- 국가적 사업은 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서두르는가?

- ▲ 김책(金策)이 김일성에게 전화해서 김구 이름이 없으니 포함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일성 :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김두봉 : 무엇 때문에 항상 그 사람(김구)을 욕하느냐?

김두봉 : 김구가 단독선거에 찬성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다른 사람이 편지를 썼다면 모르지만.

- ▲ 김두봉의 생각 : 빨리 만나야 된다. 김구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김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註: 이상 내용으로 판단할 때 김두봉은 김구를 신뢰했고 따라서 김구와 만날 것을 재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48년) 3월 17일

- ▲ 오후 6시 대회 개최

- 대회에서 선출되는 중앙검사위원회를 조직해야 할 것인가?
- 김과 허가이는 중앙검사위원회를 대회에서 뽑지 말고 중앙위원 중에서 선출해서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당신의 의견은?)

(註: 북로당 제2차 당대회는 3월 27~30일 사이에 열렸다. 여기에서는 제2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앙검사위원회의 조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 ▲ 소회의 4월 10일

우익

김구(金九), 김규식(金奎植), 홍명희(洪明熹), 조소앙(趙素昂)

중도

백남운(白南雲) - 근로인민당, 김봉준(金朋濬) - 신진당

김일청(金一靑) - 민주한독당

좌익

박헌영(朴憲永), 허헌(許憲), 김원봉(金元鳳), 허성택(許成澤) - 노동 조합

유영준(劉英俊) - 부녀동맹, 송을수(宋乙秀) - 농민동맹,

김창준(金昌俊) - 기독교연맹

(註: 북한측은 3월 25일 남북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위의 명단은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예비회담으로 제안된 「소범위 남북지도자 연석회의」의 남한측 초청 대상자 검토명단이다.

3월 25일 발표된 제안에는 이 명단의 인물 이외에 이극로(李克魯 - 건민회)도 추가되어 있었다)

▲(註: 다음은 앞에서 말한 「소범위 남북지도자 연석회의」 참가 대상 북한측 대표들의 명단임. 실제 3월 25일자 제안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김달현, 박정애 외 5명으로 발표되었다.)

1. 김일성(金日成) 2. 김두봉(金斗奉) 3. 최용건(崔庸健) 4. 김달현(金達鉉)
5. 최경덕(崔璟德) - 노동조합 6. 박정애(朴正愛) - 여성 7. 농민
8. 청년 9. 강양욱(姜良煜) - 기독교 개신교

▲ 다수단체

우파 90명, 좌파 80명, 노동당 20명, 인민공화당 8명, 노동조합 10명, 농민조합 12명, 민주청년 8명, 여성 9명, 문화 7명, 기독교 3명, 유교 3명, (의무적이지는 않다)

(註: 이상은 남북연석회의 남한측 참가 예정인원에 대한 검토 내용인 듯하다)

▲ 우익인사들

한국독립당 15명, 민주독립당 10명, 근로인민당 15명, 사회민주당 5명, 신진당 5명, 민련 독립당(註: 독립노동당?) 5명, 민중동맹 5명, 건민회 5명, 청우당 3명, 유교(총연맹) 5명.

(註: 이상은 남북연석회의 남한측 참가자 중 우익참가자 수에 대한 검토 내용인 듯하다)

■ (1948년) 3월 23일

▲ 김일성과 노인과의 만남

- 회의 수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해 설

北 남북연석회의 개최 배경

南韓이 먼저 單選주장 대내외 선전

北 정권에 정통성 부여 계기로 활용

제2차 미·소공위의 결렬 이후 북한 측이 조선임시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에 나섰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헌법 채택을 급속히 추진시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북한이 먼저 단정을 수립하려 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남한에서 전개되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측은 「전조선인민위원회대회」 구상도 취소한 바 있었고, 헌법 채택을 위한 인민회의 개최도 뒤로 마루고 있었다.

이런 즈음 유엔소총회는 2월 26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남한지역에서의 총선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남한에서의 단선단정 추진은 급속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남한만이 단선단정에 반대했던 김구 및 김규식은 2월 16일 비밀리에 남북협상을 제안하는 서신을 북한측의 김일성 김두봉에게 보냈다.

레베데프 비망록은 김구와 김규식의 서신을 받은 북한측이 특히 김구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김구와 만났을 때 그가 북한측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망록은 김일성은 김구의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그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했고 반면 김구를 신뢰했던 김두봉은 그를 빨리 만나자는 입장을 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측은 3월 9일 북조선민전 중앙위원회를 개최, 유엔소총회의 남한 단선 결정에 대응하여 북한 역시 선거를 실시하여 최고입법기관을 구성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북조선민전의 결정은 북한 역시 그들 주도의 분단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라 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측은 남한의 단선단정에 반대하고 북한에 수립되는

정권의 정통성을 드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필요에서 북한측은 남북연석회의를 급속히 추진시켰던 것이다.
 3월 중순경 소당국과 북한측은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 시작했다. 즉 이 비망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당국은 남한측 초청대상단체와 인사들을 검토하는 한편 북로당은 3월 20~24일에 중앙위 특별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3월 25일 북조선민전중앙위 제26차 회의는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공개리에 채택했고 그 내용은 그날 저녁 7시 평양방송으로 발표되었다.
 며칠 뒤 북한측이 보낸 남북연석회의 초청장은 김구 및 김규식을 비롯한 남한측 인사들에게 전달되었다.
 북한측의 남북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그들은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의 예비회담으로 4월 초에 남한측 15명, 북한측 10명 등 25명의 남북지도자들이 모여 소범위 남북지도자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남한의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남북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평양에 모여 4월 14일부터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있었다.
 이로써 남북협상을 제의한 남한측의 남북협상과 남북연석회의를 제의한 북한측이 회동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 사진 설명

왼쪽 사진 : 태극기 앞의 김일성

48년 4월 19일 平壤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全朝鮮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서 金日成이 연설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 金九 남북연석회의서 연설

48년 4월 21일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金九선생. 레베데프는 그를 「한복을 입은 사람 중 가장 늙은 산적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14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8)

北勞黨 2차 당대회 개최

美蘇 동시철수 메시지 채택 지시

金日成에 “라디오 통제하라”

金九 평양 초청문제 집중 토론

■ (1948년) 3월 24일

▲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에게 지시

- 남북한 정세보고는 김일성파, 김두봉파, 허헌파(남로당위원장인 박헌영이 보고를 못할 경우) 3개 그룹 대표가 한다.
- 의견을 교환한 후 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 회의 일정을 채택한다.

〈첫날 회의〉

1. 개회사
2. 주석단 : 당수, 단체 지도자
3. 회의순서와 절차 채택

〈2일째 회의〉

1. 첫 번째 문제에 대해 3개의 보고, 토론은 15분
2.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결정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 선출

※ 축사

김두봉, 김구, 허헌, 김규식, 김달현(북조선천도교청우당 당수),
이극로(건민파 대표), 최용건(조선민주당 당수), 김원봉(조선인민공화당)
8명 축사자 이름은 밝힌다. 회의 후 경축 공연은 합창과 오케스트라

〈3일째 회의〉

1. 토론 후 첫 문제에 대한 결정서 채택

2. 두 번째 문제의 보고자는 허헌(許憲).

보고내용은 선전효과와 조직에 대해 강조할 것

(註: 남로당은 3월 20~24일 중앙위 특별전원회의를 개최, 최종적으로 남북연석회의의 일정을 결정했다)

▲ 김일성에게 지시

- 48년 8월 15일까지 소련과 미국정부에 보내는 소·미 양군 철수에 관한 메시지를 채택할 것
- 남한의 총선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위원회를 결성할 것
(註: 이상의 내용도 남북연석회의에서 이끌어 내야 될 과제이다.)

■ (1948년) 3월 25일

▲ 대회(註: 북로당 제2차 당대회)에서 중앙검사위원을 선출하지 말라고 김일성에게 충고했다.

당에서는 노동자가 우선이다. 근로대중의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노동당. 노동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학설을 기초로 한다.
(여타 민주적 정당들도 마찬가지)

▲ 김일성의 보고 - 국내 정세

-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에 대해 남한 사람들은 미국을 의심하고 있다.

■ (1948년) 3월 26일

▲ (남조선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일체의 라디오를 통제하라고 김일성에게 지시

▲ 3월 26일 20시 30분 스티코프와 대화

- ① 북한 인민들은 다른 당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
- ② 조선인민은 미군정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없이도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남북대표자연석회의는 모스크바 결정을 바탕으로 한다.

누가 미·소공위를 결렬시켰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벌써 정부 없이 3년을 보냈다. 모스크바 결정이 시행되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즉 정부가 이미 수립됐을 것이다.

- ▲ (남북대표자 연석회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 ▲ 대회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한다.
- ▲ 스티코프가 불가닌(국방부차관)을 만나기 위해 월요일에 모스크바에 간다.
남북연석회의에서 제정당의 단합을 반드시 강조하고 여타 소수 정당들을
격려해야 한다.

■ (1948년) 3월 27일

북로당 제2차 당대회 개막

참석인원 9백90명, 여자 1백42명

- ▲ 노동자 4백61명(46.6%) ▲ 농민 2백56명(25.9%)
- ▲ 사무원 2백32명(23.4%) ▲ 기타 41명(4.1%)
- ▲ 고등교육 1백44명(14.5%) ▲ 중등교육 1백95명(19.7%)
- ▲ 초등교육 6백51명(65.8%)

김일성의 총화보고에 대해 16명이 발언했다.

- 다음 문제들이 집중 토의되었다.

1. 김구와 김규식의 평양 초청에 따른 문제
2. 오기섭(吳琪燮)

(註: 북한에서는 3월 27~30일 북로당 제2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반당적 요소가 짙은) 오기섭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 (1948년) 3월 31일

〈김일성에게 지시〉

김창만(북로당 선전부장)이 소련을 비판하고 다닌다.

우리는 앞으로 그를 신임하지 않을 것이다.

당대회 개최사를 할 늙은이를 고를 것.

■ (1948년) 4월 1일

▲ 스티코프에게 문의

- 조만식(曹晩植 : 당시 조만식은 소련군에 의해 연금상태에 있었다)을 연석 회의에 초청하거나 만나겠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남한 기자들을 회의장에 출입 시켜야할지. 이들이 연석회의를 어떻게 보도 할까.
북한 기자들의 출입은?
- 연석회의에서 소련군사령부의 축사가 필요한가
- 기타 정당 단체 대표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해야할 것인가
- 이 회의에 임시인민회의(전 조선을 대표한)의 성격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가
- 회의에서 꼭 만장일치를 고집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 (1948년) 4월 2일

- ▲ 서울 방송에 의하면 김구·김규식 중도당들이 우리가 보낸 연석회의에 대한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아마 그들이 동의한 것 같다.

〈문일(김일성 비서, 소련파)의 남한 정보보고〉

김구 집에서 연석회의에 초청된 당수들이 회의를 갖고 앞으로 평양에서 개최될 연석회의에 대한 대책을 토의했다.

회의 식순과 어떤 노선을 택해야 할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한다.

- 남한 기자들이 앞으로 개최될 연석회의에 대해 딴 미국 소장에게 질문
- 연석회의에 대한 당신의 의견?

▲ 우리는 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남북대표자연석회의에 대해 관심이 없다.

- 당신은 남한대표단 평양 수송에 협력하겠는가?

▲ 우리는 북으로부터 초청 받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고, 협력도 하지 않겠다.

- 남한의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김구가 방북을 한다면 안내할 의향은?

▲ 김구는 북한 가는 길을 모르는가.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 않은가.
 소련군사령부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했다.
 우린 더 이상 입북 신청을 하지 않겠다.
 김구 등은 회의 일정 등 문제를 북측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 자신들의
 대표를 북에 보낼 예정으로 알고 있다.

▲ 스티코프에게 남한에 대한 정보보고

- 국경(註: 38선)이 모두 닫혀 있다.
- 군대와 경찰이 아주 많다.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 전화로 지시해 달라.

▲ 4월 3일 새벽 3시에 청년대표단이 도착한다. 그들을 마중해야 한다.

그들에게 음식과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註: 3월 25일자 북한측의 남북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남한 좌파들은 즉각
 호응하는 태도를 취했고, 4월 초부터 월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날
 도착한 청년대표단은 월북하기 시작한 좌파진영의 1진인 듯하다)

▲ 김구(金九)와 김규식(金奎植)의 숙소로 브라운(미국 선교사) 집을 제공
 하려면 수리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평양에 도착할 4월 8일부터
 돌아갈 때까지 호텔을 제공한다.

▲ 남북연석회의 토론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전략을
 미리 세우도록 김일성에게 지시

▲ 김구와 김규식처럼 중간 정당들에게도 공식 초청장을 보내야할지.

아니면 라디오와 신문에 초청정보를 하는 것이 좋은지

- 남조선에서 새 화폐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신빙성 있는 정보)

해 설

2차 黨대회 개최 의미

反宗派 투쟁... 김일성 반대파 몰락

남로당보다 北勞黨 지위 우월 확인

북한은 3월 25일 남북연석회의를 제의한 후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위원장은 북로당의 부위원장인 주영하(朱寧河)가, 부위원장은 대남연락 부장인 임해(林海)가 맡았고, 그 밑에는 북민전 산하 각 대표들을 포함한 약 90명의 인원들이 그 스태프진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연석회의에서 채택될 각종 결정서, 성명서 준비 등을 비롯, 연석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실무적인 문제들을 준비해나갔다.

한편 이렇 즈음 북로당 제2차 당대회가 3월 27일부터 31일에 걸쳐 전체 75만 명의 당원을 대표한 9백99명의 대의원 중 9백90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우선 김일성은 그 보고를 통해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즉 그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미제국주의를 위시한 「국제반동세력」과 소련을 선두로 한 「국제민주진영」 사이의 대립이 깊어졌고 이러한 국제정세가 국내에 투영되어 미국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반동세력의 분단 기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이에 대항하여 「남북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소·미 양군이 철수한 가운데 통일적 자주정부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일성은 해방 직후 당건설 초기에 발생했던 종파주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꺼냈다. 즉 1945년 말 조선공산당 「북조선중앙국(김일성은 보고에서 북조선분국을 이렇게 표현했다) 결성 시 이에 반대했던 「종파주의자」들에 대해 「당시 북조선중앙국을 건설할 필요성이 누구에게든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부 동지들이 - 우물 안 개구리들이 조그마한 우물 범위의 하늘만 보던 그루빠 령수 노릇을 한 개인 영웅주의 사상에 물젖어 - 소위 「중앙을 지지한다」는 간판 하에서 북조선중앙국을 건설함에 반대했다」고 비난했다.

종파주의들에 대한 김일성의 이 같은 비난은 해방 직후 소련군과 같이 북한에 들어온 김일성 일파와 갈등을 빚었던 오기섭(吳琪燮), 정달헌(鄭達憲) 등 함남 중심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적이었다. 나아가 그것은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박헌영을 위시한 남로당과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남로당에 대한 북로당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종파주의 문제에 대한 김일성의 언급은 당시의 시점에서 북한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몰락과 남로당에 대한 북로당의 우위를 확인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남북연석회의 직전에 개최된 북로당 제2차 당대회는 남북연석회의 및 북한정권의 수립을 앞두고 노동당 내의 김일성의 주도권을 확인하기 위한 정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 사진 설명

許憲 연석회의서 연설

48년 4월 平壤서 개최된 남북연석회의에서 남로당의 투쟁에 관해
보고 하는 許憲 남로당 위원장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16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19)

김구 北行 보류

金日成에 연석회의 연기 요청

白凡 - 김규식 政見대립 커져

비서진만 먼저 평양에 도착

■ (1948년) 4월 6일

백남운(白南雲 근로인민당 부위원장)외 3명이 4월 5일부터 원산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허윤구(許允九 : 남로당, 6일 평양 도착 예정)와 나승규(羅承圭) 등 민중 동맹 2명이다.

남조선에서 우익과 중간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좌익들은 무슨 이유인지 침묵하고 있다.

김원봉(金元鳳 조선인민공화당 당수)과 남로당 중앙위도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註: 당시 남로당은 단선단정을 파탄시키기 위한 직접 무장투쟁에 주력했으며 남북 협상에는 덜 적극적이었다)

- ▲ 미군정의 딘 소장은 김구를 38선까지 데려다 줄 수 있으나 그는 남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 조소앙(趙素昂 한독당 부위원장)은 북조선에 남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 백남운은 남조선 경찰이 김구와 김규식을 바짝 쫓고 있다고 전했다.

■ (1948년) 4월 8일

- ▲ 스티코프의 지시, 0시 30분
백남운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 보고할 것
 - 남조선인민들의 민심은?
 - 남조선인민 대다수는 총선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 김구 대리인과 만나 김구의 경호문제를 협의할 것
 - 김구가 꼭 회의에 참석토록 할 것
- ▲ 소련의 연석회의 지침
 - 남한 총선 반대와 분쇄
 -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조선에서 추방
 - 소·미 양군 철수
 - 외국군 철수 후 총선 실시
- ▲ 김구와 김규식이 보낸 비서 안경근(安敬根 김구 측)·권태양(權泰陽 김규식 측)은 사리원에 와있다.
오늘 12시에 평양에 도착한다.
- ▲ 김일성·김두봉·백남운 회담, 7일 저녁>
 - 백남운 : 홍명희(洪明憲 민주독립당 당수)에 의하면 김구와 김규식은 인민들이 대표자회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 남북조선인들은 단결해야 하며 국가기관 창설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조선에선 서북청년들이 주택가를 돌며 남한 총선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고 있다. 찬성하면 도장을 찍도록 하고 도장을 안 찍으면 좌익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인민의 60%가 도장을 찍었다.

인민들은 연석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구와 김규식은 늦더라도 꼭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며칠간만 기다리고 자신들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홍명희에게도 이 같은 당부를 했다고 한다.

김구가 오지 않으면 회의가 연기되는가.

- 김일성 : 4월 14일 꼭 개최될 것이며 김구가 올 때까지 대표자회의는 연기한다. 김구가 꼭 와야 하고 우리는 그를 기다릴 것이다. 만일 남북공동기관을 구성하자면 그를 기다려야 한다.
- 백남운 : 그들이 국경을 넘어오긴 어렵지 않다. 김구에게 북조선의 공장과 민주 건설의 성과를 보여주면 그는 고무될 것이며 그에게 투쟁의욕을 줄 것이다.
- 김일성 : 우리는 헌법을 채택하지만 내각은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 김두봉 : 김구와 김규식에게 직위를 주고 헌법 채택 이후 범민족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 레베데프 지시 김일성에게

- 회의 참석자들이 돈이 없다. 이들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없다.
- 김구에게 언론·활동의 자유를 주라
- 토의시간을 제한하지 말되 토의가 끝나면 실천사항을 결의토록 할 것
- 토론에서 한쪽의 독단이 없도록 할 것
- 김구와의 회담을 꼭 관철 시킬 것

▲ 4월 7일 2명의 연락원을 보냈다고 서울방송이 전했다. 이들은 자동차로 와 38선을 넘었다.

10일 동안 북조선에서 체류할 것이라며 회의를 4월 24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일성·김두봉에게」라는 제목의 김구 편지를 전달했다.

내용은 「3월 15일자 서한을 우리는 감사히 받았다. 우리 두 동무(김구 측 안경근, 김규식 측 권태양)를 연락원으로 보내니 이들에게 지시를 주기

바란다.」라고 쓰여 있다.

이들은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

△ 4월 24일로 회의를 연기하되 이를 북조선 방송으로 통보할 것

△ 초청한 인사 외에도 선거를 반대한 인사들을 더 초청할 것

△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백지에서 출발하자.

△ 서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 하자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남조선에서 기자 2~3명이 올 수 있다고 했다.

레베데프 구상?

▲ 김구에게 물어봐야겠다.

그가 바라는 자유는 어떤 것인지.

남조선에서 총선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누가 남조선의 선거를 막을 수 있는지

▲ 김구는 남조선인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가?

▲ 김구와 김규식의 서한 내용을 스티코프에게 보낼 것.

■ (1948년) 4월 9일

▲ 소련군 극동(極東)사령관 비류조프 암호전문

앞으로 조선에 대한 모든 지시는 나를 거쳐야 한다고 스티코프 동지에게 전하라.

그는 나의 정치부관이니 소련대표가 아니다.

○ 북조선에 스탈린의 초상화가 너무 많다.(레베데프 지적)

■ (1948년) 4월 12일

▲ 스티코프 전문

김일성에게 아래와 같은 신문보도문을 전달하라.

북조선 정당과 사회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는 북조선의 민주당 및 사회단체 초청으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북하는 남조선의 정당·사회단체들의 입북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성명했다.

▲ 4월 12일 현재 평양 도착.

- 백남운(白南雲 근로인민당부위원장)과 비서 2명
- 나승규(羅承圭 민중동맹조직부장)
- 홍남표(洪南杓 남로당 중앙위원)
- 허성택(許成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의장) 등 2명
- 민중구락부 2명
- 전국농민총연맹 1명.

▲ 스티코프(오전 6시)와 툰킨(외무부 고문, 오전4시)의 지시

- 김일성은 김구의 요청에 의해 회의가 연기됐다고 보도하고 대표단이 도착하면 순차적으로 맞이할 것.

회의에서

- ▲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소·미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 등 두개의 간단한 호소문을 채택할 것.

(註: 김구의 연석회의 개최 연기 제안이 소련 측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 설

연석회의 둘러싼 政派갈등

남측협상파 북쪽 眞意 놓고 분열

좌파 개최일정에 맞춰 속속 北行

북조선민전이 3월 25일 남북연석회의를 제안한 이후 북에서는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세력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김구의 북행이 연석회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비망록 내용은 남북협상세력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던 북한측이 이들의 북행을 기다리며 연석회의 개최 일정을 뒤로 늦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구 및 김규식이 2월 16일 남북협상을 제의한 이후 남북협상 준비를 은밀히 추진해오고 있던 남북협상파 인사들은 광범위한 남북협상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결성을 추진했다. 그 결과 김구측 세력과 김규식측의 민족자주연맹이 중심이 되어 4월 3일 12개 정당을 포함한 1백2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로써 남한에서 남북협상세력의 통일적 조직이 발족하게 되었다. 이럴 즈음 발표된 북한측의 3월 25일자 연석회의 제안은 이들 남북협상세력을 한껏 고무시켰다. 그러나 북한측의 정확한 진의를 알 수 없었던 그들은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그들은 북한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두 명의 연락원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평양에서 이들이 북한측과 합의한 것은 세 가지였다. 일단 시간상 촉박한 4월 14일 회의 개막을 연기한다는 것, 회의 참가인원을 확대한다는 것, 회담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여 남북통일 문제만을 협의한다는 것 등이었다. 10일 서울로 귀환한 이들 두 연락원의 보고를 받은 남북협상세력은 이를 두고 다시 논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북행을 둘러싼 김구와 김규식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김구는 일단 북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김규식은 6개항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결국 13일 경교장(김구의 숙소) 모임에서는 김구의 북행과 김규식의 북행 보류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김구는 북행준비에 나섰고 김규식은 자신의 조건을 다시 한 번 협의토록 자신의 연락원을 다시 평양으로 파견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일사분란하게 연석회의 개최를 지지했던 좌파진영은 4월 14일 연석회의 개최 예정 일자에 맞춰 북행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4월 10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좌파진영은 일찌감치 북행에 나서고 있었고 이에 비해 남북협상세력의 북행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남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북한측은 남북협상세력의 북행을 기다리며 연석회의 일정을 뒤로 늦추고 있었다.
일찍 평양에 도착한 백남운은 북한측에 이 같은 남한측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다.

□ 사진 설명

연석회의 참석한 金料奉

48년 4월 平壤모란봉극장에서 개최된 南北연석회의에서 김두봉 북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18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20)

깊어가는 南北대립

電氣料 안내면 南에 송전중단

“人共旗 제작” 김일성에 지시

北 헌법 비준할 人民會議 소집

■ (1948년) 4월 14일

▲ 스티코프와 협의. 오후 7시

- 입북한 정당대표들의 명단을 보도할 것인지 - 남한 사람들과 협의하라
- 그들의 사진은 - 회의에서 논의하라
- 신문에 공개, 비공개 대상자는 - 해당자들이 결정하되 나의 재가를 받을 것
- 김원봉(金元鳳 조선인민공화당 당수)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본인과 상의, 신중히 결정하고 나의 재가를 받을 것.

〈스티코프의 지시〉

- ▲ 남조선 대표들이 사전에 연설을 준비토록 그 내용을 지도
- ▲ 연설내용에 스탈린의 말을 인용
- ▲ 회의에 대한 라디오방송 홍보를 계속.

■ (1948년) 4월 15일

▲ 김일성에게

- 인민회의 4월말 소집할 것
- 인공기와 인민군기를 제작하되 붉은 색과 청색, 흰색과 검은색 (선과 악 상징)을 배합하도록 할 것.

(註: 계속 연기되었던 헌법 비준을 위한 인민회의가 최종적으로 4월 말에 개최토록 결정되고 있다)

■ (1948년) 4월 16일

미군정 하지에게서 전기요금협상에 관한 서한이 오지 않으면 김일성에게 4월 20일 부터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토록 지시.

■ (1948년) 4월 17일

▲ 서울방송에 의하면 김구가 4월18일 출발한다고 성명했다.

▲ 김구의 기자회견문

나는 이북에 가고 싶다. 일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북조선에 잘못을 빌려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러기 위해 가는 게 아니다.

나는 긴 편지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편지는 외국인들의 손에 들어 갈 수가 있다.

나는 한 핏줄인 동포들과 우리말로 이야기하러 간다.

나의 방북은 내 신변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나 내가 조선인민을 위해 평생을 싸워왔기에 두렵지 않다.

5월 10일 내로 나를 암살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

4월 18일에 우리는 떠난다. 김규식은 한주 늦게 출발할 것이다.

(註: 김구는 북행을 앞두고 4월 15일 남북협상에 임하는 결의를 표명했는데 위의 내용은 바로 김구의 4월 15일자 발언 내용이다)

▲ 스티코프의 지시 (오후 8시)

-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내용에 혁명 논리와 투쟁 전략을 강조할 것

- 북조선 인민이 선택한 노선이 옳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것

- 남북인민들이 공동으로 투쟁하도록 유도할 것

- 이승만(李承晩) 반대투쟁에 제민주정당들이 일치단결토록 할 것

- 회의 참석자들이 남조선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허위정보를 계속 흘려 미군정과 남조선 당국이 혼란에 빠지도록 할 것

- 남조선 대표와 상의해 신문에 진짜 이름이나 가명으로 발표할 것

- 반동자와 미군간첩이 낄 수 있으니 자격심사위를 강화하여 진짜 이름은 꼭 알아둘 것

■ (1948년) 4월 19일

▲ 11시 김구의 출발정보에 따라 4월 19~20일 지도자회의 개최여부 결정.

(註: 김구가 출발하자 북한에서는 곧장 연석회의 일정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 김규식측 두 대리인이 도착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았다고 라디오로 보도할 것.

4월18~19일 밤에 김규식측의 두 대리인 평양 도착.

이들은 『민족통일을 위해 유엔의 후원을 받는 것은 민족자주독립 실현의 조건이다』는 연석회의에서 토의될 원칙적인 문제를 제의하고 다음과 같은 메모를 가지고 왔다.

- 어떠한 형태의 독재정치도 배격할 것
 -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국가를 건설할 것
 - 전국적 총선거를 통해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할 것
 - 어떠한 외국에도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말 것
 - 미·소 양군의 철수는 양군 당국이 조건, 방법, 기한을 협정하여 공표할 것.
- (註: 김구와는 달리 북행을 보류하고 있던 김규식은 자신이 처음에 제시한 6개항 조건을 대폭 완화시킨 5개항의 조건을 제시했고 18일 배성용과 권태양 두 연락원을 다시 평양에 파견하여 북한측과 이들 조건을 논의토록 했다. 위의 내용은 김규식의 5개항 조건이다)

▲ 라디오로 방송할 것

- 배성룡(裴成龍)과 권태양(權泰陽) 등 연락자들이 가지고 온 준비조건은 전적으로 해결되었다.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모두 해결되었다.
- (註: 북한측은 김규식의 5개항 조건에 대한 논의를 수락했고 이를 방송을 통해 김규식에게 알렸다)

▲ 회의는 시작하되 신문엔 아직 발표하지 말라. 예비회의에 31명이 참석했다.

(註: 북한측은 19일부터 연석회의 일정을 시작했는데 오전 11시에 예비회의를 개최하였고 본회의는 같은 날 오후 6시에 모란봉극장에서 개막되었으나 개막식만을 했을 뿐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는 남한에서 늦게 출발한 대표들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

▲ (註: 다음은 오전 1시에 시작된 연석회의 예비회의 시 행해진 발언 내용으로 생각된다)

- 김두봉(金斗奉 북로당北勞黨위원장) 개회사(주: 예비회의. 오전11시)
김구(金九)와 김규식(金奎植)의 요청에 의해 회의가 연기되었다.

조선해방을 위해 피를 흘린 소련군은 북조선에서 철수할 것을 제의했다.
미군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 김구와 김규식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다린다는 것을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안 있으면 총선(주: 남한의 총선)이 실시될 것이니 더 기다릴 수 없다.
온갖 난관을 헤치고 회의에 온 남측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 **김원봉**(金元鳳 인민공화당 위원장) :

우리나라의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게 된 것도 김일성(金日成)의 공로가 컸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견 일치를 얻어야 한다.

▲ **백남운**(白南雲 근로인민당 부위원장) :

김일성이 제안한 회의일정을 지지한다.

국제공산당(코민테른) 당수도 조선의 재건을 위한 우리의 회의를 지지했다.

빨리 남으로 가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註: 예비회의에서는 연석회의 진행절차와 방침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김일성에 의해 4원칙이 제시되었다.

4원칙은

첫째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추방하고 유엔결정을 무효로 할 것,

둘째 단선단정 반대,

셋째 소·미 양군 즉시 철퇴,

넷째 자주적 선거에 의한 정부수립 등이었다)

해 설

김구·김규식의 北行준비

金九 민선회의 큰 기대 먼저 평양 도착

北측 內心 의심한 金奎植 뒤늦게 출발

4월 13일 경교장 모임에서 김구는 북행을, 김규식은 북행 보류를 결정한

이후 김구는 본격적인 북행준비에 들어갔고 김규식은 다시 한 번 북한 측과의 협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김규식은 어떤 생각에서 북행을 보류하고 북한측과 재협상에 나서게 되었던 것일까? 통일정권 수립에 대한 김규식의 기본적인 생각은 유엔감시하에서의 남북한 총선거이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남한만의 단선을 의미했던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이라는 1948년 2월 26일자 유엔 소총회 결정은 김규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소련 및 북한 측 구상에 대해 호감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김규식으로는 남한 단선에 참여할 수도, 북한 측 구상에 호응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를 깊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고 이는 남북협상 노력이 진척되는 가운데서도 그가 정작 북행에는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처지에서 김규식은 북행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6개항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가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스탈린 사진을 공공기관에서 제거할 것.

둘째 평양회담을 예비회담으로 하고 첫 공식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할 것.

셋째 북한지역에서 1백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남한지역에서 선출되는 2백 명의 대표들과 회합시킬 것.

넷째 북한에서의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은 최소한 1인의 유엔한국 임시위원단의 위원을 초청할 것.

다섯째 평양 또는 서울회담은 독립실현만을 논의할 것.

여섯째 미·소 양군의 철병조건에 대해 미·소가 회합에 착수하도록 소련에 요청할 것 등이었다.

김규식이 제안한 6개항의 핵심내용은 유엔감시의 형식을 갖춘 채 남북한이 분리 선거를 통해 그 대표로서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우선 남북협상파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 결과 김규식의 6개항 조건은 다음과 같은 5개항의 조건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독재정치도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할 것.

둘째 독점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배격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승인하는 국가를 수립할 것.

셋째 전국적인 총선을 실시하여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할 것.
넷째 여하한 외국에도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말 것.
다섯째 미·소 양군의 조기 철퇴 조건·방법·기일을 협정하여 공포할 것 등이었다.
18일 평양으로 출발한 배성용(裴成龍)과 권태양(權泰陽) 두 사람이 들고
간 내용은 바로 위의 5개항 조건이었다. 비망록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
측은 일단 김규식의 5개항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미리
약속된 바대로 라디오를 통하여 김규식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결국 김규식도
북행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김구는 19일에, 김규식은 21일에 북행에 나섰다.

□ 사진 설명

연석회의 참석 38선 넘는 金九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가기 전 38선에서 남한
기자에게 포즈를 취한 金九선생.**

(왼쪽이 비서인 鮮于鎭, 오른쪽이 아들 金信)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21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21)

연석회의 개최

金九 주석단 참여 완강히 거부

계속 반대하면 美간첩으로 몰 계획

趙素昂·여운형·洪命熹 도착에 활기

■ (1948년) 4월 19일

- ▲ (註: 남북연석회의) 본회의<주: 모란봉 극장> 는 18시5분에 개최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김일성, 박헌영(朴憲永. 남로당부위원장), 허헌(許憲. 남로당위원장)이 등단했다.

개회사는 김월송(金月松. 82. 남조선 반일투사회)이 맡고 주석단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두봉·허헌·최용건(崔庸健 조선민주당 당수)·백남운 등이 축사를 했다. 모두 소련의 역할과 업적에 대해 말했다.

(註: 19일 날은 개회식만 개최되었다)

▲ 스티코프에게

국경을 차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회의참석을 이유로 국경을 넘는 사람은 더 이상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註: 북한측은 연석회의 참석을 이용하여 북한지역에 침투하는 미국 및 남한측 스파이를 우려한 듯하다)

▲ 김일성, 김두봉, 김구 예방

김구 : 나는 김일성과의 단독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김일성 : 근본과업은 독립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 욕심이 없다. 당 대표들이 많이 왔다.

당수는 회의에 꼭 참가해야 한다.

나는 홍명희(洪命熹 민주독립당 당수)와 엄항섭(嚴恒燮 한독당 선전부장)도 만나고 싶다.

김구 : 나는 회의의 주석단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곳에 참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다.

(주: 그가 참석을 단연 거절한다면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그의 대리인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 레베데프의 생각인 듯).

나는 이 회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들 계획대로 회의를 계속하라.

나는 단지 김일성을 만나러 왔다.

단독회담에서 우리가 당면한 긴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는 김규식이 제안한 전제조건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김규식이 한 것이다.

김두봉 : 미군이 조선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김구 : 그들은 내쫓기 전에 안 나간다고 생각한다. 북의 헌법은 단독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김두봉 :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김구 : 남에서 북의 헌법에 대한 보도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김두봉 :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아들이다, 딸이다 하며 왈가왈부하는 것과 같다.

(註: 북한측은 김구가 주석단에 참여하고 연석회의 회의석상에 참석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김구는 남북요인회담 - 여기에서는 김일성과의 단독회담 - 개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 우리의 결정은

공개회의는 계획대로 4월 21일에 시작한다.

47명의 지도자 호소문에는 정부수립 제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김일성과 김두봉이 제의

(註: 소당국은 남한측 대표들의 도착을 기다려 20일은 휴회할 생각이었다)

김일성과의 회견 때 김구는 자기 당 대표들과 협의하기 전에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으며 결코 주석단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듭 말했다.

▲ 문제

김구와 그의 측근들이 회의를 파탄시키고 퇴장하면 어떻게 하나.

『나가라』고 하고 그들을 미국간첩으로 몰자.

그리고 회의는 계속한다. 김구와 대화를 계속한다.

(註: 연석회의 참가에 대한 김구의 반대가 강경하자 소당국은 김구측에게 연석회의 참가를 강요할 경우 김구측이 회의를 보이콧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듯하다. 김구측이 연석회의를 보이콧할 경우 그들은 김구를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붙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 총선반대 - 한국의 분단 및 정당 단체들이 분열 불허
- 소·미 주둔군 철수 후 정부수립-상부

(주: 스탈린 또는 소련공산당 중앙 위원회) 지시대로

▲ 회의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김구 측 사람들 중 참석할 사람은 참석해도 좋다.

그들이 소란을 피우면 이 대회는 총선을 반대하자는 것인데,
왜 퇴장하느냐고 몰아붙일 것.

(註: 즉 김구의 연석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를 진행시키
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 도착 또는 오는 중

조소앙(趙素昂 한독당 부위원장), 이극노(李克魯 건민회 대표),
엄항섭, 여운홍(呂運弘 사회민주당 선전국장) 등 75명이 오는 중이다.
합하면 남조선 사람은 2백5명. 김규식은 이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고 있는 사람은 아침에 평양도착 예정.
홍명희가 평양에 도착했다.

■ (1948년) 4월 21일

▲ 김일성과 김구의 회담

김일성 : 만일 당신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김구 : 나는 정치범 석방, 38선 철폐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

내가 어떻게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비합법적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다.

▲ 서울방송에 의하면 김규식이 오전 6시 평양으로 출발했다.

4월 20일 아침 기차로 21명이 도착했다.

사회민주당 3명, 한국독립당 8명, 민주독립당 9명, 건민회 1명.

▲ 4월 21일 회의과정

- 회의 집행부(주: 주석단)에 조소앙(趙素昂 한독당 부위원장), 여운홍(呂運弘 사회민주당 선전국장)을 포함시켰다.

정세에 관한 김일성의 보고는 깊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36차례나 박수가 터져 나와 보고가 중단되기도 했다.

- 보고 후 북측의 북로당(이주연), 민주당, 청우당 등 3명이 토론했고, 남측의 홍남표(洪南杓, 남로당 중앙위원), 김모(남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2명이 『북조선에서는 조선인이 통치하고 지도한다. 이는 우리 인민의 업적이다.

붉은 군대, 소련인민, 스탈린 지도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한 김일성에게도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했다.

저녁에는 회의 참가자들에게 최승희(崔承禧) 무용을 관람시켰다.

김규식 일행에게 3대의 승용차와 1대의 화물차를 제공했다.

▲ 스티코프와 통화(4월 21, 22일)

1. 최용건(崔庸健 북조선민주당 당수)과 김달현(북조선청우당 당수)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말 것
2. 박헌영(朴憲永) 등도 없어서는 안 된다
3. 조선의 민주주의통일전선이 굳건하도록 남조선민전과 북조선민전의 분열을 방지할 것
4. 북조선 인민들이 서울에 간 것이 아니고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중시할 것.
북조선 인민들은 그들을 따라 남조선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5. 남조선의 총선반대 투쟁에 분열이 없도록 하고 지도자들이 인민들의 신임을 받도록 하라
6. 남북측에서 토론에 활용할 웅변가를 사전에 많이 확보해 둘 것.
(註: 스티코프는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 남한 정치세력과 북한 정치세력들 사이의 분열을 방지하고 이들 사이에 분열 없는 통일

전선의 유지에 유의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해 설

연석회의 南·北측 마찰

白凡 남북요인회담 개최 초강경 요구

北측 美분단정책 비판하며 일방주도

북한 측은 김구의 출발이 확실해지자 곧장 남북연석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북한 측이 연석회의 개막을 서두른 이유는 남한에서의 510총선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이다. 남한 총선에 반대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그 여세를 몰아 남한 단선 저지투쟁을 전개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다.

남북연석회의 개최식은 오전 11시 예비회의에 이어 19일 저녁 6시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김구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 날은 개최식만 올렸고 남한 대표들을 기다리기 위해 20일에는 휴회 조치가 취해졌다. 따라서 실제 본격적인 연석회의는 21일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북한 측에서 남북연석회의 개최식을 올린 때쯤 남한 측 남북협상세력의 대표들이 대거 북행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미 김구는 19일 오후에 서울을 출발했고 뒤이어 홍명희 등도 출발했다.

21일 오전 6시 에는 마지막으로 김규식 일행이 평양을 향해 떠났다.

이로써 남북협상 문제를 둘러싸고 몇 달 동안 갈등을 빚었던 남한 정국은 남한 단선을 거부하고 북행을 감행한 남북협상파와 남한만의 단선단정에 참여하는 단정수립파로 분명하게 나뉘게 되었다.

김구 및 김규식 등은 전자를 대표했고, 반면 이승만(李承晩) 김성수(金性洙) 등은 후자를 대표했다.

한편 남북협상세력의 북행과 관련하여 홍명희(洪命熹)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소설 「임꺽정」을 쓴 문필가로서 또한 학자로서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는 1946년 후반부터 정치에 참여하여 중도세력의 결집에 노력하고 있었다. 1948년 들어 그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김규식을 대신하여 남북협상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 측은 이러한 홍명희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아무튼 남북협상세력이 대거 평양에 도착함으로써 연석회의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이날 일정은 우선 참석 대표들의 자격심사보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보고에 따르면 20일 저녁까지 평양에 도착한 남한 대표들은 2백45명이었다. 이 숫자는 대회가 끝날 때쯤에는 3백96명으로 증가했다.
 즉 1백51명이 20일 저녁 이후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이다.
 북한 측 대표는 3백 명이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김일성의 북조선 정치정세 보고와 박헌영 및 백남운의 남조선 정치정세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들의 보고 내용은 대동소이했는 바 그 주된 요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친일파들과 민족반역자들을 앞세워 분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연석회의는 회의 초반부터 북한 측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김구는 이 같은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도를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구는 연석회의 참석을 주장하는 북한측에 대해 연석회의보다는 남북의 요인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 측의 연석회의 주장, 이에 대한 남북협상세력의 요인회담 주장은 평양에서도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다.

□ 사진 설명

담소 중인 김일성과 박헌영

48년 4월 南北연석회의 기간 중 金日성과 朴憲永(가운데),
 許憲(오른쪽)이 모란봉극장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하고 있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23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22)

연석회의 폐회 자축

“美 장단에 춤췄다” 김규식 후회

單選반대 北노선 정당성 입증

金九 요구 南北요인회담 추진

■ (1948년) 4월 22일

▲ 홍명희와 김두봉의 대화

4월 21일 8~9시까지 김두봉과 홍명희와 만났다. 면담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놓고 진행되었다.

홍명희(洪命憲 민주독립당 당수)

1. 당신들은 유엔이 조선 사람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도 조선인의 참여가 없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당신들은 모스크바 회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2. 왜 소련정부의 철군 제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비해 소련을 더 유리한 입장에 놓으려 하는가.

김두봉 :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둔군 철수 문제를 제의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다.

홍명희 : 물론 그게 사실이다. 그러나 강조할 필요는 없다.

▲ 김규식이 비서 등 일행과 도착했다.

이 자리에 김구·조소앙·홍명희가 나왔다.

김규식은 『나는 피곤하다. 4월 23일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주 : 이 부분은 김일성이 레베데프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임).

▲ 김구·조완구(趙琬九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위원)·조소앙·홍명희가 회의에서 축하 연설을 했다.

▲ 스티코프에게

1.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그룹이 흥남화학공장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남한의 미국인들은 이 공장이 망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백남운·기타)
2. 그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김두봉이 김구·김규식·조소앙·홍명희 등을 데리고 내일 그 사정을 알아보려고 공장을 방문하려 한다. 그들 방문을 허락해야 하는가.
진남포와 평양으로 국한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귀하의 의견은
3. 추후 계획
오늘은 첫 번째 문제를 끝낸다. 내일은 두 번째 문제에 착수하여 내일 중으로 끝마치도록 노력한다.

▲ 문일(文日 김일성 비서)의 보고

- 회의에서 남조선의 인텔리들은 만일 우리에게 이런 조건과 김일성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김구는 5분 동안 연설을 통해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어떤 내용과 목적으로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당신 나라에는 대체로 좋은데 경찰이 무례하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지령을 잘못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註: 김구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축사만 하고 바로 나왔다)

■ (1948년) 4월 23일

- ▲ 김일성의 보고에 의하면 김구와 김규식 두 영감은 38선에서 경찰이 불순하게 대한 것에 대해 격분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김구에게 『반동분자를 옹호한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김규식의 가방을 살살이 뒤졌다 한다.
- ▲ 김규식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났다. 노인병인가, 아니면 피병인가.

김일성은 회의 전에 늙은이들의 숙소를 방문했다.

(註: 김규식은 병을 핑계삼아 연석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스티코프로부터〉

박헌영과 김일성을 본 위원회(주:남한의 총선반대투쟁위원회 같은)에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소군정)의 의견을 신속히 전보로 보낼 것. 그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지.

〈김일성에게〉

주(駐)모스크바 북조선 무역대표부 개설 정형을 보고할 것.

▲ 김일성·김규식회담

- 우리들의 불참아래 회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
- 왜 미(美)제국주의라고 부르는가. 미국이라고 불려야 한다.
- 소회의(주: 남북요인회담 즉 남북지도자협의회를 말함)를 시작해야 한다.
(그는 4월 24일 소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왜 대표단이 입북할 때 무성의하게 마중했는가.

▲ 스티코프에게 남북연석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것을 축하하는 군중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건의했다.

4월 25일 일요일에 개최토록 승인되었다.

■ (1948년) 4월 24일

▲ 스티코프와 통화

- 연석회의에 만족한다.
- 남한 대표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보여줘라.
- 원한다면 군대도 보여줘라.
- 헌법초안 가운데 토지 관련 조항에서 추가로 지역특성과 지질에 따라 부농(富農)을 허용하라.
- 소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

- △ 철군 후 회의 참석자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고
- △ 남북 총선 실시 후 정부를 수립 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자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 △ 반대하면 왜 평양에 왔는가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를 따질 것.

■ (1948년) 4월 25일

△ 만찬에서

김규식 : 나는 항상 조선 문제는 조선사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회의에 실망했다.

이 만찬회에 참석하는 것이 양심에 꺼리긴다.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전도금을 주는 형식이다.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이미 벌여 놓았다.

나는 미국의 장단(주: 서양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지만 지금부터 조선의 장단 (주: 만찬회에서 연주되고 있는 민속음악)에 맞춰 춤을 추겠다.

누군가가 나를 30년간 공산주의자로 만들려 했다.

나는 한때 이르크츠크파에 가입했으나 제명당했다.

그 후 나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다.

김구 : 여기에 올 때 내가 가장 나이 먹은 영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 82세 노인(주: 김월송金月松)도 있더라(김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 김두봉은 김규식을 5월 10일까지 평양에 묶어두자고 제안했다

(註: 김두봉은 남한 총선일인 5월 10일 이전에 김규식이 서울로 돌아갔을 경우 미군정이 그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듯하다)

(주: 이 제안은 김규식이 남한으로 내려가면 미(美)군정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어 묶어두자는 의미로 해석됨).

▲ 38선에 군 사단 또는 국경경비여단을 배치할 것인지를 김일성과 협의해야겠다(주:레베데프가 남북연석회의 참석자들의 귀환을 전후해 38선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됨).

▲ 스티코프에게

「평양을 공화국의 임시수도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인가 문의했더니 그 조항은 아예 없애라고 지시했다.

■ (1948년) 4월 26일

▲ 10~11시 30분까지 스티코프와 대화

- 5월 1일 이후에 김구와 김규식을 꼭 내려 보내라.
- (상황에 따라) 박헌영과 기타 사람들도 5월 1일 남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라.
- 김구와 김규식 앞에서 절대 굽신거리지 마라.
- 남조선의 좌익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 김두봉의 노선(주: 반소 및 민족주의 경향)을 상세히 파악해두라.
또 누가 그런 노선을 견지하는가.

* 김두봉은 전화로

인민회의와 군중대회에 소련사람들이 오지 말도록 하고

인민군 사열 때(주:메이데이 행사) 김구를 주석단 자기 옆으로 초대할 것을 북로당 위원장 명의로 지시했으나 허가이(許哥而 북로당 조직부장)가 단호히 반대했다고 보고했다.

▲ 지시

총선에 대한 남한 언론의 보도를 방송으로 강력하게 비판할 것.

해 설

연석회의의 南北 상반된 평가

대회 일방적 진행에 강한 불만 남측

축하 군중대회 개최 등 대만족 북측

21일 연석회의에서 남북한 정치정세 보고가 발표된데 이어 22일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토론 내용의 대부분은 남한 단선을 규탄하는 한편 미·소 양군이 철수한 가운데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독립국가를 세우자는 요지였다. 토론 방식 역시 자유토론이 아니고 미리 지정된 토론자가 순서에 따라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연석회의에 들른 김구, 조소앙, 조완구, 홍명희 등은 주석단에 보선되었는데 이를 보아 처음에 주석단 참여를 거부했던 김구는 결국 마지못해 이를 허락했음을 알 수 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구는 우리 민족이 단결해야 된다는 요지의 간단한 축하만을 하고 바로 자리를 떴다.

반면 김규식은 병을 핑계 삼아 끝까지 연석회의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 연석회의는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했고 또한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란 격렬한 호소문을 채택했다.

나아가 연석회의는 미국과 소련에 미·소 양군 철수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채택했다.

23일 회의를 끝으로 4일간에 걸친 남북연석회의의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비망록 내용은 이 같은 연석회의의 성공적 종료에 대해 스티코프가 매우 흡족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5일에는 연석회의 경축 군중대회가 개최되었다.

북한 측 주장에 의하면 여기에는 34만 명의 군중들이 참여했다.

저녁에는 김일성 주최의 만찬이 있었고 비망록 내용은 이 자리에 참석한 김규식이 북한 측의 일방적인 행동에 불만을 털어놓는 한편 이제는 미국의 장단에도 놀아나지 않겠다는 심정도 토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석회의를 통해서 공산측은 자신들의 노선에 대한 대의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즉 남한 측 남북협상세력을 북으로 불러들여 단선단정에 대한 그들의 반대에 동참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부분 정치세력들이 남한의 단선단정에 반대한다는, 따라서 북한 측 노선이 정당하다는 선전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협상세력이 원했던 것은 공산 측의 이러한 선전적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미·소 양국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민족적 이해에 따라 남북한의 지도자들 스스로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분단저지 및 통일정부 수립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공산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연석회의보다는 남북 요인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남북요인회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남북협상세력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공산측은 남북지도자협의회의 형식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 사진 설명

모란봉극장 들어서는 北 주석단

南北연석회의장인 平壤 모란봉극장에 들어서는 金日成과 北주석단,

왼쪽 끝이 金枋奉. 그 옆이 金達鉉, 金日成 뒤가 朴憲永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25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23)

金九·김일성 회담

김일성 白凡에 망명처 제공 약속

“미국인 內政간섭 심해 국민 불만 서울 갈 때 曹晩植 데려가고 싶다” 金九

■ (1948년) 4월 28일

▲ 김일성·김규식 회담

김규식이 임시적 성격의 「남북지도자협의회」에서 다음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1. 남북 연합기구 창설

- 그렇게 되면 단선에 동참한 정당들도 우리 편으로 넘어 올 것이다.

-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고립될 것이다.
 - 남한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
2. 이 회의는 단선반대 투쟁뿐 아니라 통일조선을 창조하는 미래 조선의 초석이 될 것이다.
 3. 우리의 평양방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 지도자 협의회 명단

- 남측(9명)

김구(金九 한독당 당수), 김규식(金奎植 민족자주연맹 위원장),
 홍명희 (洪命熹 민주독립당 당수), 이극노(李克魯 건민회 대표),
 조소앙(趙素昂 한독당 부위원장) 허헌(許憲 남로당 위원장),
 박헌영(朴憲永 남로당 부위원장), 김원봉(金元鳳 인민공화당 부위원장),
 백남운(白南雲 근로인민당 부위원장)

- 북측(8명)

김두봉(金斗奉 북로당 위원장), 김일성(金日成 북조선 인민위원장 겸 북로당 부위원장), 최용건(崔庸健 조선민주당 당수), 김달현(金達鉉 북조선청우당 당수),
 최경덕(崔璟德 직업동맹 위원장), 박정애(朴正愛 여성동맹 위원장),
 이기영(李箕永 조·소문화협회 위원장), 현칠종(玄七鍾 농민동맹 위원장)
 (註: 그러나 이 명단은 이후 남한 측 11명과 북한 측 4명으로 바뀌었다)

* 조선통일촉진전국준비위원회라고 부를 것.

(주 : 지도자 협의회 명칭에 대한 소군정 측의 구상으로 보여짐)

■ (1948년) 4월 29일

▲ 허가이 보고

- 남북 지도자협의회에 관해 김구는 남한대표 9명을 모두 우익으로 하고 박헌영과 중간좌익은 제외하거나 북측 대표로 하라고 요구했다.
- 이 때 주영하(朱寧河 남북연석회의 영접위원장)는 이 제의에 대해 반대했다.

- 김구와 김규식은 그들이 인민회의에 참석할 경우 북조선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했다는 비난이 두려워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註: 북한은 4월 28~29일 사이에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를 개최, 조선 민주주의 헌법을 통과시켰다)

■ (1948년) 5월 3일

▲ 김일성에게 물어 봐야겠다.

- 왜 김두봉(金斗奉)이 남측 대표들과 식사를 자주 하는지
- 김구와 김규식 귀환 일자는 언제가 좋은지.

▲ 김구와 김일성, 1시간 30분 동안 회담

회담 분위기는 좋았다.

1. 한독당 당원 석방문제에 대해

김구 : 감옥에 있는 우리당원들을 석방시켜라.

김일성 : 한독당 당원이어서 체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테러분자들이다.

김구 : 테러분자들이라면 석방시키지 말라.

2. 조만식(曹晩植)에 대해

김구 : 조만식(曹晩植)은 식사 등이 형편없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조만식이 나와 함께 남한으로 갈수 있는 선물을 달라

(김구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한 김일성의 대답이 비망록에 기록돼 있지 않음). 3)

나는 늙은이다. 나를 아껴야 한다.

남한의 공산당원들에게 원칙적인 문제(38선 철폐 등)를

3) 「삼천리」 1948년 9월호, 7면, '김구선생 회견기'에는 김구선생 요구에 대해 "아! 제 마음이야 얼 마든지 같이 가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어디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주둔군 당국의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하였다. 나는 "그대들이 권한이 그뿐인가? 그래서야 어디 자주정권인가?"하며 농담하였다.

해결해야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미리 전해라.

원칙적인 문제라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

3. 남한 송전(送電)문제에 대해

김구 : 당신들이 단전(斷電)하려 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전기료가 북한보다 비싸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료를 제 때에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들에게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자주 방송을 해라. 그러면 우리도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

4. 자신의 장래 활동에 대해

김구 : 만일 미국인들이 나를 탄압한다면 북한에서 나에게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가.

김일성 : 긍정적으로 대답

- ▲ 김일성은 김구를 만난 후 이어 조소앙(趙素昂)을 만났다고 김일성의 비서 문일이 저녁에 보고했다.

■ (1948년) 5월 4일

▲ 김구의 기자회견

남한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에는 건설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나 남한에는 그렇지 못하다.

1. 건국에 대해

민족 자주독립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워 국민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 남한에 미국인들이 깊이 간섭하는가?

내정에서는 깊이 간섭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 서울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는 총선을 위한 자유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2. 출발 직전에

김구가 주영하에게 반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권력도 직위도 싫다』고 말했다.

■ (1948년) 5월 5일

▲ 스티코프와 상의할 것

백남운(근로인민당 부위원장)·이극로(건민회 대표)·홍명희(민주독립당 당수) 등 당수급 3명이 평양에서 일하기 위해 북한에 남겠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대학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허정숙(許貞淑)의 남편 박 니콜라이 알세이비치(북조선 인민위원회 국가 계획 국장)는 어떻게 되었나. 허헌(許憲)이 걱정하고 있으니 알아 봐라(소련에 가족을 둔 박이 허정숙과의 동거로 말썽이 나서 「병 치료」라는 명분을 붙여 소련으로 소환시켰다고 91년 레베데프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 스티코프가 허헌의 부탁을 받고 물어본 것으로 해석된다.)

■ (1948년) 5월 7일

〈스티코프에게〉

-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들이 수풍수력발전소의 공동관리와 전력공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의견

- 중국 중앙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는 공식협상을 하지 말 것.

■ (1948년) 5월 8일

▲ 스티코프 지시

UP통신에 김구가 자신의 당원들에게 총선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 확인해 보고하라.

■ (1948년) 5월 11일

▲ 스티코프에게

김구가 자신의 당원들에게 선거를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인민회의 결정〉

- ① 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북조선 국토에서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할 것.
- ① 조선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
- ①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조선정부」 수립을 위해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남조선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①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법 작성,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해 설

南北요인 회담 의미

“통일민주정부 수립” 공동성명 발표

분단정권 성립 막으려 끝까지 노력

남북요인회담 즉 남북지도자협의회는 4김회담 또는 15인회담 등 수차례 회담을 통해 4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등이 참여한 4김회담은 주로 논의의 주요내용들을 결정했고 김구 김규식 홍명희 조소앙 조완구 김봉준 이극로 엄항섭 박헌영 허헌 백남운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주영하 등이 참여한 15인회담은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좀 더 구체화시켰다.

남북요인회담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통일정부 수립에 관한 것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김규식의 5개항 조건도 같이 논의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회담 결과 남북한 요인들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내용은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56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서명을 얻어 다음과 같은 요지의 4개항 공동성명서로 발표되었다.

첫째 우리 강토로부터 외국 군대를 즉시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 외국 군대가 철거한 이후 내전이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외국 군대 철거 후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 하고 이 임시정부는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넷째 남한 단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공동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외군 철수 후 남북한총선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외군 철수 후 내전의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성명은 그 내용만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실제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튼 연석회의에 이어 남북요인회담은 이렇듯 마무리되었다.

이어 5월 1일에는 메이데이 행사가 있었고 북한측은 이 행사에 참석한 남한 측 요인들에게 인민군의 퍼레이드까지 보여주었다.

2일에는 남북 요인들의 쏙섬 회동이 있었고,

3일에는 김구 김규식의 서울 귀경을 앞두고 김구와 김일성, 김규식과 김일성의 마지막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구는 조만식의 남행문제, 남한에 대한 송전문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피난처 제공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김구가 남한에서 암살이나 정치적 박해의 위협을 느껴 김일성에게 피난처 제공여부를 묻고 있다는 점이다.

5월 4일 김구 및 김규식을 비롯하여 남북협상 일행은 귀경길에 올랐고

5일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북행인사 4백여 명 중 백남운 이극로 홍명희 등을 포함한 70여 명은 그 길로 북에 주저앉았다.

남북협상의 시도 이후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남북한에서는 분단정권이 들어섰다. 결국 분단을 목전에 두고 이를 저지하고자 했던 남북협상 노력은 분단정권이 수립되는 현실 속에서 통일정부 수립 시도의 안타까운 발자취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 사진 설명

휴식 중인 남북대표들

平壤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의 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北인민위원회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북대표자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매일신문 1995년 2월 28일 (9면)

北정권 수립 秘史 레베데프 비망록 (24)

레베데프 歸國

北韓 정부수립 蘇聯軍 철수

초대 각료 19명 중 9명이 南韓 출신

주민 환호 속 기차로 두만강 건너다

■ (1948년) 9월 17일

▲ 정부구성

- 정부각료 19명 중 9명이 남한 출신이다.
 - 최고인민회의 간부 21명 중 12명이 남한 출신이다.
 -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 1명도 남한 출신이다.
- (註: 남한에서 5·10총선이 실시된 직후 북한에서도 정권수립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선거를 거쳐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었고 이 최고인민회의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 (1948년) 10월 2일

▲ 철군 후에 남는 것

1. 대사관 2. 통상대표부 3. 타스통신과 신문사 4. 영화수출공사
5. 조·소대외문화연합회 6. 소련인 병원과 원장 아니시모프
7. 정보국(정리할 것) 8. 군사고문관들 9. 기업과 관청의 전문가들
10. 소비에트 한국인들

(註: 북한주둔 소련군은 1948년 말까지 북한에서 철수할 계획이었다)

■ (1948년) 10월 22일

▲ 남한 상황

1. 병사들이 탄 5대의 군함이 봉기자들에게 가세했다.
2. 제14연대 연대장 오동기(吳東起)가 체포되었다.
 -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여수 순천 고흥 보성 곡성 순창 하동 광양 구례
 - 두 지방도시 광주와 전주에서 전투가 발생했다.
 - 조용히 노동당이 참가하기 시작했다.

(註: 남한에서는 10월 19일 밤부터 여순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남로당은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 김책(金策)이 타스통신에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우리는 미제국주의와 남한의 괴뢰정부를 쳐부실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인민민주주의의 영원한 기초를 마련했고 한국의 장래 운명을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투쟁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조선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 김일성을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해야 한다. 조선인민은 소련의 문화적 경제적 원조를 희망한다」

- 실제로 그러했는지 아니면 어떠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것.
전보로 급히 알릴 것. 확인된 바는 전혀 그렇지 않음
(註: 김책이 지나치게 과격한 내용을 발표한 듯해서 소련측에서 사태
경위를 파악코자 했던 것 같다)

■ (1948년) 11월 5일

- ▲ (註: 다음은 6연대 반란사건의 내용임)
 - 대구시 11월 2일 12시 새로운 폭동. 경상북도(주요도시 - 대구)
 - 30명이 기차에 앉아 있다가 들고 일어났다.
 - 폭동이 6연대로. 연대가 미군에 의해 포위되다.

■ (1948년) 12월 15일

- ▲ 토지문제
북한의 전체 농가 수 1백9만9천8백35호. 그 중 토지소유에 따르면
1ha 이하 52%, 1~1.5ha 19.1%, 1.5~2ha 13.5%, 2.5~3ha 5.7%,
3ha 이상 1%
- ▲ 1946년 곡식 총수확량과 비교하면 1948년도에는 51만3천6백t,
즉 26% 증가했다.

■ (1948년) 12월 24일

- ▲ 소비에트군대의 철수와 관련해서 조선인들은 스탈린 동지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준비했다.
그 편지는 멋진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도 서명한 것이다.
- ▲ 조선인들은 12월 26일 전송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스탈린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건네줄 예정이다.
(註: 소련군의 철수에 즈음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이 서명한 스탈린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 (1948년) 12월 25일

▲ 평양시 마지막 날 평양에서

- 소련군대를 위한 집회가 (26일) 11시에 시작됨
- 출발 26일 14시
- 집합과 분주함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쨌든 오랜 시간에 걸쳐 집합하여 밤 2시쯤 다 모였다. 기차간에서 노숙할 것을 결정. 많은 선물과 짐들로 차 3대분이 모였다.

■ (1948년) 12월 26일

▲ 밤을 기차간에서 지냈다.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현수막과 기치를 든 채 아침에 모여들었다.

▲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간다. 10시 45분에 집회장소로 갈 예정이다.

집회는 역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11시 정각에 우리는 연단에 선다.

소련지휘부 대표들과 정부대표들이 연단에 오르자 군중들은 「만세」하고 외쳤다.

집회가 시작된다.

정부의 이름으로 환영사가 낭독되고 김책이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다. 그 후 허정숙이 소련군대의 북한 철수와 관련해서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스탈린 동지에게 바치는 감사장을 읽기 시작한다.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된 서신을 김두봉이 읽은 후 그 편지를 소련군 지휘부 대표인 메르콜로프 장군에게 전달한다. 마지막 사람이 축사를 들고 연단에 오른다.

화환증정, 언제나 꽃은 아이들이 증정한다.

집회는 55분간 계속되었다.

3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 우리는 함성과 박수로 환영을 받으며 플랫폼을 지나간다.

열차 칸에 들어가서 우리는 러시아의 관습에 따라 보드카 잔으로 술을 마신다.

정확히 2시 기차가 역에서 천천히 떠나간다. 기차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전 군중들은 흠어져 돌아가지 않았다.
기차의 움직임과 함께 광장 전체가 바다의 파도처럼 일렁인다.
펼려이는 깃발과 우리를 향해 흔드는 국기가 보였다.
우리과 함께 김일성(金日成) 김두봉(金斗奉) 김책(金策) 박헌영(朴憲永) 박일우(朴一禹) 등이 기차를 타고 갔다.
(註: 26일 평양에서는 소련군 환송 군중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평양을 출발한 소련군은 12월 31일 국경을 통과하여 소련으로 철수했다) <끝>

해 설

9월 9일 北朝鮮공화국 수립

南北韓 선거 통해 최고인민회의 구성

내각 핵심요직은 북한 측 좌파들 장악

남북한연석회의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5·10선거가 치러지고 이에 따라 남한정부 수립을 눈앞에 두자 북한 역시 자신들의 정부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 29~7월 5일에 걸쳐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는 북한정권의 수립을 결정하였다.
물론 제2차 지도자협의회 때에도 북한측은 김구 및 김규식을 초청했다.
그러나 김구 및 김규식은 이를 북한 단독정권 수립 기도라 생각하여 이 초청을 거부하였다.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에 뒤이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곧 남북한에서 실시되었다. 즉 8월 25일 북한에서 실시된 선거결과 북한지역을 대표하는 2백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한편 남한지역의 대의원 선출은 지하간접선거 형태, 즉 남로당원들이 연판장 서명을 받아 해주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할 대표들을 선출하고 이 해주대회에서는 최고인민회의에 보낼 남한측 대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남한지역에서 치러진 지하선거에 의해

해주대회에 보낼 1천80명의 대표들이 선출되었고 이들은 월북하여 8월 21~26일 해주대회를 개최하였다.

해주인민대표자대회는 최고인민회의에 보낼 3백60명의 남한측 대의원을 선출했다. 남한측 대의원 3백60명과 북한측 대의원 2백12명 등 총5백72명으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9월 2~10일 동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9월 9일 북한정권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 수상에는 김일성(金日成), 부수상에는 박헌영(朴憲永) 홍명희(洪命熹) 김책(金策) 등이 취임했다.

최고인민회의 간부진과 정부 내각의 대체적인 진용을 살펴보면 남한측 좌파들은 주로 최고인민회의 쪽에, 그리고 북한측 좌파들은 주로 내각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정권의 요직 안배를 둘러싸고 남로계와 북로계의 갈등은 증대되었고 이는 나중에 남로계의 숙청으로 이어지는 북한 내부 권력투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북한정권이 이렇게 정식으로 수립되자 소련군은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북한측은 1948년 10월 이후 철수하는 소련군을 환송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그 중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스탈린에 보내는 감사의 편지였다. 북한측은 남북한 인민 1천6백76만 명이 이 감사의 편지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비망록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소련군은 12월 26일 마지막으로 평양을 떠났고 고문관을 제외한 모든 소련군은 31일까지 조·소국경을 넘었다. 이로써 3년 5개월여에 걸친 소련군의 북한점령은 일단 종식되었다.

□ 사진 설명

소련군 철수 金日成 환송사

平壤역 광장에서 소련군을 환송하기 위해 나온 인민군악대와
학생들 앞에서 金日成(오른쪽 등만 보이는 사람)이 환송사를
낭독하고 있다.

丁海龜(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편집후기

2016년 11월 30일, 몇 년간 버르고 버르던 대구행 비행기를 탔다.

그간 몇 번을 생각했고, 또 아는 분을 통해서, 아니면 지인의 자제가 대구에 거주하는 연고를 통하여 이 자료를 입수하려고 무던히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제주도 옛 속담에 ‘종(노비奴婢)이 없으면 제가 기라’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출장하기로 했다.

매일신문사에 도착하고 보니 당시 신문은 전부 CD에 저장돼 있었다. 신문지 1면을 A4용지 1면에 출력하게 되어 있어, 25매를 프린트하고 돌아왔다.

이를 확대하고 그것을 보면서 직접 타자하였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고 몇 군데 부탁했으나 소식이 감감이라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눈이 침침하고 어깨와 팔 손목이 아파왔다. 이왕 착수한 것이라 연내 마무리한다고 무리한 탓이다. 며칠 동안 나 혼자 씨름한 결과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다.

편자는 이 비망록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그간 나의 수고한 보람을 찾고도 남을 만큼 적지 않은 수확이었다. 마침 2016년이 저물어 가는 시기에 나는 이 책을 올해 마지막 결산서로 삼아 전국 도서관과 아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나이 한 살 더함에 값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현대사 연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김 영 중

- 1941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출생
- 애월상업고등학교(현 애월고등학교) 졸업
- 해병대 병장 만기 제대(제126기)
- 서귀포경찰서장
- 제주경찰서장
- 도로교통공단제주도지부장
- 제10기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제주도지부 회장 등 역임

저서

- 『그때 거기서 나는』 상·하 (2010)
『창цом으로 본 세계』 상·하 (2010, 창цом : ‘창구멍’이라는 제주어)
『내가 보는 제주4·3사건』 (2011)
『남로당제주도당 지령서 분석』 (2014)
『제주4·3사건 문과 답』 수정증보판 (2016)

레베데프 비망록

발행일 :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 김 영 중

인쇄처 : 해동인쇄사

☎ (064) 751-0340

〈비매품〉